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1315-01

#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 2023-71 | 2024. 05.

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5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심재현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광선 (연구위원)  
권인혜 (전문연구원)  
정학성 (연구원)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연구담당

**심재현**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 2, 3, 4, 5, 6장 집필

**김광선** | 연구위원 | 제1, 3, 4장 집필

**권인혜** | 전문연구원 | 제2, 4, 5장 집필

**정학성** | 연구원 | 제3, 4, 5, 6장 집필

**송미령** | 선임연구원 | 제1장 집필

---

<b>1. 서론</b>	<b>1</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b>2. 지역문화실태 관련 국내·외 사례</b>	<b>19</b>
1. 국내 관련 지표 사례	19
2. 국외 관련 지표 사례	29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44
<b>3. 지역문화실태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b>	<b>47</b>
1. 지역문화실태조사 현황과 문제점	47
2.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선 방안	59
<b>4. 지역문화실태 지표 선정 및 구축</b>	<b>69</b>
1. 지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69
2. 지표 적합성 결과를 반영한 최종 지표	71
3. 지역문화실태 지표 구축 및 분석	87

## 목 차

<b>5. 지역문화지수 개선 및 구축</b>	<b>89</b>
1. 현행 지역문화지수 및 문화활력지수 현황	89
2. 지역문화지수의 개선 방향 및 구축	95
<b>6. 지역문화지수 분석 및 문화취약지역 선정</b>	<b>103</b>
1. 지역문화지수 구축 결과	103
2. 문화취약지역 선정	107
<b>부록</b>	<b>111</b>
1. 문화산업의 개념과 본 연구에서의 분류(표준산업분류코드)	111
2. 접근성 분석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도로망 구축체계도	123
3. 신규 지역문화지수 가중치 산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4
4.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개선 및 가중치 설정, 문화산업 분류 타당성 관련 설문조사지	130
5. 지역문화실태조사 신규 지표의 지표별 세부사항	143
<b>참고문헌</b>	<b>169</b>

**표  
목차**

<표 1> 대한민국 시대별 문화의 기능 주요 특성	12
<표 2> 지역 간 문화격차 분석 구조	16
<표 3>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20
<표 4>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2020년 개정)	21
<표 5>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주요 조사 항목(2022년)	22
<표 6> 국민생활문화활동조사 주요 조사 항목(2022년)	23
<표 7> 지역문화 실태 관련 지표 비교	24
<표 8> 국내 주요 지역발전, 삶의 질 수준 관련 지표·지수 체계	26
<표 9> 지역발전지수의 구성 지표(2022년 RDI 기준)	28
<표 10> 국가별 문화지표 주요 특성	29
<표 11> 문화창조도시모니터 지표	30
<표 12> 선정 기준별 문화창조도시모니터에 포함된 유럽 도시 현황	31
<표 13> 예술활력지수 구성 지표	36
<표 14> 유네스코의 문화2030 지표	37
<표 15> OECD의 Better Life Index	38
<표 16> OECD의 How's Life	39
<표 17> 영국의 국가 안녕 측정(UK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40
<표 18> 독일의 안녕 지표(Wellbeing in Germany)	41
<표 19> 네덜란드의 광범위한 번영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모니터링 지표	43
<표 20> 지역문화실태조사 현행 지표체계	49
<표 21> 지역문화실태조사 코로나19 특별지표	50
<표 22> 지정문화재의 종류	53
<표 23> 2020년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의 기술통계량	58
<표 24>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표 체계 변경(안)	60
<표 25>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체계 개선(안)	65
<표 26>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70
<표 27> 설문조사 응답자의 경력	70

## 목 차

〈표 28〉 지역문화실태지표 개선안의 분류체계 적합성 평가	71
〈표 29〉 현행 지표 중 향후 제외하고자 하는 항목의 제외 적합성 평가	72
〈표 30〉 기존 지표의 수정 및 신규 지표 추가에 대한 적합성 평가	73
〈표 31〉 문화산업 하위 부문별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 수	75
〈표 32〉 문화산업 구성 항목의 적합성 판정	76
〈표 33〉 지역문화실태 지표 최종 개선(안) 및 자료 구축 방법	80
〈표 34〉 지역문화실태 지표의 기초 통계량	88
〈표 35〉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최종 가중치 도출 결과	90
〈표 36〉 문화활력지수 지표구성	91
〈표 37〉 문화활력지수의 AHP를 통한 가중치 산출 내역	92
〈표 38〉 문화활력지수 지표별, 부문별 가중치 현황	94
〈표 39〉 전문가·공무원 AHP조사를 통한 가중치(대분류·중분류 지표)	101
〈표 40〉 지역유형별 현행(기존) 지역문화지수 대비 신규 지역문화지수 대분류별 결과값 비교	105
〈표 41〉 지역 유형별 지역문화지수, 지역발전지수 특성	108
〈표 42〉 지역문화지수, 지역발전지수, 취약지역지수의 K-means 클러스터 분석 결과	109

**그림  
목차**

<그림 1> 문화 개념의 변천	9
<그림 2> 지역발전지수 개념도	27
<그림 3> 문화창의도시모니터 플랫폼 운영 사례	32
<그림 4> 2023년 예술활력도가 가장 높은 40개 지역	33
<그림 5> 예술활력도시 그룹에 따른 인포그래픽(그룹별 1순위 도시의 예)	34
<그림 6> 예술활력지수에 따른 순위 그룹별 미국 50개 주 현황	35
<그림 7>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표를 활용한 정책 평가 구조(예시)	61
<그림 8> 기초자치단체별 문화활력지수 중 문화지수 결과값-최종지수 결과값 상관관계도	93
<그림 9> 지역문화지수 개선 방향	102
<그림 10> 부문별 지수와 지역발전지수와의 상관관계도	106
<그림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간정보분석시스템 도로망 구축체계도	123

## Chapter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연구 배경

##### □ 문화에 기반한 정책은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에 기여하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근간

-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은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
  - 문화적 자원과 활동을 통해 소외된 지역은 다양한 기회가 생겨나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문화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 관광, 복지 등과 연계되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적 문화적 쇠퇴는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게 됨(박태선 외 2014).
  - 더불어 문화적 자원은 예술, 공연, 축제, 공예 등의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기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또한 문화산업은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경제 다각화를 촉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은 대도시에서 집중된 인구와 경제활동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문화자원과 활동을 강조하는 지역은 성장할 수 있고, 도시·농촌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함.
  - \* 예를 들면, 양양군의 경우 해양레저(서핑)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인구감소 시대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변모한 바 있음.
  - \* 그 밖에도 농촌의 전통문화, 전원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2010년 이래로 40만 명이 귀농·귀촌 중임.
-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문화 부문 국정과제에도 “문화 중심 지역균형발전”이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하여 ①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②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③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④ 지역 중심 문화 균형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그 중 “지역 중심 문화 균형발전”은 특색 있는 지역문화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지역문화 정책포럼 등에 기반한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 중심 문화

거버넌스 확립, ‘문화로 지역혁신-문화도시 2.0’, 지역문화 활력 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문화 기획자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 전환을 주요 과제로 채택함.

- 최근 지역 중심 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으로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추진하기도 함.

## □ 보다 효과적인 지역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요구

-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다소 막연한 지역별 문화 격차에 대해 더욱 정교하고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함.
  - 정교하고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임.
- 더불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도 지역별 문화 격차에 대한 과학적 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발생함.
  - ① 정책 목표와 방향성 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지역의 문화 격차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 이를 통해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책 개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② 자원 분배의 효율성 확보: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정책 투입량을 정교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정교한 근거 자료는 자원의 효율적인 투입 의사결정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음.
  - ③ 지역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 설계 지원: 과학적 근거 자료를 통해 지역 사회의 실태와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④ 평가-환류 체계 구축 및 장기적 영향력 파악: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더불어 이러한 근거 자료를 장기간 구축·분석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 지역문화실태를 파악하는 기존 지표의 점검과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세 차례(2014, 2017, 2020)에 걸쳐 수행했고 문화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근거 자료 사용하고자 지역문화지수를 생산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정우식 외, 2020).
  - 지역문화지수와 관련하여 지역문화 여건 비교를 위한 공급 부문의 객관적 지표에 치우쳐 실제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삶의 질 등 지역 주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임.



- 일례로 문화도시로 지정됐음에도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못 올린 도시도 있을뿐더러 양적 요소만으로 문화지표를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sup>1)</sup>
- \* 하향식(Top-down) 방식만으로는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고, 현재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지자체의 문화지표 조사 자료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활용한 지역문화지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문화균형지수” 및 “문화활력지수” 등을 개발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 문화균형지수는 분석 결과가 광역 단위로 산출되어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원책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문화활력지수는 지역문화지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일반 현황을 포함하고 체감 지표인 문화SOC 접근성 등에 관련한 지표를 포함하였지만, 지역문화지수를 너무 축약한 것과 함께 지역문화 관련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자료로 구성됨.
  - 더불어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포함되는 ‘문화취약지역’ 우선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별도로 추진된 문화활력지수와의 통합 방안 모색도 제기된 상황임.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 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이에 본 연구 수행기관에서는 10년 넘게 추진해 온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 작업의 경험을 결합하여 지역의 문화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함.

1)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 1.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실태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법론적 보완을 통해 지역별 문화격차에 대한 정교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것임.
  - 무엇보다 지역 간 문화격차의 상태 확인을 위한 주요 수단인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조사를 위한 적합성과 효용성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역문화지수와 문화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개발한 문화활력지수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여 실태조사 결과 활용성을 제고함.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연구 목표를 수립함.
  - ① 문화, 문화격차 등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수 개발의 의의를 점검
  - ②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문화활력지수의 활용 현황과 성과 분석, 문제점 도출
  - ③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의 개선 방향 도출
  - ④ 지역문화지수 및 문화활력지수의 통합 모델 등 개발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1. 연구 내용

#### □ 이론·정책·사례 검토 기반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선 방향 도출

- 지역문화격차 해소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기계적, 기술적인 지수 개발 이외에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에 기반해 지수 개발의 의의와 방향성 등에 대한 탄탄한 논리를 확보하고자 함.
  - 지역문화격차 평가·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 취합·분석
  -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지역발전·문화산업 정책 동향 분석
- 지역문화실태조사 현황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지수의 원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개선 모델을 제안함.
  - 현실 체감도 및 정책 투입의 효과성 제고 등을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지역이 중심이 되는 문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 데이터 구축 및 지역별·유형별 동향 분석
  -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선 방향 의견수렴
  - 공공·학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대상 자문회의 진행

#### □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선 방안 제안 및 통합 지역문화지수 개발

- 지역문화지수-문화활력지수 통합모델 개발
  - 지역문화지수-문화활력지수 통합을 위한 기본구상 마련
  - 지수 정의와 목표 설정: 문화활력지수와 지역문화지수의 정의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통합의 방향을 설정
  - 후보 지표 선택과 수집: 통합의 방향에 따른 후보 지표를 선택하고 지표의 데이터를 수집
  -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후보 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표를 선정
  - 지표 정규화: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된 지표를 지수화하기 위한 정규화(normalization) 방식의 선정 및 적용
  - 지수화를 위한 가중치 조사: 부문별로 가중치를 전문가 조사(AHP)를 통해 산출하고 할당
  - 결과의 해석 및 시각화: 통합지수의 결과를 해석하고 지도화하여 시·군·구별 문화 실태, 지역발전 수준을 제시하여 문화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 □ 지역발전지표·지수 등 관련 지표·지수 체계와의 연계 운용방안 마련

- 지역발전 관련 타 지표·지수 모델과의 연계 운영, 시너지 발휘를 위한 방안 마련
  - 본 연구 수행기관이 개발하여 10년 이상 상용되고 있는 지역발전지수(RDI) 및 관련 지표·지수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 모델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활용 방안 및 활용 사례를 제시
  - 지역발전지수는 언론과의 협업으로 공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정책 추진 과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인구·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지역의 종합적 활력 및 발전 수준을 다각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의의
- 상이한 관점의 지수 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의 전반적 발전 여건을 함께 살펴보기 위한 관련 지표·지수 체계를 참고·활용함.
  - **지역발전지수**: 지역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개념화하고 부문별 지수를 합하여 계산하며, 지역의 발전 정도 및 삶의 질 여건, 잠재역량 등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진단하는 지수 체계임.
  - **농어촌서비스기준(본 수행기관 개발)**: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체계로 교육·문화 부문을 포함한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됨.
  - 기타 지역발전 관련 지표·지수: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인구감소지수(행정안전부)**, **지방소멸위험지수(고용정보원)**, **지방소멸종합지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균형발전지표(지방시대위원회)**, **국민 삶의 질 지수(통계청)** 등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문화 여건만이 아닌 지역의 일반적·특수적 여건을 기반으로 문화적 활력 및 문화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지역문화지수(가칭)’ 모델로 확대함.
  - 다양한 지표체계의 복합화를 통해 문화의 격차와 문화취약지역의 측면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지역 중심 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기반 지역 균형발전**’의 실태·성과를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 모델을 지향함.

## □ 전국 시·군·구 단위 통합지수 적용을 통한 지수 산출 및 특성 분석

- 개발 통합지수의 전국 시·군·구 단위 적용
  - 개발 통합지수의 지표 측정을 위한 전국 및 지방 단위 데이터 구축
  - 데이터 기반 시·군·구 단위 전국 통합지수 산출

- 전국 단위 통합지수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유형별 특성 분석
  - 통합지수 산출 결과를 해석·지도화하여 시·군·구 단위 문화 실태 및 문화격차, 지역발전 수준과의 관계 등 지역별·유형별 특성을 분석
  - 지수 상위지역-하위지역 간 비교를 통해 문화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및 시사점 발굴

#### □ 전문가·공무원 대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통합지수 확정

- 최종 지표·지수 도출
  -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표·지수(안) 도출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최종 의견수렴 및 통합지수 확정
  - 최종 지표·지수(안)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및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종 의견수렴
  - 최종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수 확정

## 2.2. 연구 방법

#### □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국내·외 문화 실태 파악을 위한 지수 및 문화 정책 동향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지역문화 실태 및 지역발전 현황 진단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분석
  - \*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문화 관련 통계
  - \* 지역발전지수 보완 및 통계분석
  - \* 문화 SOC 공간분포 분석

#### □ 지표 및 지수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 지수화를 위한 가중치 조사

## □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선방안 확정 및 통합지수 개발

- 지수 정의와 목표 설정: 문화활력지수와 지역문화지수의 정의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통합의 방향을 설정
- 후보 지표 선택과 수집: 통합의 방향에 따른 후보 지표를 선택하고 지표의 데이터를 수집
- 지역 주민의 실제 주거지와 문화자원의 접근성 분석을 위한 실제 교통망(T-map 도로망) 기반 측정 방법론 및 시스템 구축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보유한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접근성 분석 시스템 활용<sup>2)</sup>
-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후보 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표를 선정
- 지표 정규화: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된 지표를 지수화하기 위한 정규화 방식의 선정 및 적용
- 지수화를 위한 가중치 조사: 부문별로 가중치를 전문가 조사(AHP)를 통해 산출하고 할당
- 결과의 해석 및 시각화: 통합지수의 결과를 해석하고 지도화하여 시·군·구별 문화 실태, 미스매치 정도, 지역발전 수준을 제시하여 문화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 □ 지역 문화 실태 관련 관계자 의견수렴

- 지자체 정책담당자 대상 의견조사
-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정책 수요 파악 및 자문회의 등 개최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접근성 분석 시스템은 T-map의 상세 도로망(부록 2 참조)을 기반으로 도로의 실제 제한속도, 회전 시 지연 시간(좌회전 시 신호 대기 시간 고려), 기타 추가 시간(톨게이트, 대교, 상습정체구간 패턴 데이터), 도서 지역의 배편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이동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고기능 분석 시스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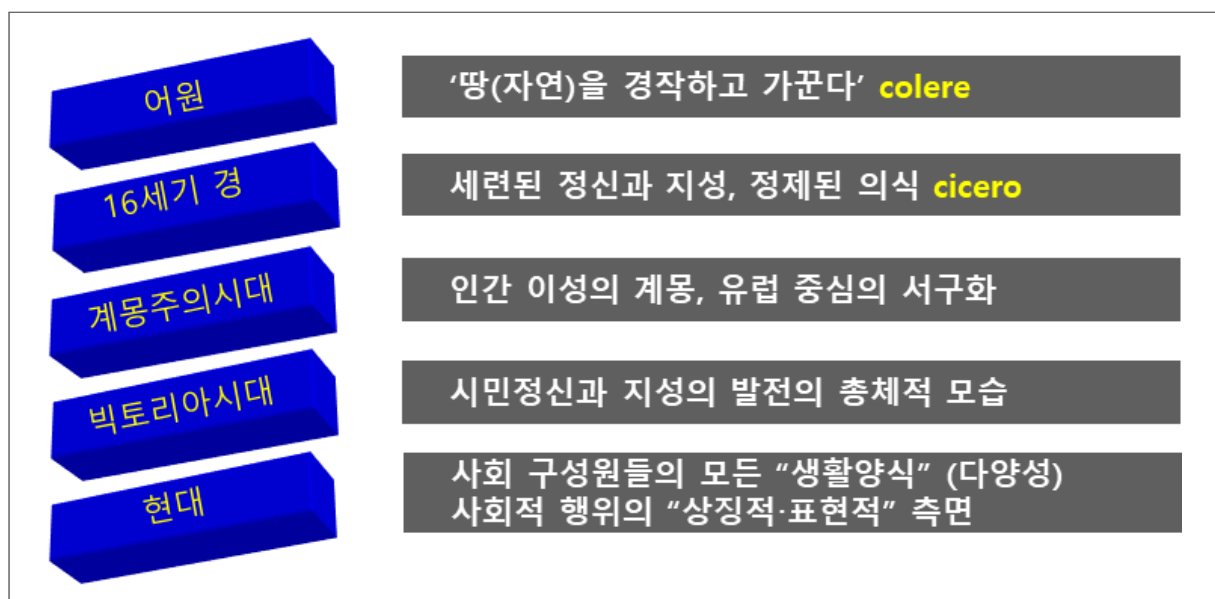
###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1. 문화의 개념과 기능

##### □ 문화의 개념

- 어원인 라틴어 ‘colere’에서 유래된 문화(culture)는 본래 ‘땅(자연)을 경작하고 가꾼다’는 의미를 지님. 즉, 인간 공동체가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집단적인 물질, 정신적 기반을 구축한 상태를 의미함.
-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웅변가였던 cicero에 의해 문화는 정신세계에 대한 경작, 즉 세련된 정신과 지성 및 정제된 의식으로 정의되었으며, 16세기 들어 문화는 곧 ‘cicero’라는 인식하는 널리 받아들여짐.
- 계몽주의 시대(17~18세기)에 들어 문화는 ‘인간 이성의 계몽’이자 (유럽 중심주의에 입각해) ‘유럽 중심의 서구화’를 의미하게 됨.
-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이어져 문화는 곧 ‘시민정신과 지성 발전의 총체적 모습’으로 인식되었으며, 문화에 대한 인식은 당시의 정치 개혁과 사회 개혁, 그리고 이성주의 및 낭만주의와 결합됨.
- 20세기 이후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생활양식’(다양성)과 사회적 행위의 ‘상징적·표현적 측면’을 아우르는 삶의 모습과 표현 방식으로 확대됨.

〈그림 1〉 문화 개념의 변천



자료: 김광선(2010).

## □ 문화의 기능

- 문화는 향수(享受)의 대상에서 향유(享有)의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문화 향수는 상대적으로 수동적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여 누리게 됨을 의미. 근대의 시대까지는 문화 향수 기회가 주어지는 계층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문화는 사회적·경제적·계급적 신분을 나타내는 다소 배타적 기능을 지녔음.
  - 반면, 문화 향유는 자신이 가지게 되어 누린다는 보다 능동적인 의미를 지님. 1945년 이후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과학·기술의 성장 경쟁을 통해 세계 경제의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하고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통한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 그동안 누리기 어려웠던 다양한 문화상품과 문화활동을 필부필부(匹夫匹婦)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음. 문화가 과거처럼 사회적·경제적·계급적 지위에 걸맞은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사회의 발전을 드러내는 보편적 가치로서, 수동적 향수를 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향유의 대상이 되었음.
-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통한 사회 재구조화와 산업·기술·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기본권으로서 문화 인식 확대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대상으로 삼게 됨(문화의 '사회적 통합성과 포용성').
  - 민주화와 함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 증대, 후기 구조주의 인식론 및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론 발전에 따른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확대
  -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발전주의 국가의 구조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문화는 민주주의적 인권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함.
  - 국민의 정부 출범 후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혁신, 창조경제,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면서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다양한 매개와 방식을 확대하고 이를 다시 기술혁신, 창조경제, 신산업 등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활용
  - 이와 함께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 취약층에 한정한 복지를 전 국민을 위한 복지로 확대하면서 참여 정부 들어 문화 역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함. 이에 따라 문화는 우리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려야 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로서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음.
  - 즉, 문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사회적 통합성을 높이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을 증대함.



- 문화의 공급과 향유에서 문화의 생산과 소비로 전환됨(문화의 ‘경제적 가치성’).
  -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의 문화 수요 증대
  - ICT, 디지털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문화산업 성장과 국민의 문화 체화와 문화에 대한 추가 경험 및 재경험에 대한 요구 증대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문화 공급 정책 확대와 시장을 통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 촉진
- 문화의 일상화와 문화 프로슈머(prosumer)의 보편화로 이행됨(문화의 ‘일상성과 보편성’).
  -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저 수준 이상의 문화 향유권으로서 기본권(사회적 포용성)에서, 이제는 문화를 일상을 통해 자유롭게, 때로는 함께 생산·소비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으로 변화
  -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먹고살기 위해 버는 시대에서 문화를 즐기기 위해 쓰는(소비하는) 시대로 변화
  - 과학기술의 발달,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 조성,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등으로 문화 소비자가 네트워크화 되고 문화 생산에 참여하는 문화 프로슈머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통해 볼 때, 문화의 기능에 대한 위 논의를 종합하면 <표 1>과 같음.
  -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주도의 경제성장 시기에는 문화가 일상성과 보편성을 지니기보다는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해 당장에는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 또 사회적 포용성보다는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문화의 사회적 통합 기능을 강조
  - 한강의 기적이 세계적으로 인지되던 1980년대부터 IMF 금융위기까지의 기간에는 높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소비지향적 문화 향유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면서 오렌지족, 슈퍼카족 등의 신조어 탄생
  - IMF 금융위기 이후 ICT 기술 분야와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소비지향적 문화 향유를 넘어 참여적이고 의사소통적인 문화 창조와 문화 활동이 확대됨. 물리적 거리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문화 향유 및 문화 활동이 가능해지고, 소수의 전문가들이 생산한 문화를 일방적으로 공급받던 과거와 달리 문화의 기획과 생산과정,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일반 대중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해짐.
  -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서비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간 공공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부조형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의 8개 분야를 국민의 삶의 질을 증대하는 생활서비스로서 제도적으로 안착시킴.

〈표 1〉 대한민국 시대별 문화의 기능 주요 특성

시대구분	문화 기능의 주요 특성
~ 근대	- 신분에 따른 문화의 사회적 배타성
고도성장기	- 사회적 통합성 강조
1980년대 중후반~IMF위기	- 소비지향적 문화 향유 - 경제적 배타성 만연
2000년대	- 문화기술(CT)과 문화산업 육성으로 문화의 경제적 가치성 기반 구축 - 문화의 보편성 확대 - 문화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권으로 제도화
2010년대 ~ 현재	- K-culture를 중심으로 문화산업 성장(문화의 경제적 가치성 확대) - 참여적·의사소통적 문화 창조 및 활동 확대 - 문화의 일상성 확대

자료: 연구진 작성.

### 3.2. 지역문화격차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 □ 구분·차별·배제, 이에 대한 저항과 개혁, 그리고 권리와 보편으로, 이제는 문화자본으로

- 모순으로서의 문화, 그리고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는 사회·경제적 배타성(전문성), 사회적 포용성, 경제적 가치성, 일상성과 보편성 등 모순되는 특성을 모두 내재하는 개념임.
  - 문화가 내재한 각각의 모순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삶과 공동체성, 그리고 정체(政體)를 규정하고 작동원리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겉으로는) 안정될 수 있었지만, 특정 부류의 개인과 집단은 문화의 이데올로기성으로 인해 차별과 억압, 가난과 무시, 기회의 박탈 등을 살아있는 동안 내내 겪어야 했음.
-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모순에 대한 저항과 보편적 권리로서의 문화 획득: 문화의 민주화
  - 문화에 의한 차별은 시민사회의 확대와 보다 최근에는 민주화로 인한 저항에 의해 모든 사회 일원과 국민을 위한 권리로 보편성 획득.
  - 문화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획득하고 누리고 또 참여하는 대상으로서 보편성 획득 →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 문화의 민주화, 문화 격차의 해소 등은 정부 정책에 있어 ‘문화복지’를 명시적으로 지향하도록 함(서우석·김정은, 2010) → 기본권(인권)으로서의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문화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등 강조

● 자본주의 경제에서 문화자본에 의한 새로운 차별

- 1940년대 미국으로 망명한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학자인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는 뉴욕에서 관찰한 예술의 제조(공장에서 물건 만들 듯 찍어내는 예술 형태)를 대중문화(mass culture)나 대중예술(popular art)과는 전혀 다른, 아니 오히려 이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난하기 위해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가 아닌 culture industry)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음(Adorno, 1991).
- 자본주의에 의해 생산되고 판매·유통되는 문화 형태는 문화의 창작이나 창조(creation)보다는 문화의 생산(production)을, 문화의 향유와 참여(enjoyment & participation)보다는 문화의 소비(consumption)를 확대 → 문화의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가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문화산업에 대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재투자 촉진
- Bourdieu(1984)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에 대한 논의 역시 자본주의하에서의 문화의 기능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즉, 문화자본은 다른 물질적 자본과 특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즉, 문화자본론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교육과 경험을 통해 체화된 문화 경험(embodied cultural experiences) 정도가 문화의 창작·창조·생산 역량, 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문화에 대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향유 및 소비 기회를 결정짓게 됨. 또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축적된 문화자본이 문화기반에 대한 구축, 문화의 창작·창조와 생산, 주민 및 국민의 문화 참여와 향유 및 소비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추가적인 문화기반의 구축, 새로운 문화의 창작·창조·생산·참여·향유·소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선순환을 가지도록 함.
- 결국 자본주의적 문화의 생산과 소비는 개인, 기업, 지역, 국가의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따라서 문화의 보편적 권리로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문화 민주주의, 문화복지가 강조되는 오늘날에도, 문화의 격차를 넘어 문화자본의 격차가 개인은 물론 지역 간에도 문화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음.
- 특히 지역 간 문화격차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넘어 지역발전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지역의 문화기반, 문화생산, 문화유통, 문화소비 등 지역문화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EU, UNESCO 등도 강조하는 지역발전의 주요 전략이 되고 있음(Maraña, 2010; Schnass, M.P. and A. Widuto, 2022).

□ 문화격차, 지역 간 문화격차의 개념

- 문화격차는 특정 개인과 집단이 문화로부터 사회·경제적 배타성으로 인해 배제, 사회적 포용성에서 배제, 경제적 가치성에서 배제, 일상성과 보편성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배제는 차이가 차별로 귀결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동일한 국가·사회 체계 내에서 인구·사회적 차이, 경제적 차이, 지리적 차이 등이 원인이 되어 문화 공급, 문화 향유, 문화 생산, 문화 소비, 문화 참여에 불편, 불리, 불이익 등의 차별을 초래하는 현상이 곧 문화격차임.

- 지역 간 문화격차는 특정 개인과 집단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타 지역 거주민들에 비해 문화 공급, 문화 향유, 문화 생산, 문화 소비, 문화 참여에 있어 불편, 불리, 불이익 등을 (일회적으로가 아닌) 상시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음.
  - 지역 간 문화격차는 인구·사회·경제·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문화의 공급·향유, 생산·소비, 참여에서 정책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는 지역의 존재를 의미
  - 또한 동일한 국가·사회 체계 내 지역 간 상대적 배제나 소외의 상태, 또는 해당 국가·사회 체계가 기준으로 삼는 최저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의 상태를 의미
- 따라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 ① 지역 간 문화격차의 상태, 즉 개별 지역들의 문화배제나 소외, 기준 충족 여부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 이를 토대로 ② 문화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사회·경제·지리적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나
  - ③ 문화의 공급·향유·생산·소비·참여의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정부개입 및 시장작동 조치를 시행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① 지역 간 문화격차의 상태 확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주요 수단인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 특히 조사의 기준이 되는 지역문화지수와 문화활력지수의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조사를 위한 적합성과 효용성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음.

## □ 지역 간 문화격차 분석 사례

- 한국사회 문화격차의 변화추이
  - 강수택·박재홍(2013)은 1997년부터 2012년 사이 한국사회의 문화격차 변화추이를 연령, 소득, 학력, 지역 구분에 따라 분석함.
  - 이중 지역 간 격차로서 도시와 농촌 간 문화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와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혀왔고 심지어 예술행사 관람률은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음.
  - 예술행사 관람의 경우 연령, 소득, 학력 등을 불문하고 시간 부족과 비용 부담이 문화 향유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남. 다만 농촌의 경우는 시간 부족과 교통 불편이 가장 큰 걸림돌로 제시됨.
- 지방자치 이후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 이재희(2010)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이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중앙집권적으로 구현이

어려웠던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정책이 지역별로 기획되고 실행되었음을 전제로, 지역 간 문화격차의 변화를 1994년과 2008년의 데이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여 분석함.

- 지역 간 문화격차 분석을 위한 개념 틀로 문화인프라 격차(문화시설, 문화인력), 문화활동 격차(문화생산, 문화소비)를 구분함.
- 분석 결과, 지방자치 이후 문화인프라에서 문화시설의 격차는 이전보다 줄어든 반면, 문화인력의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문화활동에서 문화생산의 격차는 문화시설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문화소비의 격차는 문화시설이나 문화생산의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지역 간 문화격차는 문화인력과 문화소비 분야에서의 격차를 보다 크게 반영하고 있음.

● 형평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생활문화의 지역 간 격차로서 지역 간 문화격차

- 박태선 외(2014)는 지역 관점에서 문화를 형평성과 보편성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지역이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문화와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독특한 지역문화로 구분함.
- 이중 지역 간 문화격차는 형평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생활문화의 지역 간 격차 격차를 의미
- 이에 따라 문화격차는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주체들에게 문화에 접근하거나 즐기거나 누리거나 이를 통해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는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에 접근하여 즐기거나 누리거나 이를 통해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와 만족도의 차이’로 정의(박태선 외, 2014)

● 박태선 외(2014)는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 분석 틀을 <표 2>와 같이 제시

- 지역 간 문화격차 분석(실태조사와 분석)을 위해 실태조사를 크게 공급 차원의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와 수요 차원의 ‘문화향유 만족도 격차’로 구분
- 조사·분석 항목은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문화향유기반, 문화향유 정도로 구분하고, 공급 차원에서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시설의 개수, 문화시설의 면적(이상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수, 연간 문화공연일수(이상 문화콘텐츠), 문화시설 직원수, 운영예산 규모(이상 문화향유기반), 관람객 수, 문화시설당 집객력, 프로그램당 집객력(문화향유 정도)에 대해 조사
- 수요 차원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시설 방문횟수, 시설이용 만족도, 시설로의 접근성(이상 문화시설), 선호콘텐츠 활동 빈도, 문화활동의 형태, 문화활동 제약요인(이상 문화콘텐츠), 활동의 지역적 범위, 인접시설 이용도, 만족도 제고 항목(이상 문화향유 기반), 문화인식 및 체감도, 향유의지와 수요, 할애가능 시간·비용(문화향유 정도)에 대해 조사

〈표 2〉 지역 간 문화격차 분석 구조

분석 목적	분석 관점	분석 방법	분석항목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간	향유정도
지역 간 문화격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 (공급 차원)	통계 자료 분석	•문화시설 개수 •문화시설 면적	•문화프로그램수 •연간문화공연일수	•문화시설직원수 •운영예산규모	•관람객수 •문화시설당 집객력 •프로그램당 집객력
	문화향유 만족도 격차 (수요 차원)	지역 주민 면담 조사	•선호시설방문횟수 •시설이용만족도 •시설접근성	•선호콘텐츠활동빈도 •문화활동행태 •문화활동제약요인	•활동의 지역적 범위 •인접시설이용도 •만족도 제고 항목	•문화인식 및 체감도 •향유의지와 수요 •할애가능시간·비용

자료: 박태선 외(2014).

### 3.3. 지역 간 문화격차의 정책적 시사점

#### ● 문화의 양면성과 문화민주주의의 확대 필요

- 문화는 오랫동안 차이가 아닌 차별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사라지지 않고 잔재하고 있음.
- 민주사회의 발전과 함께 문화는 인권을 고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고 문화적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민주주의의 정책 기초가 정부정책에 더욱 공고하게 자리잡을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와 각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필요와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문화복지정책에 반영할 때 문화민주주의 달성이 가능함.

#### ● 문화 접근성에 대한 개선 필요

-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 못지 않게 문화향유의 기회가 있지만, 농촌지역일수록 문화 향유를 위한 열악한 접근성이 지역 간 (특히 도농 간) 문화격차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접근성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경우 물리적인 문화기반 외에도 문화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의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 지역 내에서의 문화의 생산과 소비 촉진

- 문화에 대한 접근이 불리한 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들을 문화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지역 간 문화기반의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문화인력의 격차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농촌의 경우에는 도시에 비해 인적 기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문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전문분야의 문화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들의 문화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이 지역 자체의 문화 생산자이자 공급자로 활성화될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하고 문화 향유와 소비를 진작시켜 후속적인 문화 생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음.

● 전반적인 지역발전 전략과 함께 문화격차 해소 필요

- 개별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문화 분야 투자 역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저발전지역(less developed regions)이나 농촌의 경우 민간투자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해소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즉, 문화격차의 해소를 문화 분야에만 한정하여 접근하지 말고 지역발전 전략의 전체적인 관점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문화자본 체화 증진을 위한 교육과 경험 제공 확대 필요

- 일반경제학에서 자본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하는 생산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는데,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은 생산요소로서의 자본뿐만 아니라, 개인에 체화(personal embodiedness)되거나 사회의 착근(social embeddedness)을 통해 문화의 (재)생산과 (재)소비를 촉진하는 사회·경제 요소로 기능
- 달리 말해 문화는 문화자본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체화되어 미래의 문화예술 활동과 소비를 촉진하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서 작용(Cheng, 2005; Throsby, 1999; Throsby, 2000; 김광선 외 2017).
-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국민의 문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촉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문화·여가정책은 문화 수용자의 주체적 역량 강화를 강조. 이는 문화의 사회적 결속 또는 사회 간 결속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문화의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강조
- 즉 문화적 소외를 단순히 문화 활동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독해력(cultural literacy)이 저하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교육을 통해 문화 독해력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소외 해소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최세미, 2016; 김광선 외, 2017).





## Chapter 2 지역문화실태 관련 국내·외 사례

### 1. 국내 관련 지표 사례

#### □ 지역문화실태조사

-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문화 현황 파악 및 지역문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생산되는 조사로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지역문화진흥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조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주기로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현황 분석과 환경진단 수단이 부재하여 지역문화와 관련된 객관적 기초통계자료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2년에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지표’를 도출하고, 지역의 문화역량을 평가하는 ‘지역문화지표 지수화 시범사업(지역문화실태조사 시범조사)’을 추진함(노영순·김가운, 2015).
- 전국 245개 지자체(17개 광역자치단체,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총 35개 지표(4대 분류 32개 문화지표, 코로나특별지표 3개)를 조사함.

〈표 3〉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
문화정책	정책사업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 관련 사업 선정 건 수(2019년, 2020년)*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2019년, 2020년)*
	정책환경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2020년)*
		문화 관련 조례 제정 건 수(2020년)*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2020년)*
	문화예산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2020년)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2020년)
		지역문화기금 설치 여부(2020년)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2020년)
문화자원	문화유산	시·도 지정 문화재 수(2020년)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2020년)
	기반시설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20년)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2020년)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2020년)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2020년)*
	자원활용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일 수(2019년, 2020년)
		공공도서관 주당 평균 개방 시간(2019년, 2020년)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2019년, 2020년)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2019년, 2020년)*
문화활동	활동조직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2020년)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2020년)
	활동인력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2020년)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2020년)*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2020년)
		문화관광해설사 수(2020년)*
		법정사서직원 확보율(2020년)
		문예회관 500객석 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2020년)*
문화향유	지역주민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 수(2019년,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2019년, 2020년)*
	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2020년)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9년, 2020년)*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9년, 2020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현황통계분석).

## □ 문화영향평가

- 문화영향평가는 정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에 도입됨.
- 현재는 2020년 개편된 3개 평가영역(대지표), 6개 평가지표(중지표), 14개 핵심가치(소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 체계를 활용하여 대상 정책사업의 문화적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음.
  - 평가는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중 문화기본권 영역에서는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과 표현·참여에 미치는 영향(문화참여권, 정보문화 향유권)을 핵심가치로서 평가함
  - 문화정체성 영역에서는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문화유산 보호, 문화유산 향유권)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지역공동체, 갈등 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
  - 문화발전 영역에서는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문화다양성 권리, 문화 격차, 문화평등권)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을 평가함.

〈표 4〉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2020년 개정)

평가영역(대지표)	평가지표(중지표)	핵심가치(소지표)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향유권	• 문화환경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문화참여권	• 정보문화 향유권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문화유산 보호	• 문화유산 향유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지역 공동체 • 사회적 합의	• 갈등 발생 가능성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다양성 권리 • 문화평등권	• 문화 격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창의성 발전	• 미래지향성

자료: 허은진·김영주(2021).

##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구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제11조 등에 의거하여 매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구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참여·이용행태, 문화예술교육 실태 등을 파악함.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조사 영역은 크게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실태, 문화 관련 활동 등으로 구성됨.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 즉 수요 측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대규모 표본에도 불구하고 응답 결과의 기초지자체별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시·군·구 단위 문화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광역지자체 단위 결과 공표).

〈표 5〉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주요 조사 항목(2022년)

대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9개 문화예술활동 분야)	- 직접 관람 횟수 - 직접 관람 만족도 - 향후 1년 이내 직접 관람 의향
	복합문화예술 관람 경험 - 복합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 복합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직접관람 현황 (주로 관람한 행사)	- 관람 지역 - 관람 방법 - 관람 시 동행인 - 관람 시간대 -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 문화예술행사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 - 관람할 문화예술행사 선정 시 중요한 기준 -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어려움
	매체 이용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9개 문화예술활동 분야)	- 매체를 통한 이용 횟수 - 이용 매체 및 주 이용 매체 - 매체 이용에 대한 만족도 -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를 통한 관람 경험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	- 참여 경험 - 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 - 향후 1년 이내 참여 활동 의향 - 참여 시 동행인 - 참여 시간대
	문화예술 참여 지출 (구매·대여, 직접 관람, 교육 등)	- 항목별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항목(1~3순위) - 향후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1~3순위)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경험 (9개 문화예술활동 분야)	- 유아기 및 청소년기에 문화예술교육 경험 - 1년 이내 학교교육 외에 강좌나 강습 경험 - 1년 이내 경험한 강좌나 강습에 대한 만족도 -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이수 의향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실태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14곳 문화예술활동 공간)	- 1년 이내 이용 횟수 - 이용 공간 위치 및 공간·환경 만족도 - 문화행사 참석 횟수 및 프로그램 만족도
	문화예술활동 공간방문 의향	- 문화행사 참여 시 어려운 점 - 향후 1년 이내 문화행사에 참여할 의향 및 선호 프로그램 - 참여할 문화예술행사 선정 시 중요한 기준
문화 관련 활동	문화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	- 자원봉사 활동 경험 및 참여 횟수 - 금전 기부 경험 여부
	문화 관련 동호회 참여 (9개 문화예술활동 분야)	- 참여 경험 - 참여한 동호회 성격 및 활동 공간, 참여 빈도
문화예술활동 변화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따른 변화	-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변화
역사문화유적지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 최근 1년 이내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및 방문 장소 - 역사문화유적지 편의시설 만족도 - 향후 방문 의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 국민생활문화활동조사

- 문화예술활동조사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일상적 문화활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생활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생활문화활동조사(구 생활문화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생활문화는 전문적이기보다는 일상적 영역에서,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문화 영역으로 지역의 문화 여건·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생활문화 활동이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함(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2022).
- 국민생활문화활동조사는 생활문화활동 경험, 공간, 교류, 마을공동체활동 등 8개 영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근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생활문화활동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사함.

〈표 6〉 국민생활문화활동조사 주요 조사 항목(2022년)

구분	조사 항목	
생활문화활동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활동 분야별 참여 경험</li> <li>•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활동</li> <li>• 생활문화활동 분야별 참여 동기</li> <li>• 생활문화활동 분야별 참여 빈도</li> <li>• 생활문화활동 분야별 활동 경력</li> <li>• 주로 함께하는 동반자</li> <li>• 주로 참여하는 요일</li> <li>• 주로 참여하는 시간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참여 시 활동하는 시간</li> <li>• 생활문화활동 교육 경험</li> <li>• 생활문화활동 지속 시 기대 효과</li> <li>• 생활문화활동 전반적 만족도</li> <li>• 향후 참여하고 싶은 생활문화활동</li> </ul>
생활문화활동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활동 참여 지역</li> <li>• 생활문화활동 참여 장소</li> </ul>	
생활문화활동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한 사람</li> <li>• 생활문화활동을 하며 새로 알게 된 사람</li> <li>• 생활문화활동 모임 경험 및 유형</li> <li>• 생활문화활동 모임 활동 내용</li> <li>• 생활문화활동 모임 활동 기반</li> <li>• 생활문화활동 공유 활동 여부</li> <li>• 생활문화활동 모임 접촉 경로</li> <li>• 생활문화활동 발표 전시 공연 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전시 공연 참여 목적</li> <li>• 발표 전시 공연 참여 지역</li> <li>• 발표 전시 공연 참여 방식</li> <li>• 발표 전시 공연 참여 경험 만족도</li> <li>• 생활문화활동 온라인 공유 경험</li> <li>• 생활문화활동 온라인 공유 플랫폼</li> <li>• 생활문화활동 봉사활동 경험</li> <li>• 생활문화활동 봉사활동 참여 방식</li> </ul>
생활문화활동 미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활동 미참여 이유</li> <li>• 생활문화활동 희망 여부 및 희망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활동 참여 시 기대 효과</li> <li>• 참여하지 못하게 된 생활문화활동 여부</li> </ul>
마을공동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경험</li> <li>• 마을공동체의 지역적 범위</li> <li>• 마을공동체활동 예산 확보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활동 운영 주체</li> <li>• 마을공동체 활동</li> </ul>
수입지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활동 지출 경험 및 총 비용</li> <li>• 생활문화활동 수입 경험 및 총 수입</li> </ul>	
행복감 및 정서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감</li> <li>• 삶의 만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활동 수준</li> <li>• 지역주민과 교류 정도</li> </ul>

구분	조사 항목
생활문화활동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활동 장려 지원</li> <li>• 정부 정책의 중요도</li> <li>• 생활문화활동 정보 접촉 경험 및 경로</li> <li>• 생활문화시설 이용 경험</li> </ul>
코로나 19 이후 생활문화활동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영향</li> <li>• 코로나19 이전 대비 생활문화활동 변화</li> <li>• 코로나19 이전 대비 우울감 변화</li> </ul>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22) '2022 국민생활문화활동조사 결과보고서'.

- 국내의 주요 조사를 통해 구축하는 지역문화 실태 관련 지표의 구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7>과 같음.

<표 7> 지역문화 실태 관련 지표 비교

구분	지표체계 구성
지역문화실태조사 (2020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사업</li> <li>• 정책환경</li> <li>• 문화예산</li> </ul> </li> <li>○ 문화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li> <li>• 기반시설</li> <li>• 자원활용</li> </ul> </li> <li>○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조직</li> <li>• 활동인력</li> </ul> </li> <li>○ 문화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li> <li>• 소외계층</li> </ul> </li> </ul>
문화영향평가 지표 (2020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li> <li>•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li> </ul> </li> <li>○ 문화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li> <li>•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li> </ul> </li> <li>○ 문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li> <li>•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li> </ul> </li> </ul>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2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9개 문화예술활동 분야)</li> <li>• 복합문화예술 관람 경험</li> <li>• 직접관람 현황(주로 관람한 행사)</li> <li>• 매체 이용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9개 문화예술활동 분야)</li> <li>•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li> <li>• 문화예술 참여 지출(구매·대여, 직접 관람, 교육 등)</li> </ul> </li> <li>○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경험(9개 문화예술활동 분야)</li> </ul> </li> <li>○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14곳 문화예술활동 공간)</li> <li>• 문화예술활동 공간방문 의향</li> </ul> </li> <li>○ 문화관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li> <li>•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9개 문화예술활동 분야)</li> </ul> </li> <li>○ 문화예술활동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따른 변화</li> </ul> </li> <li>○ 역사문화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li> </ul> </li> </ul>
국민생활문화활동조사 (2022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활동 경험</li> <li>○ 생활문화활동 공간</li> <li>○ 생활문화활동 교류</li> <li>○ 생활문화활동 미참여</li> <li>○ 마을공동체활동</li> <li>○ 수입지출 현황</li> <li>○ 행복감 및 정서상태</li> <li>○ 생활문화활동 정책 수요</li> <li>○ 코로나 19 이후 생활문화활동 변화</li> </ul>

자료: 저자 작성.

## □ 정책 추진 기반으로 지역의 전반적 발전 수준 관련 지표

- 지역문화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적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초점을 둔 지표 외에도 해당 지역의 전반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역의 전반적 발전 수준 내지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함.
- 지역의 종합적 여건 진단을 위한 지표·지수 체계로는 국가균형발전지표, 지역발전지수, 농어촌서비스기준 등이 있음.
  - **국가균형발전지표**: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지역 단위 종합 지표 체계로 인구증감률 및 지역경제를 핵심지표로 구성하고, 지역 간 발전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8대 부문 객관지표, 지역 삶의 질과 관련된 10개 부문의 주관지표로 구성됨.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 체계로 교육·문화 부문을 포함한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됨.
  - **지역발전지수(RDI)**: 지역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개념화하고 부문별 지수를 합하여 계산하며, 지역의 발전 정도 및 삶의 질 여건, 잠재역량 등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진단하는 지수 체계임.
- 인구에 기반하여 지역 소멸 위기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지수 체계로는 지방소멸 위험지수, 인구감소 지수 등이 있음.
  - **지방소멸 위험지수**: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지수를 산출하며, 값이 1.0 미만이면 소멸주의지역,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지수 체계로 개발,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및 청년인구 이동, 주간인구, 고령화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로 구성됨.
- 지역의 삶의 질 등 삶 영위를 위한 전반적 여건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지수 체계로는 국민 삶의 질 지수, 대한민국국민행복지도 등이 있음.
  - **국민 삶의 질 지수**: 국민의 삶의 질 지표는 Beyond GDP의 일환으로 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질적인 측면의 사회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 건강, 시민참여, 여가, 고용·임금, 안전, 교육, 주관적 웰빙, 가족·공동체, 소득·소비·자산, 환경, 주거로 구성되는 11개 영역 71개 지표로 구성됨.

- **대한민국국민행복지도**: 7개 영역(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으로 구성, 영역별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하위영역별 5개 지표)를 포함하고, '삶의 만족도'를 지수에 추가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함.

〈표 8〉 국내 주요 지역발전, 삶의 질 수준 관련 지표·지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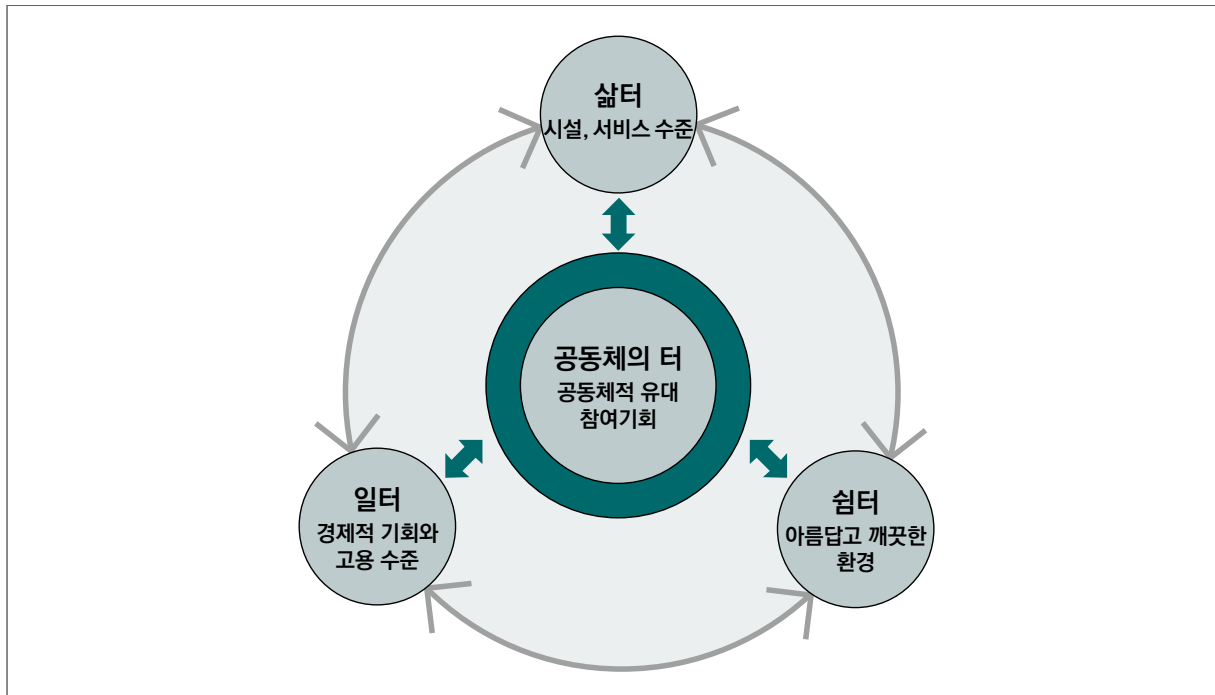
지표명	지표 성격	공간단위	특성	운영기관
지역발전지수	지역 종합분석	시·군·구	- 삶터/일터/쉼터/공동체의 터 4대 영역으로 개념화 - 부문별 지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균형발전지표	지역 종합분석	시·군·구	- 인구/경제 핵심지표 - 주거/교통/산업·일자리/교육/문화·여가/안전/환경/보건복지 객관지표 - 지역발전지수, 지역혁신지수, 지역창조잠재력지수 등 지역지 수 운용	지방시대위원회 (前 균형발전위원회)
농어촌 서비스기준	지역 서비스여건 (접근성)	시·군 (농어촌)	-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측정·평가 - 의료복지/교육문화/정주여건/경제활동 4대 부문으로 구성 -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 중심의 지표체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방소멸 위험지수	지역 인구구조	시·군·구	-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수/65세 이상 인구수 1.0 미만 소멸주의지역, 0.5 미만 소멸위험지역	한국고용정보원
인구감소지수	지역 인구구조	시·군·구	-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위한 근거 체계 - 인구구조 및 인구활력 관련 8개 지표로 구성	행정안전부
국민 삶의 질 지수	지역 삶의 질	시·군·구	- 객관지표/주관지표를 혼합한 대규모 지표체계를 운영 - 세부지표별 변화 추세를 공개하여 부문별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통계청
대한민국 국민행복지도	지역 삶의 질	시·군·구	- 주요 영역별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점 분석 -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지표에 포함하여 종합지수를 산출	국회미래연구원

자료: 저자 작성.

- 지역의 종합적 여건 진단을 위한 지표·지수 체계 중 본 연구에서 지역문화실태조사 체계에 지역발전 현황 지표로서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역발전지수는 지역의 삶의 질 여건과 발전 정도, 잠재역량 등 지역 여건을 종합하는 개념의 지수임. 지역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개념화하여, 각 부문에 대해 (삶터)생활서비스 지수, (일터)지역경제력 지수, (쉼터)삶의 여유공간 지수, (공동체의 터)주민활력 지수로 구성하고 부문별 지수의 합을 지역발전지수로 도출함.
  - 시·군 여건에 대한 종합진단지표로서 '삶터'는 시설 및 생활서비스 수준, '일터'는 경제적 기회와 고용 수준, '쉼터'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공동체의 터'는 공동체적 유대와 참여 기회를 나타냄.



〈그림 2〉 지역발전지수 개념도



자료: 송미령 외(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지표는 객관적 통계자료를 통해 구축 가능한 21개 변수로 구성되며, 종합지수 산출을 위해 각 변수를 선형표준화하고 전문가조사를 통해 도출한 가중치<sup>3)</sup>를 적용하여 종합함.

3) 2022년 지역발전지수의 경우 가중치는 2020년 RDI 개발 당시 델파이조사를 통해 쌍대비교법을 수행하여 산출한 값을 사용함.  
 ‘RDI = 0.321×생활서비스 지수 + 0.269×지역경제력 지수 + 0.179×삶의 여유공간 지수 + 0.250×주민활력 지수’ 식으로 종합점수화함.

〈표 9〉 지역발전지수의 구성 지표(2022년 RDI 기준)

영역별 지수	부문	지표	부호		
삶터: 생활서비스	기초생활 여건	- 노후주택비율: 준공 30년 초과 주택 비율 - 식수보급 및 하수처리 현대화: 상하수도 보급률	(-) +		
	교육 여건	- 공교육 기반: 1km <sup>2</sup> 당 학교 수(초·중·고) - 사교육 기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	+	
	보건·복지 여건	- 의료서비스 질: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 의료시설기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 아동복지기반: 영유아(6세 미만)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노인복지기반: 1km <sup>2</sup>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	+
일터: 지역경제력	산업기반	- 사업체 기반: 총사업체 수 - 경제활동력: 지난 5년간 연평균 사업체증감률 -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일자리 수 비율 (사업체 종사자 수 + 농업종사자 수)	+	+	+
	주민소득 수준	- 소득수준: 1인당 지방소득세	+		
	지자체 재정력	-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		
	지자체 경제규모	- 지역내총생산(GRDP)	+		
쉼터: 삶의 여유공간	녹색 휴양 기반	-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 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		
	녹지기반	- 녹지확보율: 녹지율 (녹지: 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		
	문화휴양 기반	-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 수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 체육시설: 인구 천 명당 마을체육시설 수 (마을체육시설: 체육공원, 고수부지, 마을공터, 아파트 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공원, 기타)	+	+	
공동체의 터: 주민활력	인구변화	- 인구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16~'21년)	+		
	인구구조	- 고령화율: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인구활력	- 조출생률: 연양인구 천 명 대비 출생자 비율	+		

자료: 송미령 외(2022).

## 2. 국외 관련 지표 사례

- 국가마다 사회의 실태와 정책적 지향에 따라 문화실태를 조사·분석할 수 있는 문화지표 체계는 다양함.
- 국가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온라인 문화상품 소비,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신기술 미디어, 예술분야 교육, 국민계정과의 연계, 문화 참여 등 기존의 문화 공급-향유라는 이원적 구분과는 사뭇 다른 특성의 지표들도 포함하고 있음.

〈표 10〉 국가별 문화지표 주요 특성

구분	문화지표체계	주요 특성	특징 지표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청 주도</li> <li>FCS/CSA를 수용하여 CFCS/CCSA 개발 적용</li> <li>국제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시경제 지표 및 계정을 적용·활용</li> <li>문화위성계정, 스포츠위성계정과 함께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GDP, 문화산업GDP</li> <li>인터랙티브 미디어 관련 지표 포함</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EA, ATFA 등 문화예술기관 주도</li> <li>ACPSA 개발 및 활용(경제분석부와 협업)</li> <li>문화예술지수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예, 디지털미디어도 추가하여 지표개발에 포함</li> <li>관광위성계정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기관 연말흑자율/예술사업의 자산수익률</li> <li>기업후원 중 문화예술 분야 점유율</li> <li>SAT시험응시 관련 지표(4년간 예술교육을 받은 SAT시험 응시자 평균 점수 등)</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지표체계 및 지수 없음</li> <li>정책계획에 따른 종합 문화지표 제안 구성 중(범부처 통계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와 전략에 따른 지표 구성에 중 복이 많음</li> <li>UNESCO CSA 도입 논의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참가율의 세분화 지표(어린이,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등)</li> <li>극장, 콘서트홀의 다언어화 대응률</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조사와 통계자료 통합</li> <li>문화발전지표 발표</li> <li>통합적 문화지표체계는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 성과지표로 활용</li> <li>지역간 격차 완화, 대외 교류에 중점</li> <li>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등 지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출국 공연인, 문화교류인 수</li> <li>대외 공연, 문화교류 횟수</li> </ul>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적 기관이 개발관리</li> <li>문화예술지수 개발</li> <li>장단기 지수변화 추적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참여에 대한 관심 높음</li> <li>문화예술의 가치 측정 방향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 자원봉사자 수</li> <li>악기, 뮤지컬 등 연습시간</li> <li>등록, 보호되는 도시 마을 수</li> <li>KunstKoop 계약 전체금액</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부의 통계과 주도</li> <li>문화관련 지표 집대성으로 보고서 형식 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적인 영역(문화유산, 박물관, 건축물) 중심</li> <li>문화지표에서 신기술과 뉴미디어와의 접점 고민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계 직업별 여성의 비중</li> <li>연령과 성별에 따른 온라인 문화상품 소비</li> </ul>

자료: 연수현(2019).

## □ EU의 문화창조도시모니터(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 지역문화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EU 차원에서 문화적 역동성과 창조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통해 지역의 창조적·문화적 잠재력을 모니터링하는 문화창조도시모니터(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이하 CCCM)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EU 유럽위원회 역량 센터(The European Commission's Competence Centre on Composite Indicators and Scoreboards, CC-COIN)는 문화적 역동성과 창조성 관련 지표(양적, 질적 지표 모두 포함)를 통해 유럽 도시의 창조적·문화적 잠재력을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도구로서 CCCM을 개발함.
- CCCM은 유럽위원회가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는 창조적·문화적 잠재력을 높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디자인됨.
- CCCM의 정량적 차원의 평가지표는 문화적 역동성(Cultural Vibrancy), 창조적 경제(Creative Economy), 활성화 환경(Enabling Environment) 등 세 가지 차원과 관련한 총 9개 영역의 29개 지표로 구성됨.

〈표 11〉 문화창조도시모니터 지표

Sub-index	Dimension	지표	
문화적 역동성	문화적 장소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소 및 랜드마크</li> <li>• 박물관·미술관 및 아트 갤러리</li> <li>• 영화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서트·음악 공연장</li> <li>• 극장</li> </ul>
	문화 참여 및 매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 관광객</li> <li>• 박물관·미술관 방문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관 관람객</li> <li>•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li> </ul>
창조적 경제	창조/지식 기반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 일자리</li> <li>•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일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창조 섹터 일자리</li> </ul>
	지식재산권 및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특허 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총지출</li> </ul>
	창조 섹터의 신규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사업체의 신규 일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사업체의 신규 일자리</li> <li>• 그 외 창조 섹터 사업체의 신규 일자리</li> </ul>
활성화 환경	인적 자원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및 인문학 분야 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분야 졸업자</li> </ul>
	개방성·관용·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졸업자</li> <li>• 외국 출생 인구</li> <li>• 외국인에 대한 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에 대한 통합</li> <li>• 일반인에 대한 신뢰</li> </ul>
	지역 및 국제적 연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객 탑승 항공</li> <li>• 도로 접근성 잠재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도시로의 직접 철도 연결성</li> </ul>
	거버넌스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의 질</li> </ul>	

자료: Joint Research Center, 2023 Update. 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JRC technical report.

- EU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약 1,000개) 중 문화 및 창의성 증진과 관련한 입증 가능한 활동<sup>4)</sup>을 수행한 190개 도시(30개 국)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함.
- 2023년 에디션은 유럽문화수도 선정 도시 102곳, 유네스코 창조도시 29곳, 국제적 문화축제 도시 65곳을 포함하여 총 196개 도시를 대상으로 함.

〈표 12〉 선정 기준별 문화창조도시모니터에 포함된 유럽 도시 현황

기준	2017년	2019년	2023년
European Capital of Culture	92	98	102
UNESCO Creative City	22	33	29
Festivals hosted	54	59	65
Total	168	190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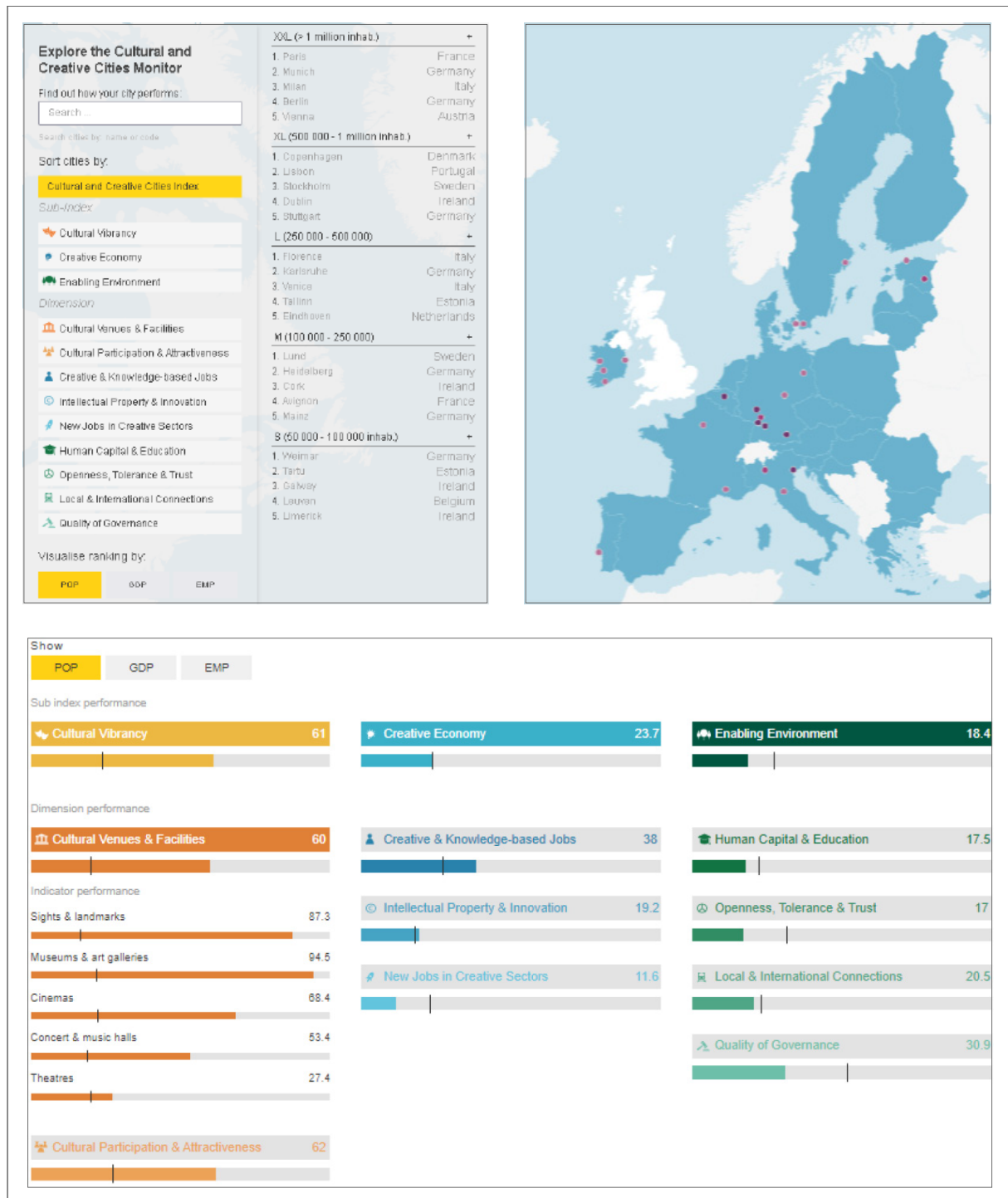
자료: Joint Research Center, 2023 Update. 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JRC technical report.

- 유사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각 국가·지역·도시의 정책입안자가 지역의 강점과 기회를 식별하고 문화·창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도시의 인구, 1인당 GDP, 고용률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CCCM 결과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함.
- 도시 간 벤치마킹 권장을 위해 각 유럽 도시의 문화적 활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툴(대화형 시각화 플랫폼)인 ‘문화창의도시모니터’ 운영함(무료 오픈 소스 웹페이지).

4) 입증 가능한 활동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2019년까지 유럽문화수도였거나 2023년까지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98개 도시
- ② 2019년까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33개 도시(유럽문화수도와 중복 제외)
- ③ 2017년 또는 2018년까지 최소 2개의 국제적 문화축제(비엔날레)를 정기적으로 개최한 59개 도시

〈그림 3〉 문화창의도시모니터 플랫폼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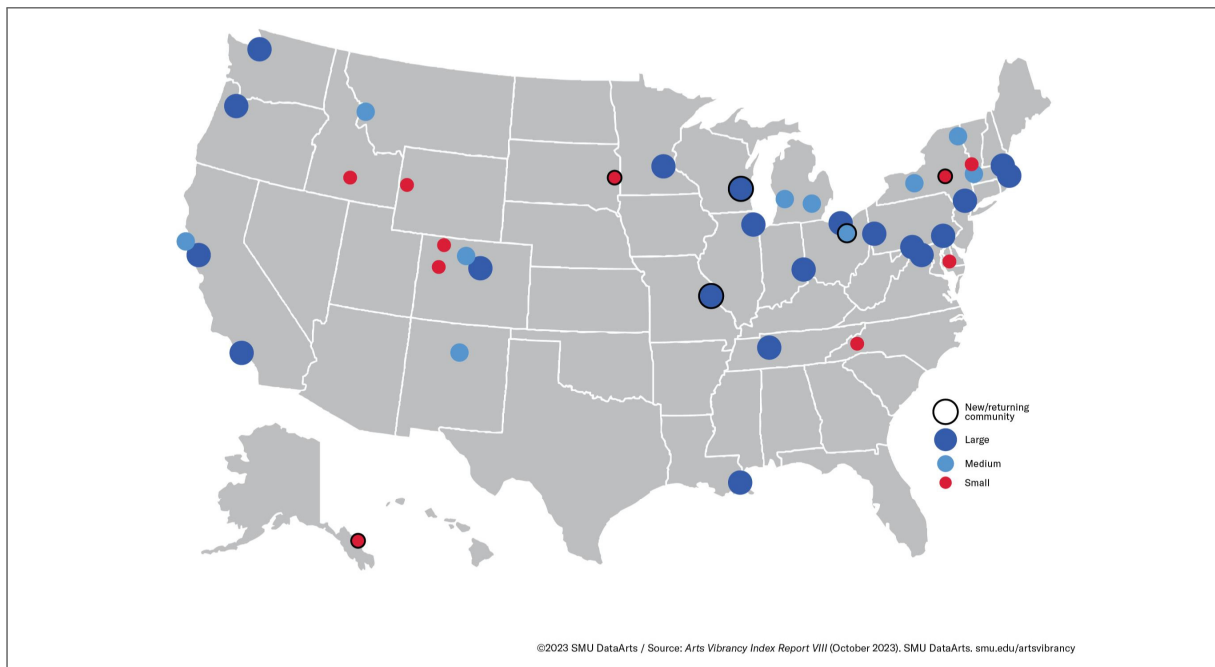


자료: Joint Research Center, 2023 Update. 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JRC technical report.

## □ 미국의 예술활력지수(Arts Vibrancy Index)

- 미국에서는 2024년 처음으로 지역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를 종합하여 전국의 50개 주(states)에 대해 예술활력지수(AVI, Arts Vibrancy Index)(’23년 기준)를 도출하여 예술활력도 순위를 산정·발표함.<sup>5)</sup>
- 그에 앞서 2023년에는 AVI를 바탕으로 상위 40개 예술활력지역(Arts-Vibrant Communities)을 선정·발표한 바 있음.

〈그림 4〉 2023년 예술활력도가 가장 높은 40개 지역



자료: SMU DataArts 웹사이트(<https://culturaldata.org/arts-vibrancy-2023/executive-summary/>).

- 상위 40개 예술활력지역 선정 시에는 대도시(Large Communities), 중도시(Medium-sized Communities), 소도시(Small-sized Communities) 등 대상 지역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대한 순위를 발표함.
  - 대도시 상위 20개 지역, 중도시 상위 10개 지역, 소도시 상위 10개 지역 등 총 40개 지역을 선정함.
  - 대도시 20개 지역의 평균 인구규모는 약 349만 명, 중도시 10개 지역의 평균 인구규모는 약 23만 명, 소도시 10개 지역의 평균 인구규모는 약 4만 명 수준임.

5)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SMU,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부속 문화예술연구센터(NCAR)의 통계연구 프로젝트(DataArts) 일환으로 추진함.

- 선정된 도시의 전체 순위와 함께 AVI를 구성하는 세 부문별 순위, 세부 지표별 순위 정보도 함께 제공함.

〈그림 5〉 예술활력도시 그룹에 따른 인포그래픽(그룹별 1순위 도시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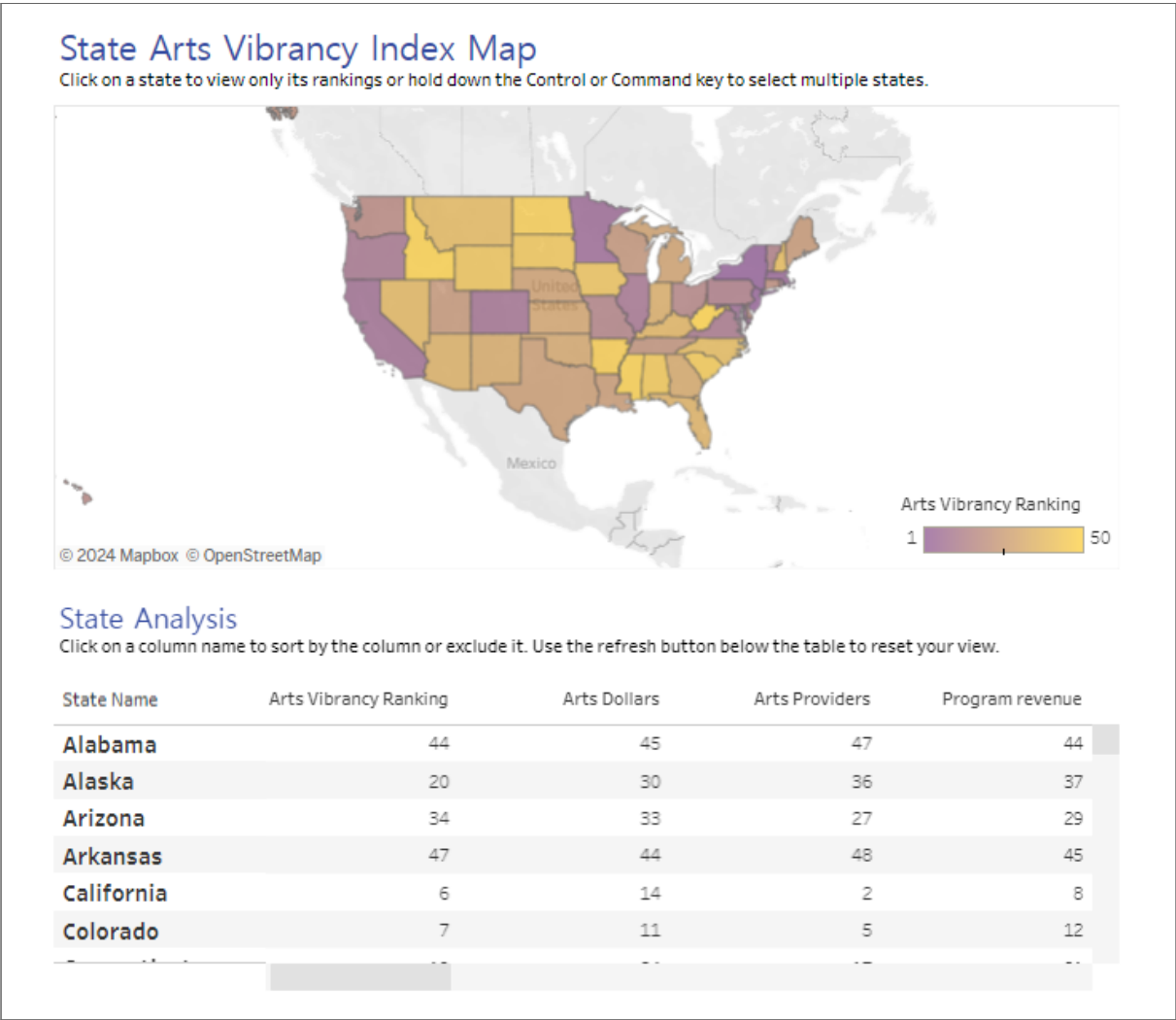


자료: SMU DataArts 웹사이트(<https://culturaldata.org>).

- 2024년에는 이를 주 단위로 확대하여 50개 주에 대해 예술활력도 순위를 발표함. 발표 시에는 전체 순위와 더불어 세부적으로 각 부문 및 세부 구성 지표별 순위를 함께 제공함.
  - 구성 지표 순위 외에도 빈곤율, 농촌인구 비율 순위도 함께 제공함.
- 상위 40개 예술활력도시를 선정한 것과 동일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주 단위에서 적용하여 산출함.
  - AVI의 구성 지표는 생활비 지수(cost-of-living index) 및 인구 규모('주민 1인당' 지표화)로 조정하여 지역 간 상대적인 예술활력 수준을 비교함.
- 순위 발표와 더불어 농촌/도시 인구, 빈곤율, 예술활력도시 상위 도시 포함 여부와 예술활력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살펴봄.
  - 농촌인구 비율이 높은 주는 예술활력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음. 그러나 주목할 만한 예외도 존재하는데, 가령 버몬트와 메인 주는 농촌 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예술활력 수준은 전체 주의 상위 절반에 속함. 예술활력도가 가장 높은 5개 주에 속하는 미네소타는 28%로 높은 농촌인구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상위 5위의 다른 주들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임.
  - 빈곤율의 경우도 예술활력도가 높은 주일수록 낮은 빈곤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주목할 만한 예외가 존재함. 전국에서 예술활력 수준이 가장 높은 뉴욕 주는 빈곤 수준이 15번째로 높은 주임. 2022년 기준 빈곤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 개 주(미주리, 알래스카, 루이지애나)는 예술활력 순위에서 상위 절반에 해당함.



〈그림 6〉 예술활력지수에 따른 순위 그룹별 미국 50개 주 현황



자료: SMU DataArts 웹사이트(<https://culturaldata.org/state-of-the-arts-2023/full-rankings/>).

- AVI는 문화예술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①‘예술 공급자’, 문화예술단체의 수익과 운영비용 측면을 나타내는 ②‘문화예술단체의 수입·지출’,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을 나타내는 ③‘정부 지원’ 등 3개 부문(대분류)으로 구성된 총 13개 지표를 통해 측정함.

〈표 13〉 예술활력지수 구성 지표

METRIC	지표	가중치
예술 공급자 (Arts Providers)	독립 예술가 (Independent artists)	7%
	문화예술계 종사자 (Arts and culture employees)	7%
	문화예술단체 (Arts and cultural organizations)	8%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사업체 (Arts, culture & entertainment firms)	7%
문화예술단체 수입·지출 (Arts Dollars)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수익 (Program revenue)	9%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수익 (Contributed revenue)	10%
	문화예술단체의 총 운영비용 (Total expenses)	10%
	문화예술단체의 예술가·직원에 대한 총 지불 (Total compensation)	10%
정부 지원 (Government Support)	주정부 예술기금 (State arts dollars)	5%
	주정부 예술보조금 (State arts grants)	5%
	연방정부 예술기금 (Federal arts dollars)	8%
	연방정부 예술보조금 (Federal arts grants)	8%
	총 정부지원 (Total government support)	8%

주: 모든 지표는 '주민 1인당' 지표임.

자료: SMU DataArts 웹사이트(<https://culturaldata.org>).

## □ 유네스코, 문화|2030 지표

- 유네스코는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여 ‘문화|2030 지표’(유네스코, 2019)를 개발함.
  -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문화를 포함한 것을 계기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를 강조하기 위해 ‘문화|2030 지표’를 개발함
  - 문화|2030 지표는 ① 환경과 회복력, ② 번영과 생활, ③ 지식과 기술, ④ 포용과 참여라는 네 가지 주제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주제 차원별로 5~7개, 총 22개 지표를 설정함.
  - 동 지표는 성평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젠더 관련 점검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표 14〉 유네스코의 문화|2030 지표

주제 차원	번호	지표	점검 가능한 성별 요소
환경과 회복력	1	유산에 대한 지출	
	2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3	기후 적응과 회복력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4	문화시설	자영업자의 성별, 이사 및 고위직 임원 성비
	5	열린 문화공간	사용자 및 운영자의 성별(예: 시장 노점)
번영과 생활	6	GDP 내 문화 비중	
	7	문화 고용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8	문화 사업체	자영업자의 성별, 이사 및 고위직 임원 성비
	9	가계 지출	
	10	문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11	문화를 위한 공공 재정	성별 기반 회계
	12	문화 거버넌스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지식과 기술	13	지속가능한발전 교육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14	문화 지식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15	다중언어 교육	
	16	문화예술 교육	성평등 지수
	17	문화 훈련	성평등 지수
포용과 참여	18	사회적 결속력을 위한 문화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19	예술적 자유	정책 검토 시 성별 고려
	20	문화에 대한 접근성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21	문화 참여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22	참여적 과정	성별, 연령 및 기타 특성에 따른 분류

자료: 유네스코(2019).

## □ 국가 발전 수준, 국민 삶의 질 수준 측정 지표체계 중 문화 지표

- 그 외에 문화 영역에 초점을 둔 지표는 아니더라도 국제기구 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발전 수준, 국민의 삶의 질 또는 웰빙(well-being)을 측정하려는 지표체계의 일부로 문화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음
  - OECD의 Better Life Index 및 How's Life, 개별 국가의 경우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문화 영역을 포함하는 삶의 질 또는 안녕 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 OECD의 Better Life Index 및 How's Life 지표체계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여가를 위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가 향유의 양적 측면을 측정함(〈표 15〉 및 〈표 16〉).

〈표 15〉 OECD의 Better Life Index

영역	지표	지표 정의
주거	주거 관련 지출	주거 관련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및 수선유지 비용의 합이 가계의 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본시설이 있는 주거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화장실 보유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1인당 방수	주택의 방 수를 거주 인원수로 나눈 비율
소득	가계 순자산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계 기준 가계 보유 금융자산(현금, 채권 및 주식 등)
	가계 순가처분소득	직접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계의 임금, 재산 및 임료 소득 등 순가처분소득
직업	직업안정성(실직 위험률)	실업자가 되었을 때 예상되는 소득의 손실
	개인소득	정규노동자의 연평균 소득
	고용률	근로가능연령 인구(15~64세)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에 고용(1시간 이상)된 인구의 비율
	장기 실업률	만 15~64세 인구 중 1년 이상 실업상태(취업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함)에 있는 사람의 비중
공동체	지원관계망의 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교육	기대교육기간	만 5세 어린이가 39세까지 공식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학생 역량	PISA에 따른 학생들의 수행 평균 점수
	학업성취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성인(25~64세)의 비중
환경	수질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
	대기오염	인구 1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큐빅 미터당 미세먼지(PM2.5) 농도(마이크로그램)
시민참여	규칙 제정에의 참여	법과 하위 규정 도입 시 이해당사자의 공식적 참여 수준을 지수화(0~4의 범위에서 점수화)
	투표율	선거 등록 인구 대비 최근 선거에 참여한 인구 비율
건강	자기보고 건강상태	"전반적으로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견은?"이란 질문에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
	기대수명	현재의 사망률에 근거한 평균적인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대한 개인별 점수의 평균
안전	살인율	인구 10만명당 경찰에 신고된 피살자 수
	야간보행 안전감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
일과 삶의 균형	여가와 개인적 돌봄 시간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인 돌봄(수면 및 식사 포함)에 사용한 시간
	장시간 근로자	평균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자영업자 제외)

자료: 김상만·김현호(2019)를 일부 수정하여 작성.

〈표 16〉 OECD의 How's Life

영역	지표	지표 정의
소득과 부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	가계 순조정 가처분 소득
	가구 중위 순자산	중위 가구의 순 자산
	5분위 소득배율	
주거	주거비용 후 가처분소득	주거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비율
	과밀화 비율	과밀한 상태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
일과 직업의 질	고용률	25~64세 인구 대비 고용된 인구의 비율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중위 임금 대비 남성의 중위임금 비중, 남성 임金的 비율로 표시
	장시간 유급노동 근로자	주 5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의 비율
건강	출생 시 기대수명	신생아가 향후 생존할 년 수
	25세인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간 기대수명의 차이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교육 수준의 25세 남성 간 기대수명의 차이
지식과 기술	과학 부문에서 15세 학생들의 인지 역량	PISA 평균 점수
	수학, 읽기, 과학 점수가 낮은 15세 학생의 비율	수학, 읽기, 과학에서 점수가 낮은 15세 학생의 비율
환경의 질	대기오염 노출 인구	노출된 사람의 비율 > WHO 기준선
	녹지공간 접근	도보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인구의 비율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0~10점 척도의 평균
	부정적 감정 밸런스	어제 긍정적 기분보다는 부정적 기분을 느꼈던 사람의 비율
안전	폭행에 의한 사망	인구 10만명 당 살인 비율
	야간 안전감에 대한 성별 격차	밤에 혼자 걸을 때 남성보다 덜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성의 비율 차이
일과 삶의 균형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할애한 시간	레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한 시간
	남성 대비 여성의 총노동시간 중 추가 시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유급 및 무급으로 일하며 보내는 총 시간에서 추가적 시간
사회적 관계	주된 활동으로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주된 활동으로 친구 및 가족과 상호작용하며 보내는 시간
	인식된 사회적 지지의 부족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없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시민참여	투표율	투표한 선거등록자의 비율
	정부에 대한 발언권 부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는 16~65세 사람의 비율

자료: OECD(2020)를 바탕으로 작성.

- 영국의 국가 안녕 측정지표는 예술 및 문화 참여(행사 참석 또는 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등 참여 수준을 측정함. 그 외에 녹지 및 자연 공간에 방문한 여가시간을 별도로 측정하고 있음(표 17).
- 독일의 안녕 지표는 주거 측면에서 문화시설까지 이동시간(가장 가까운 지역 또는 주요 지역 중심지까지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동시간)을 측정함(표 18).
- 네덜란드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번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광범위한 번영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모니터링 지표는 여가에 대한 만족도(여가 활동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를 측정함(표 19).

〈표 17〉 영국의 국가 안녕 측정(UK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영역	지표	지표 정의
개인적 웰빙	삶의 만족도	영국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매우 높게 평가한 비율
	가치	영국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자신이 인생에서 하는 일이 매우 가치 있다고 평가한 비율
	행복감	영국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어제 자신의 행복감을 매우 높게 평가한 비율
	불안감	영국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어제 자신의 불안감을 매우 높게 평가한 비율
인간관계	불행한 관계(파트너 관계에 대한 만족도)	영국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동거 또는 기혼) 중, 자신의 관계가 극도로 불행하다고 평가한 비율
	외로움	영국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자주 또는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한 비율
	의지할 사람	그레이트브리튼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을 때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거나 매우 강하게 동의한 비율
	타인에 대한 신뢰	그레이트브리튼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타인을 신뢰한다고 보고한 비율
	지역 사회 통합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서 잘 어울린다는 것에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하는 사람들
건강	건강기대수명	영국에서 출생 시, 성별에 따라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
	신체 건강 상태(장애)	영국 전체 인구 중, 암, 심혈관 질환, 치매, 당뇨병, 신장 및 간 질환, 만성 근골격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다고 보고한 비율
	건강 만족도	영국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자신의 건강에 대체로 또는 매우 만족하는 비율
	우울감 또는 분노	영국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우울감 또는 분노 증세를 보고한 비율
	의료시스템 만족도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 만족하는 비율
하는 일 (일과 여가)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	영국 성인 인구 중, 현재 직업에 대해 대체로 또는 상당히 만족하는 비율
	무급근로시간	영국에서 성별에 따른 1일 무급 근로 시간
	자원봉사활동	그레이트브리튼의 성인 인구 중, 지난 12개월 동안 클럽, 단체, 자선단체 또는 조직에 무상으로 도움을 준 비율
	예술 및 문화 참여	잉글랜드의 성인 인구 중, 지난 12개월 동안 직접 예술(행사 참석 또는 활동 참여)에 참여한 비율
	스포츠 참여	잉글랜드의 성인 인구 중, 일주일에 평균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스포츠 또는 신체 활동에 참여한 비율
	자연 방문	잉글랜드의 성인 인구 중, 지난 14일 동안 여가시간에 녹지 및 자연 공간에 방문한 비율
사는 곳 (거주환경)	범죄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천명당 개인 범죄 발생률
	안전감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 저녁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혼자 걸어다니는 것이 상당히 또는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
	지역사회 소속감	그레이트브리튼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자신의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매우 느낀다고 보고한 비율
	디지털 사각지대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한 적이 없는 비율
	거주시설 만족도	잉글랜드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자신의 거주시설에 상당히 또는 매우 만족하는 비율
개인 재정	상대적 저소득 가구	영국에서 중위 가구소득의 60% 미만인 인구 비율
	중위 가구 자산	그레이트브리튼에서 연금을 포함한 중위 가구 총자산
	중위 가구소득	영국에서 가구당 중위 가구 가처분 소득
	가구소득 불평등	영국의 소득 불평등 측정을 위한 지니 계수(0은 가계 가처분 소득의 완전한 평등을 의미)
	성별 임금 격차	영국의 여성과 남성의 총 시간당 평균 임금 차이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영국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재정적 관리에 어려움을 상당히 또는 매우 느끼는 비율
경제	실업률	영국의 16세 이상 성인 인구의 실업률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측정된 물가상승률
	공공부채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

영역	지표	지표 정의
교육 및 기술	NEET(니트족)	영국에서 교육, 취업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청년 무직자)
	무자격자	영국의 16~64세 인구 중,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율
	A급 이상 자격	영국의 16~64세 인구 중, A급 상당의 자격을 갖춘 비율
	인적 자본	영국 근로 연령 인구에서 예상 평생 소득의 총 순 현재 가치(실질 기준)
	교육시스템 만족도	그레이트브리튼의 성인 인구가 영국의 교육 시스템에 만족하는 경향 비율
거버넌스	투표율	영국의 총선 투표율
	영국 정부에 대한 신뢰	그레이트브리튼의 성인 인구가 영국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
	발언권	그레이트브리튼의 성인 인구가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한 비율
	경찰에 대한 만족도	그레이트브리튼의 성인 인구가 영국의 경찰에 만족하는 비율
	법원 및 법률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그레이트브리튼의 성인 인구가 영국의 법원 및 법률 시스템에 만족하는 비율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영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소비	영국의 총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소비의 비율
	가정 폐기물 재활용	영국의 가정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
	보호지역	영국에서 육지 및 바다의 보호구역 면적
	보호종	영국의 보호종의 상대적 풍부함
	대기오염	영국의 대기오염이 보통 이상인 평균일수
	지표수 상태	우수 또는 높은 수질 상태로 평가된 영국 지표수역의 비율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그레이트브리튼의 성인 인구 중,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라이프스타일을 바꾼 비율

자료: UK Measures of National Well-being user guide. 2023. 7. 5.(Release date).

### 〈표 18〉 독일의 안녕 지표(Wellbeing in Germany)

영역	지표	지표 정의
삶을 통한 건강	출생시 기대수명	신생아의 평균적인 삶을 보여주는 기대수명
	비만율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비만 유병률 측정
	의사 1명당 환자 수	카운티에서 일반의 또는 일반 전문의가 진료하는 환자(주민)의 평균 수 측정
	의료의 질	* 현재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없음
	소득분위별 건강상태	5개의 소득 분위 그룹에서 자신의 건강을 "(매우)나쁨 / (매우) 좋음"으로 평가
좋은 일자리와 공정한 참여	실업률	15세 이상 인구 중, 일시적으로 실업자 상태이거나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 중, 연방고용청에 등록된 구직자 비율
	고용률	20~64세 인구 중, 돈을 벌기 위해 일주일에 적어도 한 시간을 일하는 노동력의 비율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	20~64세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는 다양한 고용 형태 분포
	실질임금	총급여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공제한 후 남은 보수의 일부
	직업 만족도	20~54세 개별 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0(매우 불만족)~10(매우 만족)점 척도로 직업 만족도 측정
모두를 위한 동등한 교육 기회	직업 훈련 및 대학 입학자격 취득자	최소한 직업 훈련을 이수했거나 대학입학자격(중학교 2급)을 취득한 25~64세 비율
	조기 중도 퇴학자	18~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중등학교 기본 자격(중등 1급)을 얼마나 취득하고 있는지 측정
	부모와 자녀 간의 교육 이동성	부모의 최종학력과 자녀의 최종학력 비교
	추가 교육 이수	지난 12개월 동안 회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 또는 개별 직업 관련, 비전문 직업 관련 추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18~64세 비율

영역	지표	지표 정의
가족과 일을 위한 시간	희망근로시간 대비 실제근로시간	인턴을 포함한 20~54세(연수생 제외) 직원들이 선호하는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과 비교
	보육시설 등록률	보육시설 또는 보모가 돌보는 아동의 비율과 특정 연령대의 아동 수와 비교
	돌봄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돌봄 책임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의 비율 측정
	통근시간	출근에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직원(연수생 포함)의 비율 측정
안정적인 수입	순 가구소득	중위 가구의 연간 순 가처분소득 측정
	소득 지니계수	지니계수로 독일의 실질 가구소득 분배의 불평등 측정
	자산 지니계수	자산의 불평등 측정
	빈곤위험률	소득이 빈곤 위험 임계값 미만인 인구 비율 측정
	노인부양률	생산가능인구(20~66세) 100명당 67세 이상 인구 비율 측정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	범죄 위험	특정 범죄(일반, 신체적 상해, 빈집털이, 강도, 성희롱, 테러공격)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안전감 측정
	실제 범죄	강력 범죄와 재산 관련 범죄의 수(기록 사례, 해결 사례) 측정
	중요 범죄	집단 편견에 의해 범죄 동기가 부여된 모든 범죄(중요범죄, 외국인혐오)를 포함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	지역 경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측정
도시와 농촌의 주거	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주택 임대료를 순 가구소득의 비율로 측정
	교육·서비스·문화시설까지 이동시간	가장 가까운 지역 또는 주요 지역 중심지에 도달하기 위해 대중교통 및 자가용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 측정
	광대역 접근성	최소 50 Mbit/s의 인터넷 속도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 비율 측정
가족 및 사회	생활과 가족형태	주 거주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측정
	타인의 도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 측정
	시민참여	특정 연령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 측정
	스포츠 클럽 회원	16개 주의 스포츠 협회에 적어도 하나의 스포츠 클럽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비율 측정
경제력 강화 및 투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	1인당 경제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 측정
	투자율	공공 및 민간 투자에 소비된 경제적 산출물의 비율 측정
	국가부채비율	GDP와 관련하여 연방, 주, 지방 및 사회 보장 기금의 총 부채
	R&D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출을 GDP의 비율로 측정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	독일에서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완수하는 데 걸리는 평균 일 수 측정
자연 보전 및 환경 보호	대기질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
	생태 다양성 및 환경의 질	선정된 조류 종의 개체수를 활용하여 독일의 자연 상태와 환경 측정
	에너지 생산성	1차 에너지 소비 단위 당 GDP
자유롭고 평등한 삶	투표율	투표권을 행사하는 적격 유권자의 비율
	정치적 영향력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
	8대 기본권 보장	8대 기본권의 보장 정도를 0~1(최적상태) 척도로 측정
평화 유지를 위한 글로벌 책무	온실가스 배출	전 세계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기후 보호 분야의 변화 기록
	개발 협력에 대한 지출	국민총소득(ODA 비율)에서 개발 협력에 대한 공공 지출의 비율
	글로벌 기업 책임	* 현재 적절한 지표 없음

자료: [www.gut-leben-in-deutschland.de/indicators/](http://www.gut-leben-in-deutschland.de/indicators/) (검색일: 2024.7.1.)



〈표 19〉 네덜란드의 광범위한 번영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모니터링 지표

영역	지표	지표 정의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	18세 이상 네덜란드 인구 중 삶에 만족하는 비율(7~10점을 만족으로 분류)
	자신의 삶에 대한 경험적 통제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를 경험한 비중 (1~5점 척도에서 4점 및 5점)
물질적 번영	중위가처분소득	2021년 고정 가격으로, 인플레이션 조정된 가구당 유로 단위 표준화 가처분 소득 중 양값
	개별 소비	1인당 유로(2015년 가격)
건강	남성의 건강 기대수명	출생 시 사람이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
	여성의 건강 기대수명	출생 시 사람이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
노동과 여가	비만	BMI가 25.0kg/m <sup>2</sup> 이상인 20세 이상 인구의 비율
	장기 실업률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노동 인구의 비율
	순노동 참여	동일 연령 집단에서 15세~74세 사이의 고용 노동 인구의 비율
	고학력 인구	고등 교육(HBO 또는 WO 수준)을 이수한 15세~74세 사이 인구의 비율
	여가에 대한 만족도	18세 이상 인구 중 여가 활동에 (매우)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
	교통 체증 및 지연으로 인한 시간 손실	주민당 차량 손실 시간의 주요 도로망 혼잡. 차량의 주행 시간 손실은 교통 체증(최대 50Km/h) 및 지연된 주행(50km/h에서 100km/h 사이)을 기준 속도 100km/h로 비교하여 계산.
주거	직원의 업무 만족도	15세~75세 사이의 네덜란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매우) 만족하는 직원의 비율
	총 주택 비용(임대 및 매입)	가처분 가구소득에서 총 주택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총 주거비: 공공금, 보험료, 하수도 비용, 각종 세금 등 주거와 관련된 모든 직접 비용 - 주거 보조금)
	주거 만족도	18세 이상 인구 중 주택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18세 이상 인구의 비율
사회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가족과 만나는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친구와 만나는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이웃과 만나는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참여 및 책임	한 국가의 시민이 정부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와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지 여부
	기관에 대한 신뢰	15세 이상 인구 중 경찰에 대해 매우 또는 상당히 신뢰하는 비율
		16세 이상 인구 중 하원에 대해 매우 또는 상당히 신뢰하는 비율
		17세 이상 인구 중 판사에 대해 매우 또는 상당히 신뢰하는 비율
	타인에 대한 신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안전	규범과 가치의 발전	18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이 발전하고 있거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
	자원봉사활동	지난 12개월 동안 조직이나 협회에 자원봉사를 한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이웃으로부터 느끼는 불안	귀하는 이웃에서 자주, 가끔 또는 거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범죄 피해	지난 12개월 동안 개인이 피해를 입은 15세 이상 시민의 비율
환경	NNN의 육상 자연 관리	총 토지 면적의 육상 자연 비율
	내수면 수질	우수한 수질을 충족하는 입목물의 비율
	질소침착 및 토지 자연	질소에 대한 임계 침착 값을 초과한 자연 보호 구역의 면적
	도시의 미세먼지 노출	도시 지역의 미세먼지의 가중 연평균 농도
	환경문제	먼지 및 오염 또는 기타 환경 문제를 겪고 있는 16세 이상 인구의 비율

자료: Brede Welvaart & d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itgave 2023.(광범위한 번영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023년 판).

###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국내외 유사 지표체계 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역의 발전 수준, 삶의 질 수준 및 여건을 파악함에 있어 문화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어 지역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sup>6)</sup>
  -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주요 지표체계에서도 지역의 발전 수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누리는 삶의 질 혹은 웰빙(well-being)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문화(여가 포함)를 중요한 삶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문화부문의 지표는 지역의 발전 수준 및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문 지표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래 지역문화 실태 관련 주요 항목은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에 대다수 반영되어 지표로 구축·운영되어 왔으나, 기존 지표 구성에 있어 데이터 구득의 한계, 문화향유 트렌드의 변화 등 이유로 현실의 지역문화 실태를 적실히 담아내는 데 한계를 보이는 측면도 있음.
- 유관 조사(지표)들에서 구성하고 있는 지표체계 간 비교 분석을 통해 관련 지표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문화 실태 파악에 핵심적인 항목들로 지표를 재구성 및 재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EU의 문화창조도시모니터링의 경우 문화적 창의성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지표에 담고 있으며, 문화산업 등 가용한 관련 지표를 발굴 또는 구축하여 지역문화 지표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문화정책 및 지역문화실태조사 추진의 근거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 사항을 개편할 지표체계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문화의 범위(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와 정의, 관련 시설 등을 검토하고 이를 지표체계로 반영함으로써 근거 법과 조사체계를 보다 긴밀히 연결시킬 수 있음.
- 한편 지역문화 실태의 정밀한 진단과 효과적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문화 영역의 지표뿐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 발전 수준, 삶의 질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문화 부문을 지역 종합지표의 한 영역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문화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의 지역발전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문화 기반 지역 균형발전, 지역 기반 문화 균형발전의 근거 자료를 확보해 갈 필요가 있음.
  - 단순화하여 ①지역의 전반적 발전 수준(높음, 낮음)과 ②지역의 문화서비스 여건(양호, 낙후)을 두 축으로 하여

6) 현 정부의 문화 부문 국정과제 “문화 중심 지역균형발전”과 같이 문화를 지역 균형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문화발전과 지역발전의 통합적 접근이 더욱 늘어나고 있음.

네 가지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가령 지역의 전반적 발전 수준은 높는데 상대적으로 문화 영역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과 지역의 전반적 발전 수준이 낮으면서 문화 영역 여건도 낙후된 지역은 정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차별적 정책 접근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임.

- 지역 규모에 따라 지역의 발전 수준, 그리고 문화정책 추진 기반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의 예술활력지수 사례와 같이 지역문화 현황을 지역 간 비교할 때는 지역 규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미국에서는 상위 40개 예술활력지역 선정 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등 대상 지역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 지표의 운영에 있어 지역문화 여건과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담을 수 있도록 포괄적 지표체계로 구성하되, 이용하려는 구체적 목적(특정 주제의 지표 제시, 특정 목적의 지수화 등)에 따라 특정 주제 영역의 세부지표(또는 특정 세부지표)를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이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문화향유 측면의 지표는 시·군·구 단위 가용성 측면에서 특히 제약이 큰 상황으로, 오랜 기간동안 전국 단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가 이루어져왔으나 시·군·구 단위에서 주민의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득이 불가능한 상황임. 대안 지표를 모색하는 한편으로 향후에는 시·군·구 단위 대표성 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문화향유 측정과 관련하여 더 나아가서는 지역문화 향유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역공동체의 변화 내지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구축·측정을 통해 의미 있는 정책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Chapter 3 지역문화실태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

### 1. 지역문화실태조사 현황과 문제점

#### 1.1.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요

##### □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추진 배경

-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현황 분석과 환경진단 수단이 부재하여 지역 문화와 관련된 객관적 기초통계자료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2년에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지표’를 도출하고 지역의 문화역량을 평가하는 ‘지역문화지표 지수화 시범사업(지역문화실태조사 시범조사)’을 추진함(노영순·김가윤, 2015).
- 2012년 시범조사 후 2015년 조사 항목 등을 수정하여 추가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2017년 1차 정기조사 실시와 2019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2020년 2차 정기조사가 실시되었음.
- 특히 2014년 제정·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최근 개정된 법 제11조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정기조사로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지표를 활용한 3년 주기의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추진 근거

-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문화 현황 파악 및 지역문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생산되는 조사로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지역문화진흥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조사임.
  - 전국 245개 지자체(17개 광역자치단체,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총 35개 지표(4대 분류 32개 문화지표, 코로나특별지표 3개)를 조사함.
  - 기존 행정자료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지표별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됨(지자체 공무원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항목은 14개이며, 코로나19 특별지표 3개 포함 시 35개 중 17개).
  - 2012년 시범조사 실시 후 3개년마다(2015년, 2017년, 2020년) 조사됨.

## □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 공적 영역의 정책 중심 지표 설정, 지역문화 대표성 확보, 조사의 실현 가능성 제고라는 3가지 선정 원칙 하에 3개 대분류, 10개 중분류, 32개 지표 구성(2020년 2차 정기조사 기준)
- 2020년 2차 정기조사 시 2017년 1차 정기조사 전체 28개 지표 중 1개 지표를 제외하고 5개 지표를 신규 추가. 이 외에 코로나19 상황 전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조사지표 중 문화 활동 및 향유를 중심으로 ‘10개’ 지표를 선정하여 2019년과 2020년 기준 데이터를 동시에 조사하고, ① 비대면 문화 사업 추진 현황(2020년 현재), ② 지역 거주 예술인 생계 지원 현황(2020년 현재), 지역 소재 예술단체 특별 창작지원 현황(2020년 현재) 등 3개 코로나19 특별지표를 추가
- 2020년 2차 지역문화실태조사 정기조사에서 사용된 32개 지역문화지표 중 17개 지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집된 정보로, 15개 지표는 기초자치단체의 합 또는 평균으로 계산된 정보로 광역자치단체별 현황 산출

〈표 20〉 지역문화실태조사 현행 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문화정책	정책 사업	1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 관련 사업 선정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2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2019년, 2020년)	지자체
	정책 환경	3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2020년)	지자체/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4	문화 관련 조례 제정 건 수(2020년)	지자체
		5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2020년)	지자체
	문화 예산	6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2020년)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7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2020년)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8	지역문화기금 설치 여부(2020년)	지자체
		9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2020년)	지자체/기준년도 예산계획서
문화자원	문화 유산	10	시·도 지정 문화재 수(2020년)	문화재청
		11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2020년)	국립무형유산원
	기반 시설	12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13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2020년)	문체부 자료/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지역문화진흥원
		14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2020년)	장애인인증개발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15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2020년)	지자체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원 활용	16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일 수(2019년,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17	공공도서관 주당 평균 개방 시간(2019년, 2020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18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2019년, 2020년)	전국지역축제총괄표
		19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문화활동	활동 조직	20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2020년)	예술경영지원센터
		21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202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활동 인력	22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3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2020년)	지자체
		24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202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5	문화관광해설사 수(2020년)	지자체
		26	법정사서직원 확보율(2020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7	문예회관 500객석 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향유	지역 주민	28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29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소외 계층	30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1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32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현황통계분석).

〈표 21〉 지역문화실태조사 코로나19 특별지표

대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비대면 사업	비대면 문화사업 추진현황(2020년)	지자체
예술인 사업	지역 거주 예술인 생계 지원 현황(2020년)	지자체
예술단체 지원	지역 소재 예술단체 특별 창작지원 현황(2020년)	지자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현황통계분석).

주: 3개 지표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문화 DB 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



## 1.2. 지역문화실태조사의 문제점

### □ 지표 분류 및 지표 내용과 법적 근거의 일부 불일치

-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 정의에 따라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의 현황을 파악할 지표가 부재함.
- 법상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이 정의되어 있지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나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판단됨.
  - 문화유산은 법에 미정의 상태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은 법에 정의가 되어 있지만, 관련하여 문화예술에 관련한 지표가 부재
  - 문화산업 역시 법에 미정의된 상태임.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필요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 “문화산업”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정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2(실태조사의 내용 등)의 내용과 일부 불일치

-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에는 “지역문화정책(제도 및 예산)”, “지역문화시설”,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하여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는 “문화정책(문화사업 포함),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문화향유” 대분류는 중분류와 세부 구성지표 간의 적합성이 떨어짐.

\* 중분류는 지역주민, 소외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주민 중분류의 경우도 지자체의 문화정책 역량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판단됨.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관련 제도 및 예산 등 지역문화 정책 현황
2. 생활문화시설 등 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현황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적합하게 포괄하기에는 필요한 지표가 일부 누락됨.

- 문화자원 중 문화유산 분류에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는 ‘시·도 지정 문화재 수’,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를 하위 지표로 두고 있음.
- 하지만 ‘시·도 지정 문화재 수’ 지표는 문화재 일부만 해당되어 문화재보호법 및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보호되는 문화재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 지표는 기반시설에 관한 지표임에도 문화유산 중분류에 포함되어 있어 적합하지 않음.

〈표 22〉 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권자별 / 유형별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자료검색일 2024.1.16.)

-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중분류로 구분된 직접적 지표는 없고, 문화자원 대분류의 자원활용 중분류에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일수’, 문화활동 대분류-활동인력 중분류의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수’ 등이 관련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지자체별 문화예술 활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을 조사한 자료로, 문화예술의 정확한 정의에 따른 지표가 아닐지라도 지표 분류 유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 정의에 생활문화 부문이 포함되어 있고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에 누락된 항목이 있음.
- \* 문화시설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활용한 ‘인구 천명당 문화기반시설’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등에 대한 지표는 부재함.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6. 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사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8. 13.]

-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는 소외계층을 파악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 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수,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수’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지역문화진흥법상의 문화환경 취약지역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표임.
- \* 문화환경 취약지역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소외계층 밀집지역, 도서·벽지, 폐광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사람
- [본조신설 2012. 8. 13.]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 [전문개정 2007. 12. 21.]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2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14.>

1. “폐광지역”이란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0. 2. 4.]

### □ 지표 간 중복성, 유효성 및 변별력 부족의 문제

- 일부 지표에서 상위의 개념으로 집계하고 하위의 개념을 다시 지표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조정이 필요함.
  -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에는 지역문화진흥원을 집계한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가 중복적으로 집계됨.
  -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2020년),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2020년) 등 지표의 경우 조사의 법적 근거 및 지역문화실태조사의 목적에 비추어 연계성이 낮은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지역문화진흥기금 지표와 관련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실제로 기금을 설치한 사례가 없고 명목상 기금이 있는 경우도 재단 기금으로서 지표 취지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삭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 공급(시설) 지표로 구성되어 지역의 수요 파악이 어려움

- 대부분 시설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부 프로그램만 반영하는 한계가 있음.
  - 특히 문화향유 부문은 공급 위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의 소외계층을 모두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조사(예: 국민문화활동조사 등)는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단위로 대표성 있는 값을 추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통신사 이동량 자료, 신용카드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생산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형별 문화시설로의 접근성 지표도 지역의 문화향유의 여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일부 지표의 경우 수집 방식의 한계에 따라 낮은 신뢰성 우려

- 다수의 지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예술인은 활동지역과 거주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예술인 수를 활용하는 지표 사용 및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축제부터 작은 축제까지 축제 규모의 스펙트럼이 크므로 축제 관련 지표(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수 등)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지역문화 수준과 연관된 지역의 일반 현황 및 지역발전 수준 파악에 한계

-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지역발전 수준은 지역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으나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부재
  - 새로운 지역문화 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역발전과 지역문화에 관련한 지표 발굴이 필요함.

### □ 일부 지표는 값이 없는 지자체가 다수 나타나고, 지역별 편차가 큼

- 일부 지표의 경우 시·군·구 지표 값이 0으로 집계되는 지자체가 다수로 나타나 사용 및 분석에 한계가 있어 지표 개선이 필요함.
  - ‘지역문화기금 설치 여부’는 187개, ‘공공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은 173개, ‘문화보급전수시설 수’와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등은 142개 지자체에서 0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32개 중 12개 지표를 제외하고는 10개 이상 지자체에서 0값으로 집계됨.

### □ 인구수로 상대화한 지표가 지역문화실태를 왜곡시키는 문제

-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는 ‘인구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액,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 인구 만 명당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 등에서 지역 인구규모를 고려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수로 나눌 경우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시설 등 서비스 절대량이 적음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여건을 갖는 것처럼 나타나 지역문화실태를 왜곡시키게 됨.
  - 예로, 인구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액 지표의 경우 상위 10개 지역이 ‘울릉군, 부여군, 함안군, 무주군, 구례군, 강진군, 양구군, 단양군, 태안군, 고창군’ 등으로 농촌지역이 상위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하위 10개 지역은 서울 성동구, 울산 동구, 서울 서대문구, 부산 연제구, 대전 서구, 광주 북구, 울산 남구, 서울 양천구, 서울 동작구, 광주 광산구 등으로 하위권 대부분이 특·광역시의 구 지역임.
  - 이처럼 인구수로 상대화한 지표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실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마찬가지로 인구 천명 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만명 당 생활문화시설수, 인구 만 명당 기획문화예술 공연 건수 등의 지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
  -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수 지표와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수 지표의 경우는 상대화를 시킨 의미가 불분명하고, 상대화하지 않은 등록예술인수, 문화예술교육사수 자체와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아 인구로 상대화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표 23〉 2020년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의 기술통계량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평균	표준편차	0값을 갖는 지자체 수
문화 정책	정책 사업	1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2019년, 2020년)*	6.15	9.06	53
		2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2019년, 2020년)*	56.12	34.27	37
	정책 환경	3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2020년)*	1.69	0.91	4
		4 문화 관련 조례 제정 건 수(2020년)*	9.03	7.78	25
		5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2020년)*	2.53	2.09	0
	문화 예산	6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2020년)	2.08	1.26	0
		7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2020년)	131.18	134.39	0
		8 지역문화기금 설치 여부(2020년)	0.18	0.38	187
		9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2020년)	31.20	24.97	10
문화 자원	문화 유산	10 시·도 지정 문화재 수(2020년)	28.55	30.24	2
		11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2020년)	0.61	0.99	142
	기반 시설	12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20년)	0.08	0.07	0
		13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2020년)	1.78	0.93	1
		14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2020년)	4.19	9.06	173
		15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2020년)*	28.94	42.02	69
	자원 활용	16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일 수(2019년, 2020년)	39.53	47.61	49
		17 공공도서관 주당 평균 개방 시간(2019년, 2020년)	58.17	7.28	0
		18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2019년, 2020년)	283.82	627.39	142
		19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2019년, 2020년)*	1.37	2.94	131
문화 활동	활동 조직	20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2020년)	6.06	9.50	43
		21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2020년)	2.36	3.33	72
	활동 인력	22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2020년)	15.09	13.29	1
		23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2020년)*	3.48	4.48	37
		24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2020년)	3.56	2.11	1
		25 문화관광해설사 수(2020년)*	13.12	13.41	47
		26 법정사서직원 확보율(2020년)	18.91	7.98	2
		27 문예회관 500객석 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2020년)*	1.31	1.28	86
문화 향유	지역 주민	28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 수(2019년, 2020년)*	0.45	0.72	51
		29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2019년, 2020년)*	2.75	5.33	68
	소외 계층	30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2020년)	90.91	5.56	0
		31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9년, 2020년)*	3.70	8.94	108
		32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9년, 2020년)*	1.40	2.84	13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현황통계분석)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선 방안

### 2.1. 지역문화 분류체계 개선

#### □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실태 유형 분류

-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의 대분류 체계인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체계를 법적 근거(지역문화 정의 및 실태조사 포함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함.
- 더불어, 지역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현황(지역발전 수준)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취약성을 보다 적실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도록 체계를 보완하여, 지표체계의 대분류를 기존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에 더불어 “지역일반현황”을 추가한 5개 카테고리로 구분함.
- 관련 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중분류 체계 및 일부 지표의 위치를 변경함.
  - “문화정책” 부문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2에 따라 “문화제도, 문화예산, 문화사업”으로 분류함.
  - “문화자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으로 분류함.
  - 기존 “문화자원” 내 “자원활용” 부문 지표는 “문화정책 > 문화사업” 카테고리로 이동함.
  - “문화활동”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2에 의거하여 “활동조직(문화예술인단체), 활동인력(문화전문인력)”으로 구분함.
  - 기존 “문화향유” 부문의 소외계층에 관한 지표는 문화소외계층 관련 사업의 내용이고, “지역주민” 관련 지표는 지자체 사업에 관한 내용이므로 “문화정책 > 문화사업” 카테고리로 이동함.
- 법령에는 있지만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파악하지 않았던 문화자원 내 문화산업에 대한 지표를 신규로 발굴하여 추가함.
- “문화향유” 카테고리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산·예술 경험”, “생활문화 경험”, “문화소비 규모” 중분류를 두고 세부 지표를 발굴하여 보완함.
- 지역문화와 더불어 지역발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로 보완함.
  - “지역발전 수준(일반 현황)”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문화소외 수준(취약지역선정 지표)”로 구분하여 반영함.

-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의 4개 카테고리인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을 각 중분류 체계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지표를 보강함.
  -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카테고리 내 “지역문화”의 4개 요소(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되, 문화산업의 경우는 중복 요소가 있어 일부 대분류의 경우에만 반영함.
-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신규 지표 분류체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 24〉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표 체계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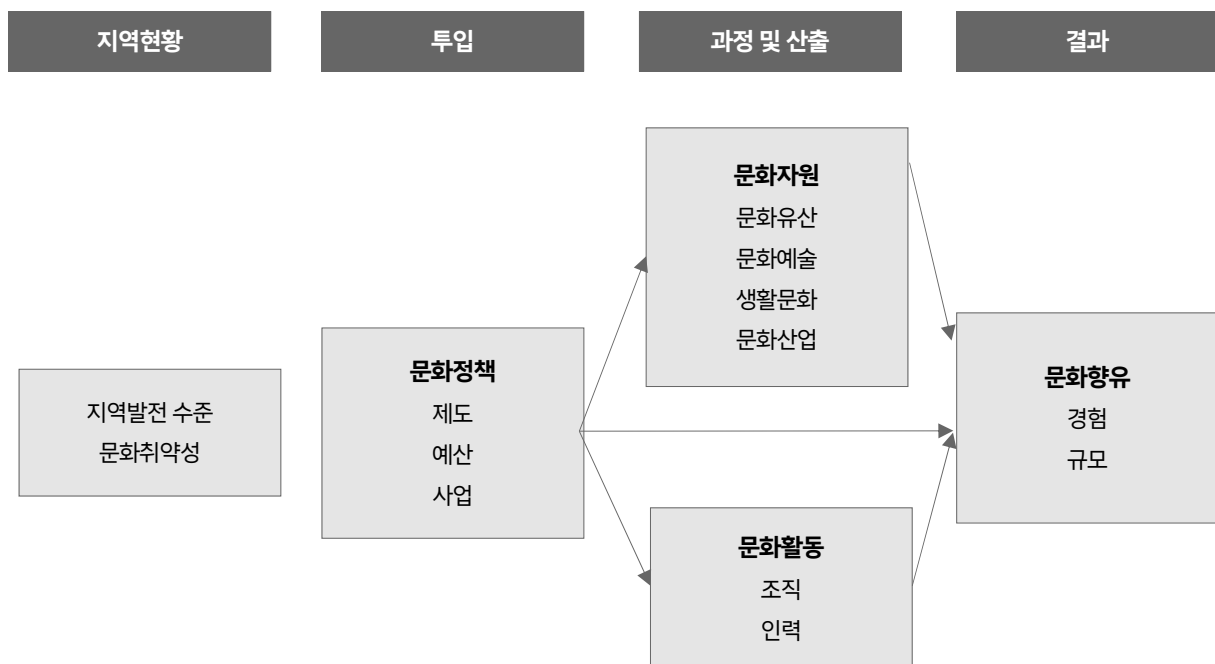
기존 분류체계			신규 분류체계(안)		비고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문화정책	정책사업		문화정책	문화제도		
	정책환경			문화예산		
	문화예산			문화사업		
문화자원	문화유산		문화자원	문화유산	기존 지표 보완 및 신규 지표 발굴,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	
	기반시설			문화예술		
	자원활용			생활문화		
				문화산업		
문화활동	활동조직		문화활동	활동조직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	
	활동인력			활동인력		
문화향유	지역주민		문화향유	문화경험	신규 지표 발굴	
	소외계층			문화소비 규모		
-	-		지역일반현황	지역발전 수준 (일반현황)	삶터	
					일터	
					공동체터	
				문화소외 수준 (취약지역선정지표)	문화소외계층	
					도서·벽지	
					폐광지역	

자료: 저자 작성.

### □ 지역문화정책의 효과를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입-과정-산출-결과의 성과평가 체계로 개선

- 기존 지역문화실태조사는 부문별 연관성이 낮아 지역문화정책의 성과 파악이 어려운 구조임. 이에 상기에 제시한 체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성과평가 체계로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 “문화정책”이 투입되면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에 영향을 주고, “문화자원” 및 “문화활동”은 “문화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설계하고 해당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함.

〈그림 7〉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표를 활용한 정책 평가 구조(예시)



## 2.2.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세부 구성지표 개편

### □ 공공성, 대표성, 측정가능성 등 3대 원칙하에 지표 선정

- **(공공성)** 지역문화실태를 보다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의 영역 외에도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의 활동 영역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함.
- **(대표성)** 지역의 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지표로 구성함.
- **(측정가능성)** 최적의 개념을 나타내는 지표 설정을 하더라도 통계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측정할 수 없음. 따라서 최대한 적합한 개념을 담은 측정가능한 지표를 발굴함.
  - 최근 다수의 연구나 정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측정가능한 지표가 있다면 그 방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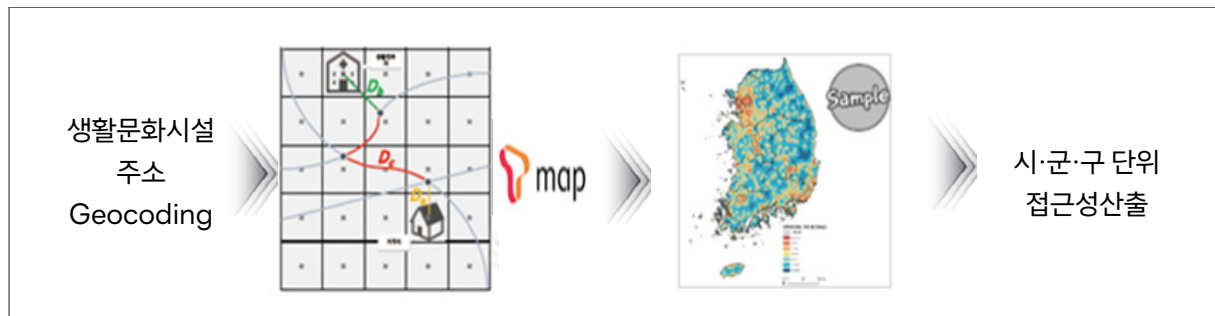
### □ 실효성 낮은 기존 지표는 삭제하는 방안 검토

- 지역문화진흥정책 수립 및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도록 기존 지표를 재분류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성이 높은 지표들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존 조사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표 삭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함.
- 법령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삭제 후보 지표와 그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농촌 지자체의 경우 실제 지역문화 수준은 낮지만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은 크게 나타남. 또한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어 지역의 문화정책의 관심 수준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가 필요함
  - 지역문화기금 설치 여부: '지역문화기금'은 광역 단체 중 일부(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라, 경북)만 설치되고 있어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크고 기초지자체에서 파악할 수 없기에 삭제함
  - 공공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 공공문화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 지역문화진흥에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해당 사항이 지역문화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낮음. 더불어 자료 수집의 신뢰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됨(대부분 지자체가 0으로 수집).

-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일 수: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일 수는 신규 지표로 추가된 문화예술활동 건수와 중복되고 문예회관에 국한한 공연일 수보다 다양한 문화 이용 지표로 변경하여 문화향유 부문에서 공연시장 티켓 판매 수 등으로 지역의 문화 실태를 설명함.
- 공공도서관 주당 평균 개방시간: 공공도서관은 개관일, 개방시간에 있어서 격차가 미미하므로 변별력이 낮아 삭제할 필요가 있음(2020년 기준으로 시: 59.8시간, 군: 57시간, 구: 57.8시간).

## □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재배치 및 지표 변경·신규 지표 발굴

- 일부 지표를 제거하고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표를 분류체계에 맞도록 재배치함.
  - 일부 지표들은 기존 유형에 맞지 않거나 새로운 분류체계의 유형에 더 적합한 지표들이 있어 재배치가 필요함.
-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하는 내용 중 누락된 항목에 대한 지표 개선 및 신규 지표 발굴이
  - ‘문화자원 > 문화유산’ 부문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재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표 변경이 필요함.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제시하는 지정문화재 현황을 중심으로 하는 지표로 변경함.
  - ‘문화자원 > 문화유산’에 있는 기존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 지표를 문화유산 관련 시설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문화유산보존·보급·전수 시설 수’로 개선함. 이 시설에는 박물관,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을 포함함.
  - ‘문화자원 > 문화예술’에 시각, 공연(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별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함. 문학 활동의 경우 출판사 지역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실제 활동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외함.
  - ‘문화자원 > 문화예술’ 부문의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지표를 “문화예술시설 수”로 개선함. 문화예술 시설 수는 미술관,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 복합문화예술시설 등을 집계하여 입력함. 인구로 상대화하지 않은 이유는 지역의 문화 수준은 해당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임. 농촌지역은 인구로 상대화 시 수치가 높게 나지만 실제 주민은 양이 부족해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문화자원 >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인구 천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지표를 생활문화시설 수로 개선함. 생활문화센터, 도서시설(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역문화활동시설(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종합시설,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수 등을 집계하여 생활문화시설 수로 포함되도록 구성함. 이외에 지표에 있어 절대 양을 사용한 이유는 문화예술 시설과 같은 맥락임.
  - ‘문화자원 > 생활문화’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 지표로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를 추가함.
  - 각 문화보급·전수 시설, 문화예술시설, 생활문화시설에 거주지로부터 해당 시설까지의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여 시설 중심의 지표의 한계를 개선함.



- ‘문화자원 > 문화산업’은 기존 지표가 전무하여 [부록 1]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화산업을 구분하고 이와 관련한 종사자 수, 사업체 수 등을 지표로 사용. 문화산업은 다시 제조, 생산, 공급유통, 소비유통, 인력 및 지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볼 수 있도록 보조지표를 구성함.
- ‘문화활동 > 활동조직’에 문화유산에 관련한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유산 활용 단체 수를 시·군·구별로 집계하여 구성함.
- ‘문화향유’ 부문에 있어서도 지역주민 향유기회 및 지역문화 수요에 적합한 지표 발굴이 필요함. 따라서 문화유산 및 문예시설 방문객(이용객), 공연시장 티켓 판매수(판매액 자료도 있지만 지역별로 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판매수를 사용), 생활문화시설 연간 이용자수, 문화분야단체 참여자수,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측면의 데이터인 신용카드 매출액, 문화 부문 목적지 검색량 등의 지표 등을 발굴함.

-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문화누리 가입자 시·군·구 단위 결제빈도’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문화이용률 등을 입력
- KOPIS 지역별통계데이터(한국문화정보원)를 활용하여 전국의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건수, 개막편수, 상연횟수, 예매수, 매출액 정보를 활용
-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시·군·구별 카드지출액(BC, 신한)을 활용하여 문화서비스 부문의 지출액 등을 사용하여 문화향유 부문의 지표로 활용(문화서비스 신용카드 매출액은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에서 쓰이는 신용카드 지출액)
-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네비게이션 검색 건수 등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문화관광 등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지표로 활용(‘공연장, 공원, 과학관, 관광단지, 극장, 놀거리기타, 놀이시설, 동식물원, 등대, 레거시축제, 문화생활시설기타, 문화원, 미술관, 박물관/기념관, 수영장기타, 수족관, 실외수영장, 야구장, 영화, 유원지, 자동차극장, 자연부락, 전망대, 전시장, 종합위락시설, 촬영지, 축구장, 축제, 카지노, 탐방코스, 테마파크, 화랑/전시관’ 등과 관련한 목적지를 네비게이션(Tmap 어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하고 100m & 1분 이상 이동한 행위에 대한 건수를 측정할 자료임)

### □ 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발굴 및 보완

- 지역발전 수준 등 지역의 일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10여 년 이상 운영되고 검증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발전지수(RDI)의 지표를 활용함.
- 다만 지역발전지수의 구성지표 중 일부는 문화에 관한 내용이 중복되므로 문화 부문을 제외한 일터, 삶터, 공동체터 등의 지수를 활용함.

### □ 문화취약지역 선정 시 필요한 지표 보완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문화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보유 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등을 지표로 추가함.

## 2.3.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지표체계 및 지표 후보

### □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의 4대 부문 32개 지표를 개선하여 <표 25>에 제시한 것과 같이 5대 부문 47개 지표를 후보로 선정함.

- 기존 지표 중 6개 지표를 제외하고 4개 지표를 수정했으며, 각 부문에서 부족한 부문을 채우기 위해 신규 지표 22개를 추가함.

<표 25>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체계 개선(안)

신규 분류 체계(안)		지표	비고	
대분류	중분류		기존 지표	출처
문화정책	문화제도	문화 관련 조례 제정 건 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	○	지자체 입력
	문화예산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	○	지방재정365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비율	○	지방재정365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지역축제 정보'
		* 시·군·구 등 자치단체 전체 범위로 추진되는 축제로 한정		
		주민1인당 생활문화 진흥 예산	신규	문체부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생활문화동호회·단체지원, 민간공간지원 예산액의 합		
	문화사업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 관련 사업 선정 건 수	○	지자체 입력
		전체 문화·예술 사업 중 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	지자체 입력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수	○	지자체 입력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	○	지자체 입력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 프로그램 건 수	○	지자체 입력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	지자체 입력

신규 분류 체계(안)		지표	비고	
대분류	중분류		기존 지표	출처
문화자원	문화유산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수 *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포함	○ (수정)	문화재청 '문화재 관리현황'
		문화유산보존·보급·전수 시설 수 * 박물관,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수정)	문체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국악원 '국악연감'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통합플랫폼'
		문화보급·전수 시설 접근성 * 500m 격자단위 거주지-문화보급·전수시설 접근성	신규	GIS분석
	문화예술	문화예술활동 건수 * 문학 행사 및 관련 학술행사,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신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문화예술시설 수 * 등록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미술관, 문예회관 및 복합문화예술 시설, 문학관 등	○ (수정)	문체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체부 '전국 등록공연장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전국극장조사'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 500m 격자단위 거주지-문화예술시설 접근성	신규	GIS분석
	생활문화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	신규	문체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생활문화시설 수 *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공공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평생학 습관/센터, 지역자치센터 등	○ (수정)	문체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체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통계', 교육청 '평생교육통계', 지자체 입력(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 500m 격자단위 거주지-생활문화시설 접근성	신규	GIS분석
	문화산업	문화산업 사업체수	신규	전국사업체조사
		문화산업 종사자수	신규	
문화활동	활동 조직	문화유산 활용단체 수 *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한국문화유산협회 등 정부인가단체 회원사	신규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 연합회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임의단체 시스템'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수	○ (수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포털
		생활문화 진흥 조직 수 * 지역문화진흥기관, 문화재단·생활문화센터·지방문화원 등	○ (수정)	문체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활동 인력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	지자체 입력
		문화관광해설사 수	○	지자체 입력
		등록 예술인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문화예술교육사 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예회관 500객석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	문체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생활문화 진흥 업무 담당인력 수	신규	문체부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	○	문체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신규 분류 체계(안)		지표	비고	
대분류	중분류		기존 지표	출처
문화향유	유산·예술 경험	문화유산 및 문예시설 이용객 수 *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학관	신규	문체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공연시장 티켓 판매수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대중음악, 무용(서양/한국무용), 서커스/마술, 복합” 장르의 티켓판매수	신규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생활문화 경험	생활문화시설 이용자 수	신규	문체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세 이상 인구 대비) 생활문화 동호회 수	신규	문체부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문화소비 규모	문화서비스 부문 신용카드 지출액	신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문화관광 부문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신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지역 일반현황	지역발전 수준 (일반현황)	생활서비스 수준(삶터)	신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발전지수’
		지역경제력 수준(일터)	신규	
		주민활력 수준(공동체터)	신규	
	문화소외 수준 (취약지역 선정지표)	문화소외계층 수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자 등	신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사업 시·군·구별 수급권자 현황’
		도서벽지지역 보유 수	신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폐광지역 해당 여부	신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 Chapter 4 지역문화실태 지표 선정 및 구축

### 1. 지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 □ 설문조사의 개요

- 문화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
  - 첫째, 본 연구에서 구상한 지역문화실태지표 개선안(기존 지표 제외 및 변경, 신규 지표 추가)에 대해 문화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개선안의 적합성 검토
  - 둘째, 개선안으로 제시된 지역문화실태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지표 부문 간 가중치 결정
  - 셋째, 본 연구의 지역문화실태지표 개선안에서 새롭게 제시한 문화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 항목으로 도출하고, 문화산업의 가치체인을 기준으로 하위 부문 구성
- 조사 방법
  - 설문조사는 2024년 3월 21~28일 기간의 약 1주일간 전문가 조사와 지자체 문화 담당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재직자(이하 ‘공무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전문가 조사는 지역문화, 문화정책, 문화예술 등 유관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의 전문가 75명에게 연구진이 직접 설문조사 응답을 요청하여 총 35명으로부터 최종 응답 결과를 회수함.
  - 공무원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소속 문화, 관광 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종 93명으로부터 응답 결과를 회수함.

## □ 설문조사 응답자의 현황

- 총 128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광역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담당 공무원이 15.6%,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담당 공무원 및 산하 문화 기관 종사자가 57.0%, 문화 분야 전문가(교수 및 연구자)가 27.3%를 구성
  -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20대가 11.1%, 30대가 31.0%, 40대가 37.3%, 50대가 15.9%, 60대가 4.8%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0대 분포가 55.0%,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0대가 40.3%, 전문가의 경우 40대가 50.0%로 응답자 연령대 분포가 가장 높음.

〈표 26〉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전문가	전체
응답건 수(건)	20	73	35	128
구성 비율(%)	15.6	57.0	27.3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응답자의 70% 가량이 문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비율도 45.6%에 달함.

〈표 27〉 설문조사 응답자의 경력

단위: %, 명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전문가	전체
2년미만	0.0	8.5	0.0	4.8
2-5년	10.0	36.6	11.8	25.6
5-10년	25.0	23.9	23.5	24.0
10-20년	50.0	19.7	29.4	27.2
20년이상	15.0	11.3	35.3	18.4
응답자 수	20	71	34	125

주: 128명 중 3명이 경력 항목을 누락하여 125명의 비중을 제시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의 성 비율은 여성 49.2%, 남성 50.8%로 거의 동일하게 분포. 다만 전문가 응답자의 성 비율은 여성 26.5%, 남성 73.5%로 남성에 다소 편중

## 2. 지표 적합성 결과를 반영한 최종 지표

### 2.1. 지역문화실태지표 개선안 적합성

- 지표 개선안 적합성 분석은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지표의 수정, 제외, 추가 등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를 ‘해당 지표의 수정·제외·추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 지표 개선안 적합성 판정과 문화산업 항목 선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에 동일하게 적용

#### □ 지표 개선안의 적합성 여부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개선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 응답자의 89.9%가 적합하다고 응답함.
  - 광역자치단체 공무원(100%)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및 산하기관 종사자(95.4%)의 대부분이 지표 개선안에 대해 적합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 집단은 지표 개선안의 적합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74.3%임.

〈표 28〉 지역문화실태지표 개선안의 분류체계 적합성 평가

단위: %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전문가	전체
적합	100.0	95.4	74.3	89.9
부적합	0.0	4.6	25.7	10.1
총계	100	100	100	1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지표 체계 개선안이 기존 지표 체계에 비해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비율은 10.1%이며, 부적합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지표 체계 논리 구조 관련] 지표체계의 논리 구성에서 투입(제도, 예산, 사업) 중 사업 지표를 투입 요소로 간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재고 필요
    - [분류 체계 관련] 대분류와 중분류 간 포괄성의 문제 및 동일 대분류 내 중분류들의 수준 동일성 여부 검토 필요
- \* 문화자원 대분류가 이를 구성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중분류를 개념적으로 모두 포괄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4개의 각 중분류가 서로 같은 수준으로 구성되었는가의 여부.

- [분류 체계 관련] '정책'은 큰 틀에서 지역문화의 안정적 발전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지, '자원'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인프라(시설, 기관, 산업, 인력 등), '활동'은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여부, '향유'는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문화적 기회 누림 등으로 범주화 필요
- [세부 지표 관련] 타 부문에 속하는 세부 지표 간 중복성 검토 필요
- [세부 지표 관련] 문화자원 대분류 내 문화산업에 대한 세부지표를 사업체와 종사자 수 외에도 매출액, 수출액 등 포함 고려 필요
- [지표 측정 관련] '건 수'로 측정하는 일부 지표를 '비율' 측정으로 전환하는 것 고려 필요
- [지표 측정 관련] 전체적으로 공정한 조사를 위해 '인구 대비' 지표로 조사하는 것 고려 필요

## □ 기존 지표 중 항목 제외 적합성

- 현행의 기존 지표 중 향후 개선안에서는 제외하고자 하는 7개 항목에 대한 제외 적합성 판단에 대해 조사 응답자 중 69.6%~86.3%가 제외하는 것을 적합하다고 판단
- 다만, 인구 대비 문화관련 예산액과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과 관련된 현행 지표의 제외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응답 비율이 응답자의 3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9〉 현행 지표 중 향후 제외하고자 하는 항목의 제외 적합성 평가

단위: %

제외 예정 항목	적합	부적합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2020년)	69.6	30.4
지역문화기금 설치 여부(2020년)	78.4	21.6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2020년)	69.6	30.4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2020년)*	75.0	25.0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일 수(2019년, 2020년)	79.0	21.0
공공 도서관 주당 평균 개방 시간(2019년, 2020년)	86.3	13.7
인구 만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2019년, 2020년)*	83.2	16.8

자료: 설문조사 결과.

## □ 기존 지표 수정 및 신규 지표 추가의 적합성

-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128명 중 각 수정이나 신규 추가가 대체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항목별로 최소 74.0%에서 최대 99.1%로 응답자의 비율이 나타남.
  - 일부 수정 및 신규 추가 사항이 적합하다는 응답 비율이 80% 미만인 지표 항목은 문화자원(대분류)의 문화유산(중분류)에 속하는 신규 추가 지표 항목임.
    - '[신규 추가]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문화보급·전수 시설 접근성(거리 및 시간)' 항목을 새로운 지표 체계에 신규로 추가하려는 사항에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74.0%로 나타남.
    - 전문가 집단의 경우 동 비율이 66.7%로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합성 평가 비율도 각각 70.0%와 78.6%로 나타남.
- \* 접근성 지표에 대한 소수의 비동의(非同意)는 주로 '농촌과 같이 관련 시설이 희소한 지역에서 접근성이 유의미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임. 이하 접근성 지표에 대한 비동의 내용은 동일.
- 이외에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생활문화시설로의 접근성, 문화산업 종사자수, 문화유산 활용단체 수, 공연시장 티켓 판매수, 생활문화동호회수에서 일부 부동의 의견이 있었음.

〈표 30〉 기존 지표의 수정 및 신규 지표 추가에 대한 적합성 평가

단위: %

대분류	중분류	현행 지표와의 관계[수정/추가]	수정/추가 적합판정비율(%)			
			광역	기초	전문가	전체
문화 정책	문화 예산	[추가] 1인당 생활문화 진흥 예산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생활문화동호회·단체지원, 민간공간지원 예산액의 합	90.0	85.5	85.3	86.2
문화 자원	문화 유산	[수정]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수 *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포함	85.0	91.4	88.2	89.5
		[수정] 문화유산보존·보급·전수 시설 수 * 박물관,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85.0	85.7	88.2	86.3
		[추가]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문화보급·전수 시설 접근성 * 거리 및 시간	70.0	78.6	66.7	74.0
		[추가] 문화예술활동건수 * 문학(행사/학술행사), 시각예술, 공연예술	95.0	90.1	91.2	91.2
	문화 예술	[수정] 문화·예술 시설 수 * 등록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미술관, 복합문화예술시설(문예회관), 문학관 등	100.0	88.6	94.1	91.9
		[추가]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 거리 및 시간	95.0	85.7	75.8	84.6
		[수정] 생활문화 시설 수 *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공공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평생학습관(센터), 지역자치센터 등	95.0	85.7	94.3	89.6
	생활 문화	[추가]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	100.0	94.3	88.6	93.6
		[추가] 거주지(500m 격자단위)로부터 생활문화시설로의 접근성(거리, 시간)	90.0	85.7	79.4	84.7

대분류	중분류	현행 지표와의 관계[수정/추가]	수정/추가 적합판정비율(%)			
			광역	기초	전문가	전체
	문화 산업	[추가] 문화산업 사업체수	80.0	80.3	91.4	83.3
		[추가] 문화산업 종사자수	80.0	77.5	91.4	81.7
문화 활동	활동 조직	[추가] 문화유산 활용단체 수	85.0	84.3	79.4	83.1
		*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한국문화유산협회 등 정부인가단체 회원사				
		[수정] 생활문화 진흥 조직 수	80.0	92.9	88.2	89.5
		* 지역문화진흥기관수, 문화재단·생활문화센터·지방문화원 등				
	활동 인력	[추가] 생활문화 진흥 담당업무 인력 수	100.0	100.0	96.8	99.1
문화 향유	문화·예술 경험	[추가] 문화유산 및 문예시설 방문객(이용객)수	90.0	90.0	94.3	91.2
		*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학관				
		[추가] 공연시장 티켓 판매수	90.0	77.5	82.9	81.0
		*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대중음악, 무용(서양/한국무용), 서커스/마술, 복합” 장르의 티켓 판매수				
	생활 문화 경험	[추가] 생활문화시설 연간 이용자 수	95.0	92.9	100.0	95.2
		*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등				
		[추가] 생활문화동호회수	75.0	84.3	94.3	85.6
		* 음악, 무용, 미술, 공예, 문학, 연극 등 장르별 생활문화동호회 현황				
	문화 소비 규모	[추가] 문화서비스 부문 신용카드지출액	90.0	82.9	88.6	85.6
		[추가] 문화관광부문 네비게이션 검색량	85.0	85.7	80.0	84.0

자료: 설문조사 결과.

## 2.2. 문화산업 선정 적합성 평가 결과

### □ 문화산업 항목과 하위 부문

- 2024년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반한 공식통계 문화산업 항목은 부재
  - 일반적으로 표준산업분류 외에 경제·사회적 변화와 정책적 고려를 통해 특정 산업의 특수분류체계(예: 콘텐츠 산업, 저작권산업 등)를 공표하기도 하지만 문화산업은 해당 항목이 작성·공표되고 있지 않음.
- 본 연구는 현행 ‘문화산업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 항목에서 문화산업을 도출함.
  - 총 96개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 항목을 문화산업 후보군으로 도출함(부록 참조).
  - 이를 문화산업의 가치체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문화산업의 ‘제조부문’,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공급유통 부문’(공급·배급·제공·유통 등), ‘소비유통 부문’, ‘인력 및 지원 부문’의 5개 하위 부문으로 구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에서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의미**

- 문화상품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함)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의미
- 문화산업 정의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문화산업이란 ‘①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②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③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④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⑥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애드벤처·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⑦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⑧ 대중문화예술산업, ⑨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⑩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련 산업은 제외), ⑪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두 이상이 혼합된 산업’을 의미함.

〈표 31〉 문화산업 하위 부문별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 수

단위: 개, %

문화산업 하위 부문 구분	산업 세세분류 항목 수 및 비중	
제조 부문	28	29.2
생산 부문(기획, 개발, 창작, 제작, 출판, 처리 등)	24	25.0
공급유통 부문(공급, 배급, 제공 유통 등)	11	11.5
소비유통 부문	21	21.9
인력 및 지원 부문	12	12.5
문화산업 전체	96	100.0

- 본 연구에서 문화산업으로 제시한 표준산업 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 96개 항목 중 적합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80% 미만인 항목 5개 도출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이 이에 해당
  - 적합판정 비율이 80% 이상일지라도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의 세 조사 응답 그룹 중 한 그룹 이상에서 적합판정율이 80% 미만인 결과가 나온 산업도 <표 32>와 같이 14개 항목으로 나타남.

□ 문화산업 항목 구성의 적합성 및 고려 사항

- 96개 산업 세세분류 항목 중 2개 항목은 적합판정율이 전체 응답자의 80% 미만이면서, 조사응답 세 집단 모두에서 적합판정율이 80% 미만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문화산업 분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이 이에 해당
- 이 외에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의 경우 적합판정율이 전체 응답자의 80% 미만인면서, 조사응답 세 집단 중 두 집단에서 적합판정율이 80% 미만으로 응답하여 문화산업 분류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외되지 않는 다른 유사 산업 항목과의 관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32〉 문화산업 구성 항목의 적합성 판정

표준산업 세세분류	산업 명칭	적합판정비율(%)			
		광역	기초	전문가	전체
18113	오프셋 인쇄업	75.0	89.1	90.0	86.8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70.0	89.1	83.3	84.2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80.0	84.4	76.7	81.6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75.0	82.8	76.7	79.8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75.0	85.9	73.3	80.7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70.0	82.8	73.3	78.1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75.0	92.2	79.3	85.8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70.0	89.1	82.8	84.1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75.0	90.6	86.2	86.7
27302	사진기, 영상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75.0	89.1	86.2	85.8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75.0	89.1	80.0	84.2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75.0	84.4	86.7	83.3
33910	<b>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b>	<b>70.0</b>	<b>79.7</b>	<b>76.7</b>	<b>77.2</b>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80.0	81.3	75.9	79.6
33931	<b>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b>	<b>60.0</b>	<b>71.9</b>	<b>60.7</b>	<b>67.0</b>
33932	전사용 모형 제조업	85.0	89.1	78.6	85.7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70.0	87.5	90.3	85.2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75.0	93.8	100	92.2
58121	신문 발행업	70.0	90.6	93.5	87.8

● 문화산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항목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연간 비교 자료인 2006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문화산업 사업체 수는 동 기간 130.7%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66.7% 증가하였음
- 문화산업의 제조 부문은 사업체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종사자 수는 대도시,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 지역에서 모두 다소간 감소하였음(-16.3%).
- 광역 시·도별로는 문화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경상북도에서만 종사자 수가 6.0% 감소하였음.
- 동 기간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성장을 가장 주도한 부문은 문화 관련 인력 및 지원 부문으로 나타남.

● 문화산업 분류시의 추가 고려 사항

- 제조업 관련 문화산업의 경우 너무 폭넓은 범위 설정에 대해 재고 필요. 텔레비전 제조와 같이 전자기기 제조업이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된 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타남. 따라서 일부 제조업 항목은 제외될 필요가 있음.
- 가치사슬에 따른 온라인 사업과 오프라인 사업의 영역 구분 필요
- 정부 승인통계인 콘텐츠산업특수분류에 대한 고려 필요

## 2.3. 전문가 조사 및 자료 검토를 통한 지표 선정 최종(안)

### □ 지표 체계에 대한 의견 검토

- 개선된 지역문화실태 지표 체계가 적합하다고 조사 대상자의 89.9%가 응답하여 개선한 지표 체계를 최종 채택

### □ 제외 및 수정·신규 항목에 대한 전문가·담당공무원 의견 검토

- 조사 결과 응답자의 최소 약 70% 이상은 제외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기존 지표 중 7개 항목을 제외
  - 기존 지역문화실태 지표의 법적, 내용적, 통계적 검토를 통해 문제 지표로 판단된 7개 지표는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지역문화기금 설치 여부,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일 수, 공공 도서관 주당 평균 개방 시간, 인구 만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임.
  - 이 중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 비율은 부적합 의견이 약 30% 정도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최종 제외하기로 함.
    - \* 첫째,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은 지표 문제점에서 기술하였듯이 인구수로 상대화하다보니 농촌 시군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파악되어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결과를 산출
    - \* 둘째,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 지표는 1절에서 언급하였듯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이라는 지표와 상관관계가 0.67로 중복성이 높아 제외해도 예산 측면을 충분히 설명 가능
    - \* 셋째,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당연한 방향이며 지역문화실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음. 제외 동의 비율이 높았던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도 같은 이유에서 제외

- 신규 지표도 대부분 80% 이상 동의 의견이 제시되어 최종 지표에 보완하여 추가함. 다만, 몇몇 지표에 대하여 부적합 비율이 10%~20%가량 나타나 재검토를 수행
  - 접근성 관련 지표는 공무원 그룹의 경우 80% 이상 동의도를 보였으나, 전문가 집단에서 비동의도가 20% 중반 정도 나타남. 비동의 이유를 검토해 보았을 때,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음. 이 지표의 목적이 문화실태, 특히 문화취약실태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임으로 대한 비동의 사유는 이 지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함. 이때 이동거리보다는 이동시간이 중요하여 이동시간을 지표로 사용함.
  - ‘문화산업 종사자 수’의 지표의 경우 기초 지자체 공무원 집단에서 22.5%가 비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91.4%로 높은 동의 의견을 제시함. 일반적으로 산업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체와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지표도 추가하기로 결정
  - 문화유산 활용단체 수의 경우 전문가 집단에서 20.6%의 비동의가 있었음. 비동의 사유 중 유무형 문화유산 보전 단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지표 구축 시에는 자치단체 내 문화유산 활용단체 수만 집계하도록 변경
  - 생활문화동호회 수의 경우 광역지자체의 공무원에서 25% 정도의 비동의로 나타났으나 명확한 사유가 부재함. 반면 전문가는 94.3%, 기초지자체는 84.3%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지표로 사용하도록 함.
- 그 외 ‘건 수’로 측정하는 지표를 ‘비율’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음. ‘비율’로 측정하려면 지표가 전체 중에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봐야 하는 성격을 지녀야 함.
  - 연구진 검토 결과, 문화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 관련한 지표가 위와 관련이 있어 전산업 대비 문화산업 사업체 수 비중, 전산업 대비 문화산업 종사자 수 비중으로 변경함.
  - 이렇게 전산업 대비 비중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산업 사업체 수와 문화산업 종사자 수의 지표로 했을 때 문화활동 부문 지표(조직과 인력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중복을 피할 수 있게 됨.
  - 또한, 지역일반현황 부문에서 문화소외계층 수 등도 시군구별 인구 대비 비중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인구 만 명당 문화소외계층 수로 변경
- 인구 대비로 상대화하여 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공정한 조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표 실태에서 보듯 상대화 지표로 생성하면 결과적으로 ‘불공정’해져 제외

#### □ 지역일반현황 지표에 대한 연구진 재검토 수행

- 지역일반현황 지표 중 지역발전지수를 부문별 지표가 아닌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의 지수가 종합된 지역발전지수로 대체
  - 지역일반현황은 크게 지역발전지수와 문화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법정 고려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초기 지역발전지수의 세부 하위 지수인 삶터 지수, 일터 지수, 공동체의 터 지수를 제시하고 쉼터 지수는 문화영역이 겹쳐 제외하는 것을 제안함.
  - 전문가 및 공무원 집단에서 해당 지수를 쓰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으나,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현황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역발전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연구진 의견이 종합됨. 따라서 일반현황 지표를 기존 3개(삶터 지수, 일터 지수, 공동체의 터 지수)에서 1개(종합지역발전 지수)로 변경함.

#### □ 담당 부처 의견반영

- 문화자원 중 문화유산보존·보급·전수시설을 기존 문화보급·전수시설로 유지를 요청받음에 따라 박물관을 제외하고 문화보급·전수시설로 대체함.
  - 박물관의 경우 전시시설로 간주하여 문화예술시설로 전환하고 집계하고 접근성 등을 산출

#### □ 지역문화실태 지표 최종(안) 및 구축 방안

- 최종 선정된 지역문화실태 지표는 총 45개 지표이며 각각 지표에 대한 개략적인 출처와 구축방안은 아래 표와 같음.
  - 각 지표의 상세한 구축 방안은 부록 5를 통하여 제시

〈표 33〉 지역문화실태 지표 최종 개선(안) 및 자료 구축 방법

신규 분류 체계(안) 대분류	연번	지표명	기존 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세부 조사항목	자료 출처	자료 구축 방법
문화 정책	문화제도	1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	○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문화 관련 조례 제정 건 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문화유산관련 제도: “문화유산” 키워드를 통해 검색 문화예술관련 제도: “문화예술” 키워드를 통해 검색 생활문화관련 제도: “생활문화” 키워드를 통해 검색 문화산업관련 제도: “문화산업” 키워드를 통해 검색
		2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	○	지방자치 단체	자치단체별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공무원) 비율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문화, 예술, 관광, 유산, 문화콘텐츠 등 유관 업 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원 대비 문화관련 행 정인력의 비율로 산출함.
		3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지방재정365 (www.lofin365.go.kr)	예산은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에서 조사년도 기준, 통합재정개요(예산) - 부문별 세출(총계, 당초) 내역을 기준으로 총 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을 파악 -문화관련예산은문화및관광(060)의세목가운데문화예술(061),문 화재(064)의합으로함(관광,체육제외)
	문화예산	4 전체 문화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비율	○	지방자치 단체	자치단체별 전체 문화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비율	지방재정365 (www.lofin365.go.kr)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문화재예산 및 지역문화 유산 예산 일부 정 보를 집계하여 입력함. -(문화재예산(064)+지역문화유산예산(061일부)X100)/지자체 문화관련예산총액(061+064)
		5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1건 당 평균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연도별 지역축제 정보	문체부 홈페이지의 ‘연도별 지역축제 정보’에 기재된 자치단체별 지 역축제 예산의 총합계를 지역축제수로 나누어 축제 1개당 평균예산 을 산출함. 마을축제외의 구분을 위해 시·군·구 등 지자체 전체 범위로 추진하 는 축제로 한정함.
		6 주민 1인당 생활문화 진흥 예산	신규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생활문화정책 관련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집하는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결과의 생활문화 진흥 관련 예산 총액을 기준년도 인구 수로 나누어 산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생활문화동호회·단체지원, 민간공간지 원 등 전체 예산 합)

신규 분류 체계(안)	신규 분류 체계(안)		연번	지표명	기존 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세부 조사항목	자료 출처	지표 구축 방법
	대분류	중분류							
문화 사업	문화 사업	일반 문화 사업	7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	○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과/부서에서 직접 계획 또는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을 지칭하며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시·군·구비와 국비, 도비가 매칭되고, 조사년도(1월1일~12월31일)에 착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함.
			8	전체 문화·예술 사업 중 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별 전체 문화·예술 사업 중 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문화관련 사업 중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없이 100% 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을 의미함. 조사년도(1월 1일~12월 31일)에 착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연속 사업은 제외함.
			9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	○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별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건 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본 지표에 입력하는 내용은 반드시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된 사업만을 입력하며 반복 개최된 경우 개최일을 모두 입력함. 이때 사업 건수의 계산 기준은 ‘사업명’ 단위임.
			10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	○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마을축제의 수를 입력
			11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	수행기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 배정액 대비 집행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조자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및 발급률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 하는 유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기존년도 기초자치단체 단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및 카드 발급률 등 제 자료를 구축하여 입력함.
			12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문화 프로그램 건 수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문화 프로그램 건 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지역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관련 문화사업을 바탕으로 입력함. ‘사업명-사업내용 및 세부프로그램-소관부서’
			13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문화 프로그램 건 수	○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문화 프로그램 건 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함. ‘사업명-사업내용 및 세부프로그램-소관부서’
			14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수	○	수행기관	자치단체 내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수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포함)	문화재청 ‘문화재 관리현황’	승인통계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현황”을 바탕으로 입력하고 일부 무형문화재의 경우 자치단체를 넘는 경우(자치단체 특정 불가)가 있어 해당 지자체가 특정불가 항목에 해당하면 중복해서 입력하도록 함. *예) 국가무형문화재인 ‘경기민요’의 경우 자치단체를 특정할 수 없기에 경기도에 해당하는 모든 시군에 중복집계
	문화 자원	문화유산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수					자료 입력시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등을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로 나누어 기입하여 향후 개별 특성을 살피볼 수 있도록 분류함.

신규 분류 체계(안)	신규 분류 체계(안)		연번	지표명	기존 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세부 조사항목	자료 출처	자료 구축 방법
	대분류	중분류							
문화예술			15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	○ (수정)	수행기관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 국악원, 전수교육관	국악원·국악연감 국립무형유산원·무형문화재전승지원통합플랫폼 '(https://support.nihc.go.kr/)	"국악원"은 국립국악원 본원 및 산하기관을 바탕으로 입력함. '전수교육관'은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문화재전승지원통합플랫폼에 기재된 전수교육관시설 목록을 바탕으로 입력함.
			16	문화보급·전수 시설 접근성	신규	수행기관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문화보급·전수 시설 접근성(이동시간)	GIS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접근성 분석 시스템 등)	'문화보급·전수시설 수' 지표에서 취합된 문화 보급, 전수 관련 시설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국토지리정보원 500m 격자지도를 활용, GIS 접근성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균 시설 접근거리 및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입력함.
			17	문화예술활동 건수	신규	수행기관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지역기반 활동 건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문화예술활동 현황조사)'	문화예술활동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공표되는 문예연감 중 전 채 편람 부문에 기재된 '시각예술', '공연예술' 부문 행사활동을 바탕으로 입력함.
			18	문화예술시설 수	○ 수정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문화예술시설 수: 등록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학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공연장현황' 영화진흥위원회 '전국극장조사'	등록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학관 등 6종 시설 수를 취합하여 집계함. '등록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등록공연장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함. '영화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극장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함.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학관'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함.
생활문화			19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신규	수행기관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문화예술시설 접근성(이동시간)	GIS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접근성 분석 시스템 등)	'문화예술시설 수' 지표에서 취합된 문화예술시설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국토지리정보원 500m 격자지도를 활용, GIS 접근성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균 시설 접근거리 및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입력함.
			20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	신규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기준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 중 생활문화센터 항목의 각 자치단체별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개)' 자료를 집계하여 입력함.



신규 분류 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연번	지표명	기존 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세부 조사항목	자료 출처	자료 구축 방법
문화유산	문화유산	문화유산	21	생활문화시설 수	○	수행기관 (일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별 생활문화시설 수: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생활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평생학습관(센터),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통계' 교육청 '평생교육통계' 각지방자치단체담당 공무원작성인력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지방문화원'은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함. '생활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의 자치단체별 '생활체육관'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청소년활동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청소년수련시설통계 현황 자료 중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청소년문화의집)', '특화시설'의 지역별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는 교육청에서 매년 공표하는 평생교육통계의 행정구역별 평생학습관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함. '주민자치센터'는 일원화된 통계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 각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마을회관) 현황을 집계하여 입력함.
			22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신규	수행기관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생활문화시설 접근성(이동시간)	GIS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접근성 분석 시스템 등)	'생활문화시설 수' 지표에서 취합된 생활문화시설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국토지리정보원 500m 격자지도를 활용, GIS 접근성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균 시설 접근거리 및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입력함.
			23	문화산업 사업체 수	신규	수행기관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문화산업 분야 사업체 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기존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 중 문화산업 세세분류에 해당 하는 사업체의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24	문화산업 종사자 수	신규	수행기관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 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기존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 중 문화산업 세세분류에 해당 하는 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25	문화유산 활용단체 수	신규	수행기관	자치단체 내 문화유산 활용 단체 수	(사)한국문화유산활용 단체연합회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의 회원단체를 자치단체별로 집계함.
문화활동	문화활동	문화활동	26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	수행기관	등록 문화예술법인, 단체 및 문화예술임의단체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임의단체 '자료에 공' artsdb.or.kr에서 제공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리포트' 자료에 공개된 법인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임의단체로 등록한 문화예술법인·단체 수를 합산하여 집계함. *개인사업자등은 제외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임의단체 시스템(http://www.artsdb.or.kr)에서 제공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리포트' 자료에 공개된 법인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임의단체로 등록한 문화예술법인·단체 수를 합산하여 집계함.
			27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수	○	수행기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및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업종 협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ocialenterprise.or.kr/) 협동조합포털(https://www.coop.go.kr/)	기존년도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및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수를 집계함.

신규 분류 체계(안)	연번	지표명	기존 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세부 조사항목	자료 출처	자료 구축 방법
대분류	중분류	생활 문화	○	수행기관	생활문화 진흥 조직 수: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량에 기재된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문화 유산	○	지방자치 단체	학예전문인력(정학예사, 준학예사, 지방학예사) 및 문화재관리인력 (관련 전담 또는 겸임)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의 정보 자료(해당 인력의 성명, 대분류, 소속, 직급, 최종임용일, 자격증번호 등)를 통해 집계함. *학예전문인력: 1·2·3급정학예사+준학예사+기타지방학예사 *문화재관리인력: 계약직, 별정직, 행정·기술직, 학예직, 기능직에 전담 또는 겸임으로 고용된 인력
활동 인력			○	지방자치 단체	자격 보유 문화관광해설사 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자치단체의 문화관광해설사 정보 자료(해당 인력의 성명, 거주지, 소속, 자격부여일 등)를 통해 집계함.
			○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등록예술인 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ist.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ist.kr)에 등록된 예술활동증명 DB를 활용, 기준년도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명단을 수집하여 집계함.
		문화 예술	○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자격 취득 문화예술교육사 수: 2급, 1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기준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등록된 문화예술교육사(누적) 수를 집계함.
			○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문예회관 500객석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량에서 제공하는 무대예술 전문인력이 고용된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의 객석 수,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단위에서 합산된 500객석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를 산출함.
			신규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본청 및 유관기관의 생활문화 진흥 업무 담당인력 수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하는 기준년도의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결과 중 '조직 및 인력' 항목에 기재된 '담당인력'의 수를 지역별로 집계하여 입력함.
생활 문화	34	생활문화 진흥 업무 담당인력 수	신규	수행기관			광역자치단체 집계시 본청 및 유관 기관데이터와 기초자치단체 데이터를 합하여 산출함.
	35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	수행기관	법정 사서 직원 수 대비 정규 사서 직원 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libsta.go.kr/)	정규사서직원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법정사서직원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의 도서관 면적, 총 장서 수 자료를 통해 1관당 법정 사서직원수를 계산함. 계산된 1관당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평균하여 법정사서직원 확보율을 산출함.

신규 분류 체계(안)	연번	지표명	기존 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세부 조사항목	자료 출처	지표 구축 방법
문화 향유	36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이용자 수	신규	수행기관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이용객(방문객, 참여자) 수: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화회관, 문화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박물관, 미술관: 연평균 이용자 수 문화회관: 총이용자수 지방문화원: 연간참여자수 문화관: 연간방문인원
		공연시장 티켓 판매수	신규	수행기관	자치단체 내 공연장 티켓 판매 수: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대중음악, 무용 (서양/한국무용), 서커스/마술, 복합 장르의 티켓판매수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 <a href="https://www.kopis.or.kr/">https://www.kopis.or.kr/</a>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통계-공연시설별 통계에서 제공하는 '공연장별 티켓 판매수' 자료를 활용, 기존년도 공연장별 티켓 판매수를 각 시설의 소재지별로 재분류하여 입력함.
	37	생활문화시설 이용자 수	신규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생활문화시설(공공도서관, 생생문화센터, 문화의집) 이용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기존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자료의 생활문화 관련 시설 방문 객, 이용자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생활문화센터: 연간이용자 수 문화의집: 연간이용자 수
문화소비 규모	38	생활문화 동호회 수	신규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생활문화 관련 활동 동호회 수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하는 기존년도의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 황 실태조사 결과 중 '동호회' 항목에 기재된 지역별 생활문화동호회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39	문화서비스 부문 이용카드 지출액	신규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문화서비스 부문 신용카드 지출액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 <a href="https://datalab.visitkorea.or.kr/">https://datalab.visitkorea.or.kr/</a> )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홈페이지의 '빅데 이터' 항목 중 '지역별 관광지출액'을 바탕으로 입력함.
	40	문화서비스 부문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신규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문화관광 부문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 <a href="https://datalab.visitkorea.or.kr/">https://datalab.visitkorea.or.kr/</a> )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홈페이지의 '빅데 이터' 항목 중 '지역별 검색 건수'를 바탕으로 입력함. 이때, 전체값이 아닌 '문화관광' 부문의 데이터만을 집계함.
문화소비 규모	41	문화서비스 부문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신규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문화관광 부문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 <a href="https://datalab.visitkorea.or.kr/">https://datalab.visitkorea.or.kr/</a> )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홈페이지의 '빅데 이터' 항목 중 '지역별 검색 건수'를 바탕으로 입력함. 이때, 전체값이 아닌 '문화관광' 부문의 데이터만을 집계함.

신규 분류 체계(안)	연번	지표명	기존 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세부 조사항목	자료 출처	자료 구축 방법
대분류 신규 분류 체계(안) 중분류 지역발전 수준 (일반현황)	42	지역발전지수	신규	수행기관	자치단체별 지역발전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발전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지역발전지수(RDI)의 지역별 원자료를 참조받아 입력함.
	43	인구 만 명당 문화소외계층 수	신규	수행기관	문화소외계층 수: 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시군구별 인구수: 통계청 인구총조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사업 시·군·구별 수급권자 현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간하는 '복지사업 시·군·구별 수급권자 현황'의 기준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별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와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이 수에 인구수를 나누고 10,000을 곱해 수를 산출
	44	도서·벽지지역 보유 수	신규	수행기관	도서·벽지 지역 해당여부 및 인정지역 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도서지역, 벽지지역 인정 개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45	폐광지역 해당 여부	신규	수행기관	폐광지역 해당 여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 <a href="https://www.motie.go.kr/">https://www.motie.go.kr/</a>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중, 가장 최근의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고시에 기재된 폐광지역진흥지구 보유 시·군·구를 1로, 나머지 시·군·구를 0으로 입력함.

### 3. 지역문화실태 지표 구축 및 분석

#### 3.1. 지역문화실태 지표 구축 및 기초통계량

##### □ 지표 구축

- 기존 2020년 지역문화지수와 비교하기 위해 지표 값은 되도록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
  - 기존 지역문화실태조사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는 2020년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값을 사용
  - 기존 지표 중 일부 수정이 지표는 원데이터를 확인하여 개선(안)에 맞추어 수정
  - 신규지표도 2020년 기준으로 맞추어 구축하였으나 일부 지표는 2020년에는 자료가 없어, 2023년 기준으로 작성(이는 향후 2023년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가용성을 탐색하기 위함임)
  - \* 문화정책 부문에서 주민 1인당 생활문화진흥 예산은 신규 지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했기에 2023년 기준임
  - \* 문화자원에서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수, 문화보급·전수시설, 문화예술시설은 2020년 기준으로 수정했고, 접근성 산출에 필요한 각 시설의 주소정보는 2023년 기준으로 구축(본 조사 시 사용 가능하도록 함).<sup>7)</sup> 문화예술활동건수, 문화산업사업체수, 문화산업종사자수는 2020년 기준으로 신규 구축함.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수는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해당 정보가 없어 2023년 자료로 구축함.
  - \* 문화활동에서 문화유산 활용 단체수는 현재 파악가능 한 회원사 수를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구축. 기존 인구 만 명당으로 구축했던 등록예술인수, 문화예술교육사 수 등은 2020년 기준 원자료로 입력. 생활문화 진흥 담당업무 인력 수도 2023년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했기에 2023년 기준임.
  - \* 문화향유 부문의 신규지표는 대부분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함.<sup>9)</sup> 다만, 생활문화동호회수 역시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했기에 2023년 기준임.
  - 지역발전지수는 2022년 지역발전지수를 보완하여 구축하였고, 문화소외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문화소외계 층수, 도서벽지 보유수, 폐광지역 유무도 2020년 기준으로 입력.
  - 기존 지역발전지수는 특·광역시와 자치구가 제외되어 구축된 자료이기에 지역문화실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자치구 값을 추가하여 입력하고 새로이 지수화함.

7) 문학관의 경우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없어 제외함. 생활문화시설 중 체육시설, 지역자치센터 등은 각 읍면동별로 모두 존재하여 차별성이 없어 접근성 분석 시에만 제외하고 분석함.

8)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 프로그램수는 자료 누락 시·군·구가 일부 있어 향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작성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9) 문화유산 및 문예시설 방문객 수 중 미술관의 일부가 연관람 인원 누락이 있었고, 문예회관 1개소(남양주)가 인원누락되어 2023년 자료로 입력. 2020년에는 문학관 정보가 없어 제외했으나 2023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는 값이 있어 향후 2023년 기준으로 는 입력이 가능

## □ 지표 기초통계량

〈표 34〉 지역문화실태 지표의 기초 통계량

신규 분류 체계(안)		연번	지표명	평균	최대	최소	0값 개수
대분류	중분류						
문화 정책	문화제도	1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	9.09	35	0	25
		2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	2.52	20.58	0.28	0
	문화예산	3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2.08	9.85	0.09	0
		4	전체 문화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비율	31.17	97.08	0	10
		5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282.58	3,528	0	143
		6	주민 1인당 생활문화 진흥 예산	298.70	9,554	0	119
	문화 사업	7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	6.21	50	0	53
		8	전체 문화·예술 사업 중 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56.22	100	0	37
		9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수	2.75	57	0	68
		10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	1.36	19	0	132
		11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90.93	99.84	50.63	0
		12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3.70	70	0	108
		13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1.40	23	0	134
문화 자원	문화유산	14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수	72.38	513	3	0
		15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	0.77	5.00	0	124
		16	문화보급·전수 시설 접근성	40.60	120.00	8.95	0
	문화예술	17	문화예술활동 건수	67.55	2,129	0	9
		18	문화예술시설 수	13.82	226.00	0	1
		19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22.05	82.47	4.23	0
	생활문화	20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	23.31	1,167	0	118
		21	생활문화시설 수	43.41	225	5	0
		22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18.42	55.48	2.65	0
	문화산업	23	문화산업 사업체 수	1,014.79	10,233	29	0
		24	문화산업 종사자 수	3,243.24	54,250	11	0
문화 활동	활동 조직	25	문화유산 활용단체 수	0.52	6	0	156
		26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6.09	78	0	43
		27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수	2.38	23	0	72
		28	생활문화 진흥 조직 수	3.97	19	0	5
	활동 인력	29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3.51	32	0	37
		30	문화관광해설사 수	13.13	96	0	47
		31	등록예술인 수	429.47	3,688	0	1
		32	문화예술교육사 수	94.14	607	0	1
		33	문예회관 500객석 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1.31	7.75	0	86
		34	생활문화 진흥 업무 담당인력 수	3.28	24	0	68
		35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18.88	52.36	0	2
		36	문화유산 및 문예시설 이용객 수	680,612	11,865,900	8,301	0
문화 향유	유산·예술 경험	37	공연시장 티켓 판매수	21,521	1,874,825	0	73
		38	생활문화시설 이용자 수	1,253,041	9,615,502	6,368	0
	생활문화 경험	39	생활문화 동호회 수	21.45	407	0	137
		40	문화서비스 부문 신용카드 지출액	971,005	22,996,438	0	5
	문화소비 규모	41	문화관광부문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186,123	1,189,728	4,659	0
지역 일반 현황	지역발전수준 (일반현황)	42	지역발전지수	30.06	50.16	15.48	0
		43	인구 만 명당 문화소외계층 수	589.89	1,193.73	184.85	0
	문화소외수준 (취약지역 선정지표)	44	도서·벽지지역(읍·면·동) 보유 수	3.04	46	0	120
		45	폐광지역 해당 여부	7 시·군			

## Chapter 5 지역문화지수 개선 및 구축

### 1. 현행 지역문화지수 및 문화활력지수 현황

#### 1.1. 지역문화지수, 문화활력지수의 개념 및 문제점

##### □ 지역문화지수의 개념 및 구축 방법

- 지역문화지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표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에서 지역 내외 문화여건(수준) 진단 및 상호 비교하기 위해 지수화함(문화체육관광부, 2022).
  - (수준 진단) 지역별 문화수준 및 문화발전 수준 진단
  - (성과평가) 표준화된 기준 지표를 활용하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의 문화정책 추진의 성과 및 효과 평가
  - (지원기준 마련) 지역문화 발전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별 인센티브 부여 판단기준 제시, 지역별 문화부분 불균형 극복 대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
  -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 전략 제시,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의 수립으로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 지역문화실태조사의 4개 대분류(지역문화정책, 지역문화자원, 지역문화활동, 지역문화향유)의 가중치와 대분류 하위 중분류의 가중치를 AHP 분석을 통해 산출
  - 원자료를 표준화시킨 값(Z-score<sup>10)</sup>)에 AHP 가중치를 곱하여 중분류별 지수를 산출하고 네 개 대분류 값을 모두 더해 '지역문화지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

10) Z-score는 표준점수(Standard score)라고 하기도 하며, 평균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구함. 측정치 X와 평균치(Mean)의 차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나눈 수임.

〈표 35〉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최종 가중치 도출 결과

대분류		중분류		최종 가중치 (A×B)
요 인	가중치(A)	요 인	가중치(B)	
지역문화정책	0.30123	정책사업	0.19306	0.05816
		정책환경	0.28046	0.08448
		정책예산	0.52648	0.15859
지역문화자원	0.20634	문화유산	0.17328	0.03575
		기반시설	0.35858	0.07399
		자원활용	0.46814	0.09659
지역문화활동	0.46814	활동조직	0.43421	0.11086
		활동인력	0.56579	0.14446
지역문화향유	0.56579	지역주민	0.71785	0.17021
		소외계층	0.25532	0.06990
총 합	1.00000	총합	4.00000	1.00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 □ 문화활력지수 개념 및 구축 방법

-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
  - 이에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활력지수를 개발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시·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환경 취약지역 선정을 위해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주요 지표로 개발한 지역문화지수와 별개로 관련 연구(정우식 외, 2020)를 활용하여 문화활력지수 개발
  - 문화활력지수를 활용하여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 추진
  - \* 2022년부터 문화로 지역 활력을 촉진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 2022년에는 영덕군, 청송군, 울릉군, 함양군, 신안군, 해남군 6곳이 선정되어 사업비로 최대 16억원 투입. 2023년에는 강원 횡성, 경북 군위, 경북 영양, 전남 강진, 전남 고흥, 전북 장수, 전북 무주, 충남 논산, 강원 삼척, 경남 산청, 경북 청도, 전남 곡성, 전남 화순, 충북 옥천 등 14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
- 문화활력지수의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환경 취약지역 선정을 위해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주요 지표로 작성한 지역문화지표와 별개로 관련 연구(정우식 외, 2020)를 활용하여 문화활력지표 작성
  - 직접적인 문화지표 외에도 지역여건 분석을 위해 연평균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와 같은 일반지표를 포함
  - 핵심적인 문화지표로는 인구 만 명당 지역문화진흥기관 종사자 수, 문화 SOC 접근성,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 비율이 포함된 4개 지표 구축

〈표 36〉 문화활력지수 지표구성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지표 설명	자료출처
문화 지표	문화 정책	인구 만 명당 지역문화진흥기관 종사자 수 (면적 대비)	각 시·군·구 기초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의 합을 인구 만 명당으로 나눈 후, 면적으로 나눈 값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9 주민등록인구수 행정구역: 2019년 도시계획현황(Kosis)
	문화 자원	문화SOC 접근성 (km)	각 시·군·구별 영화관, 공연문화시설, 공공도서관 최단거리(도로망 기준)의 평균값 - 영화관: 사설 영화관(독립영화관 포함) - 공연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 공공도서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영화관: 2019 전국 극장조사(영화진흥위원회) 공공도서관 및 공연 문화시설: 국토정보 플랫폼 국토정보맵
	문화 활동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따라 활동증명을 완료한 등록예술인으로 각 시·군·구에서 활동하는 현장예술인 수	2020년 문체부 자료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
	문화 향유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 비율	각 시·군·구 인구 대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 수 -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	2020년 문체부 자료 (통합문화이용권) 2020 주민등록인구수
일반 지표	인구	연평균인구증감률 (1975~2015)	각 시·군·구별 연평균 인구 증감 비율 $((\text{해당년}/\text{기준년})^{(1/(\text{기간}-1))}-1) \times 100$	균형발전위원회 균형 발전지표
	재정	재정자립도 (2017~2019)	각 시·군·구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일반회계 세입)×100	지방재정 365: 결산기준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자료: 정우식 외(2020).

- 문화활력지수는 지표 가중치에 지표의 표준화 값을 곱하여 지수값 산출
  - 가중치는 AHP를 통해 산출하였고, 6개 지표를 Z-score를 통해 표준화한 뒤 가중 합산함
  - 문화SOC접근성 및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대상자 비율은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부호 값을 바꾸어 역으로 산출

〈표 37〉 문화활력지수의 AHP를 통한 가중치 산출 내역

AHP 조사 결과 가중치				
대분류		중분류		최종 가중치 (A×B)
요인	가중치(A)	요인	가중치(B)	
문화지표	0.721	문화정책	0.216	0.156
		문화자원	0.432	0.311
		문화활동	0.165	0.119
		문화향유	0.188	0.135
일반지표	0.279	인구	0.460	0.128
		재정	0.540	0.150
총합	1.000	총합		1.000

자료: 정우식 외(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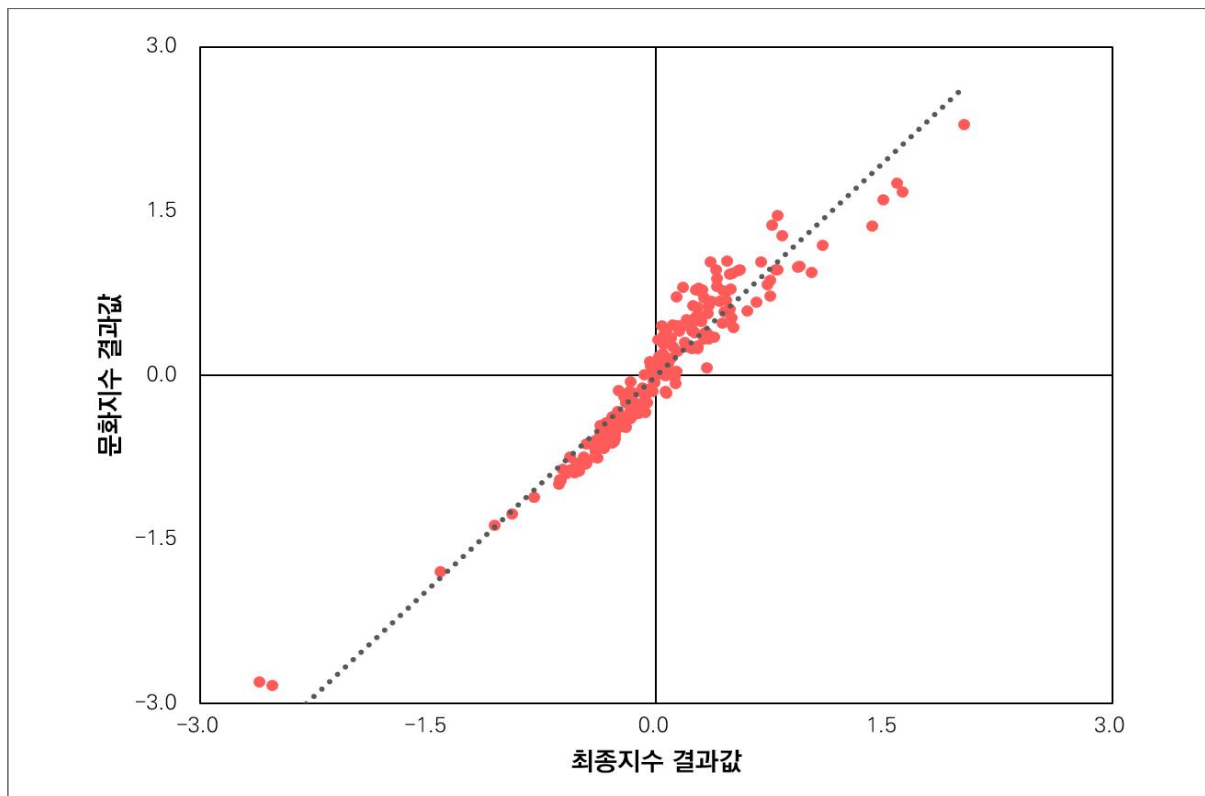
## □ 지역문화지수와 문화활력지수 차이점 및 문제점

- 지역문화지수와 문화활력지수는 지역의 문화 실태를 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은 같지만, 각각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차이가 있음.
  - 지역문화지수는 지역의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공급적인 측면의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구성된 지수임.
    - \* 수요 측면의 실태를 함께 보여주기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향수실태조사(‘19년 이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개명)를 통한 문화균형지수(Cultural Equilibrium Index)의 개념을 도입한 시범 연구를 추진함. 하지만 문화균형지수는 분석 결과가 광역지자체 단위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원책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발생(정우식 외 2020)
  - 문화활력지수는 지역문화지수의 카테고리에 더해 지역의 일반적인 여건을 포함하고 세부 부문별로 대표지표만 사용하여 간명하게 구성된 지표임.
  - 활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문화지수는 지역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문화활력지수는 지역의 문화실태를 파악하여 문화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음.
    - \* 지역문화지수는 지역이 가진 기본적인 낙후 및 쇠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지역의 기초 환경과 문화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한계

## □ 문화활력지수의 문제점

- 앞선 분석 결과는 1) 대도시 접근성과 시설·인적 자원 여부에 따라, 지역 규모별로 문화활력지수가 극명하게 구분되며, 2) 이는 문화SOC 접근성 등 문화부문 특정 지표에 가중치가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보여줌.
  - 앞서 살펴본 문화활력지수 순위, 지역 유형별 지수 특성 등은 주요 문화SOC와의 접근성이 높고 인구 규모가 커 문화진흥기관을 보유할 확률이 높은 대도시의 문화 여건이 우수하게 평가되는 경향을 나타내며, 해당 지역의 최종 순위도 높게 측정되고 있음.
- 실제로 문화활력지수의 문화지수와, 여기에 일반지수를 합한 전체 종합지수(최종지수)는 <그림 8>과 같이 높은 수준의 정비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일반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일반지수는 최종 문화활력지수 결과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지역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일반지표와의 복합 운영의 의의가 크게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8> 기초자치단체별 문화활력지수 중 문화지수 결과값-최종지수 결과값 상관관계도



자료: 정우식 외(2020)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문화부문 지표의 지역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4개 지표를 포함하는 문화지표의 가중치가 2개 지표만을 포함하는 일반지표의 가중치보다 크게 부여되어 있어, 일반지표(지역발전 지표)가 최종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낮음.
- 지역의 여건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지표의 수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중치 또한 지역별 편차가 큰 SOC접근성 지표 등에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어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이 문화취약지역으로 직결되고 있음.

〈표 38〉 문화활력지수 지표별, 부문별 가중치 현황

부문	문화지표 (문화지수 산출)				일반지표 (일반지수 산출)	
지표	면적대비 지역문화 진흥기관 종사자 수	문화 SOC 접근성	1만명 당 등록예술인 수	통합문화 이용권 발급대상자 비율	연평균 인구증감률 (‘75~’15)	재정자립도 (‘17~’19)
가중치	0.156	0.311	0.119	0.135	0.128	0.150
	0.721				0.279	

자료: 정우식 외(2020)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종합적으로, 현행 문화활력지수 산출 체계에서는 문화지수가 낮은 지역이 문화취약지역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약지역은 가중치가 높게 부여된 문화SOC 접근성, 지역문화진흥기관 종사자 수 등 문화부문 특정 지표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임.
- 지표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 특정 지표에 과도한 가중치가 부여되고, 지역발전 수준과 연관된 일반지표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차와 낮은 가중치로 인해 최종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문화진흥기관을 보유할 확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문화활력지수가 가장 높게,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도시·농촌 지역의 문화활력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문화활력지수 체계는 지수 운영의 본질적 목적인 ‘지역의 종합적 발전 수준 대비 문화환경 취약지역 선별’을 유의미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2. 지역문화지수의 개선 방향 및 구축

### 2.1. 지역문화지수 개선 방향

□ 특정 지표의 과도한 영향력 개선,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단체의 문화정책·문화향유 영역 저평가 해소, 일부 자치단체의 급격한 순위변동을 제어하기 위한 지표체계 재구성 필요

- 2020년 기준 지역문화지수 상위지역에는 2017년 조사 대비 순위가 급등한 지역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대도시 내 자치단체보다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이처럼 지역문화지수 평균값과 순위는 대체로 인구 규모에 정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역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별·광역시 내 자치단체, 특히 비수도권 특별·광역시 내 자치단체의 지수 평균값이 다른 지역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낮은 득점은 특히 문화정책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음.
- 지역문화지수를 구성하는 영역 중 문화향유, 문화정책 부문은 순위 급등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문화향유 영역의 결과값 변동은 자치단체의 순위 급등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수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치단체의 문화정책 개선 노력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위험이 있음.
  - 문화향유, 문화정책 부문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입력하는 정책, 예산 관련 지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으로 인한 지자체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 경북 예천군 32건 vs. 대전 중구 0건
- \*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경기 연천군 100% vs. 경남 진주시 0%
- \*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 수: 경북 성주군 3.46건 vs. 경기 고양시 0.01건
- 특정 부문·지표의 과도한 편차와 영향력은 대도시 내 자치단체, 특히 특별·광역시 내 구·군 지역이 인접 자치단체에서 문화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사업 자치권,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한 저평가를 유발할 수 있음.

- 반대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정책 주도권과 재정자립도, 독립성이 높은 비수도권 거점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현재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체 사업 및 인력, 예산만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속 광역자치단체와 연계성이 특히 높은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입력하나 판단 기준이 모호한 일부 지표들을 지수 산출 체계에서 제외하거나 조사 방식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함을 다시 확인함.
  - 특별·광역시의 정책사업 및 예산, 인력 등이 산하 자치단체의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 이에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선한 지표체계와 수집 방식 제시로 위의 문제를 완화함.

#### □ 지수 결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표 정규화 방식 개선

- Z-score를 활용한 표준화 점수는 [수식 1]과 같이 개별 데이터 값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편차로 나눈 통계값임.
  - 현재 229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행정시 포함)의 특정 지표에 대한 평균이 0으로 산출되므로 어떤 지역의 표준화 점수 값이 음수(-)를 보이면 해당 지역은 특정 지표에 있어 전체 지역 평균 이하의 수준을, 양수(+)를 보이면 평균 이상의 상태임을 나타냄.
  - 이러한 방법은 지역문화실태조사의 각 개별 지표마다 각 지역(시·군·구)이 지역 평균 값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전체 지역 중 특정 지역의 순위가 어떤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음.

[수식 1]

$$Z_{ij} = \frac{X_{ij} - \overline{X}_j}{s_j}$$

$Z_{ij}$  =  $i$ 지역  $j$ 지표의 표준화 점수

$X_{ij}$  =  $i$ 지역  $j$ 지표 값

$\overline{X}_j$  =  $j$ 지표의 평균 값

$s_j$  =  $j$ 지표의 표준편차

- 그러나 현재 지역문화지수와 문화활력지수 산출에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 점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 점에서 객관성·정확성에 문제가 있음.
  - 첫째, 표준화 점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수화 대상인 개별 지표의 통계 값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함.
  - 둘째, 지수화 대상인 각 지표의 표준화 범위가 동일해야 함.
- 즉, 현행 지역문화지수와 문화활력지수의 표준화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 Z-score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표준화 점수 방법 적용의 두 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각 지수의 개별 지표들의 속성이 정규분포를 이루거나 표준화 범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최종 지수 산출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 더불어 양수 값과 음수값이 상쇄하여 정확한 특성을 파악할 수 없게하고, 가중치에 의해 특정 양수 값 혹은 특정 음수 값이 강하게 작용해 다른 지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함.
- 이에 연구에서는 선형척도변환을 통해 지표를 정규화하는 방법을 제안
  - 선형척도변환(Linear Scale Transformation)을 통한 정규화는 앞서 언급한 표준화 점수법의 2대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표를 활용한 지수 도출 방법으로 적합함.
  - 선형척도변환은 서로 다른 평가척도(예: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여 얻은 1차 결과 값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재척도화(rescaling) 하는 방법의 하나임. 즉 주어진 동일 공간상에 존재하는 값들을 최대 값과 최소 값과의 선형 치환 관계의 거리로 치환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선형 변환은 적용이 간편하고, 지표가 가진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지수 합산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표준화의 원 값 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는 지수 값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음.
  - OECD BLI의 경우도 지표별로 상이한 단위로 인한 편의(bias)를 보정하기 위해 최대-최소 방식으로 표준화하고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음.<sup>11)</sup>
  - 선형척도변환에 의한 지수는[수식 2]와 같이 시·군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기준으로 모든 시·군의 지수값이 0~1 사이에 분포하기 때문에 개별 지표별로 각 시·군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기에 유리함.
    - \* [수식 2]의 (1)은 값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지표에 사용하는 방식이고, [수식 2]의 (2)는 값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지표에 사용하는 방식
    - \*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지표에서는 접근성에 관련한 3개 지표만 [수식 2]의 (2)의 방식을 사용

11) OECD는 BLI 지표를 표준화하고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는 지수화 과정을 개별 연구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

-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이 혼재하는 개별 지표의 표준화 점수를 서로 사칙연산을 통해 도출하는 재척도화 값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선형척도변환 지수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음.

[수식 2]

$$\hat{X}_{ij} = \frac{X_{ij} - X_{j\min}}{X_{j\max} - X_{j\min}} \dots\dots(1) \quad \hat{X}_{ij} = \frac{X_{j\min} - X_{ij}}{X_{j\max} - X_{j\min}} \dots\dots(2)$$

$\hat{X}_{ij}$  =  $i$ 지역  $j$ 지표의 선형척도변환 지수

$X_{ij}$  =  $i$ 지역의  $j$ 지표 값

$X_{j\max}$  =  $j$ 지표의 최대값

$X_{j\min}$  =  $j$ 지표의 최소값

#### □ 개선된 지표로 지수를 생성하기 위한 가중치 개선

- 기존 지역문화지수의 가중치는 새롭게 개편된 지표 중분류의 가중치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해 신규 가중치 산출이 필요함.
  - 또한 문화활력지수는 문화부문 4개 지표, 일반부문 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개선 지표체계와 불일치
  - 더불어 문화활력지수는 지역 특성의 다각적 측정을 위한 절대적인 지표 수가 부족하고,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가 문화부문, 특히 SOC 접근성 지표에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음.
- 따라서,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의 AHP 조사를 신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되, 주요 부문, 지표의 실질적 영향력을 현장 공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 의견 수렴, 현장 방문조사 등에 근거하여 신뢰성을 담보함.



## □ 법적 근거를 가진 실질적 문화취약지역 발굴 방안 마련

- 지역문화지수는 지표 구성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문화취약지역 발굴에 적합하지 못한 실정임.
- 또한, 문화활력지수도 미흡한 지역발전 수준 대비 열악한 문화여건을 갖춘 지역을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발전 수준 대비 우수한 문화여건을 갖춘 지역 등을 추려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기존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를 가공하여 분리·운영하고 있는 문화활력지수를 지역문화지수와 통합하고, 유명무실한 일반지표(지역발전지표)를 강화하며, 지역발전 수준과 지역 문화환경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지표·부문별 가중치 및 연계체계를 재구성함.
  - 지역문화지수와 결합하여 문화취약지역 및 문화우수지역을 발굴할 수 있는 지역발전 측정용 지수체계를 확대해야 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역발전수준을 다각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운영하고 있는 ‘지역발전지수’를 이러한 지역발전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취약지역 관련 기준을 지표로 활용하여 법·제도 도입 의미를 부각할 필요도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2.2. 새로운 지역문화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산정

### □ 부문 간 신규 가중치 산정

- 부문별 지표를 합산하여 지수화 하기 위한 가중치를 전문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함.
- 전문가 35명, 공무원 93명 등 총 128명이 응답했고, 이중 CR(Consistency Ratio) 값이 0.1 이하로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한 응답 결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각 지표(대분류 및 중분류)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함(각각의 부문별 중요도에 대한 내용은 부록3을 참고).
- 대분류 지표들 간, 네 가지 대분류 하의 중분류 지표들 간 쌍대 비교하는 응답 결과 중 CR 값이 0.1을 초과하여 쌍대 비교에 있어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응답을 제외하고 가중치를 산출함.
  -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 대분류 지표의 가중치 도출을 위해서는 CR값이 0.1이하인 48명(전문가 15명, 공무원 33명)의 응답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함.
  - 문화정책 대분류 하의 문화제도, 문화예산, 문화사업 등 3개 중분류 지표의 가중치 도출을 위해서는 CR값이 0.1이하인 53명(전문가 13명, 공무원 40명)의 응답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함.
  - 문화자원 대분류 하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 4개 중분류 지표의 가중치 도출을 위해서는 CR값이 0.1이하인 49명(전문가 15명, 공무원 34명)의 응답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함.
  - 문화활동 대분류 하의 활동조직, 활동인력 등 2개 중분류 지표의 가중치 도출을 위해서는 전체 128명의 응답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함(쌍대 비교가 한 쌍 뿐이므로 논리적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문화향유 대분류 하의 유산예술, 생활문화, 문화소비 등 3개 중분류 지표의 가중치 도출을 위해서는 CR값이 0.1이하인 53명(전문가 16명, 공무원 37명)의 응답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함.
- 전문가·공무원 AHP조사를 통해 산출한 가중치 결과는 <표 39>와 같음.
  - 대분류 수준 지표 간 비교에서는 문화정책(0.290), 문화향유(0.270), 문화활동(0.242), 문화자원(0.198) 순으로 중요도가 높음.
  - 문화정책 하의 중분류 지표 간 비교에서는 문화예산(0.393), 문화제도(0.311), 문화사업(0.296) 순으로 중요도가 높음.
  - 문화향유 하의 중분류 지표 간 비교에서는 생활문화 경험(0.368), 유산·예술 경험(0.347), 문화소비 경험(0.285) 순으로 중요도가 높음.

- 문화활동 하의 중분류 지표 간 비교에서는 인력(0.583), 조직(0.417) 순으로 중요도가 높음.
- 문화자원 하의 중분류 지표 간 비교에서는 문화예술(0.293), 생활문화(0.280), 문화산업(0.220), 문화유산(0.207) 순으로 중요도가 높음.

〈표 39〉 전문가·공무원 AHP조사를 통한 가중치(대분류·중분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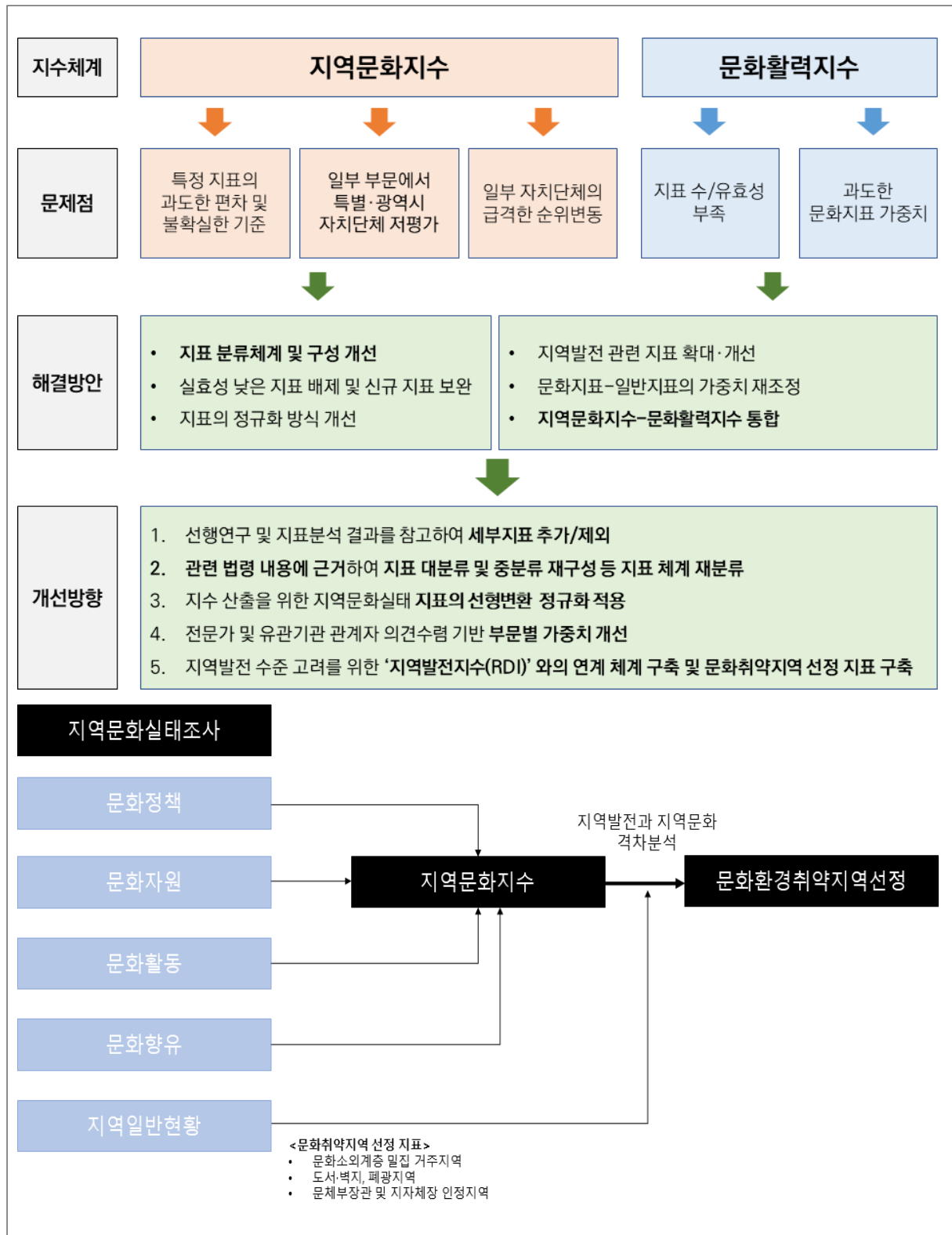
대분류	1계층 (대분류)		중분류	2계층 (중분류)		1계층 * 2계층	
	가중치	순위		가중치	순위	가중치	순위
문화정책	0.290	1	문화제도	0.311	2	0.090	6
			문화예산	0.393	1	0.114	2
			문화사업	0.296	3	0.086	7
문화자원	0.198	4	문화유산	0.207	4	0.041	12
			문화예술	0.293	1	0.058	9
			생활문화	0.280	2	0.055	10
			문화산업	0.220	3	0.043	11
문화활동	0.242	3	조직	0.417	2	0.101	3
			인력	0.583	1	0.141	1
문화향유	0.270	2	유산·예술 경험	0.347	2	0.094	5
			생활문화 경험	0.368	1	0.099	4
			문화소비 경험	0.285	3	0.077	8

자료: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대분류(1계층) 수준 가중치와 중분류(2계층) 수준 가중치를 함께 고려한 1계층 \* 2계층 가중치의 경우, 인력(‘문화활동’ 대분류)이 0.141, 문화예산(‘문화정책’ 대분류) 0.114, 조직(‘문화활동’ 대분류) 0.101, 생활문화 경험(‘문화향유’ 대분류) 0.099, 유산·예술 경험(‘문화향유’ 대분류) 0.094 등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로 산출됨.
- 대분류(1계층) 수준에서 가장 낮은 가중치(0.198)를 받은 영향으로, 문화유산(‘문화자원’ 대분류) 0.041, 문화산업(‘문화자원’ 대분류) 0.043, 생활문화(‘문화자원’ 대분류) 0.055, 문화예술(‘문화자원’ 대분류) 0.058 등 문화자원에 속하는 중분류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가중치가 낮게 산출됨.

## □ 종합: 현행 체계 문제점 개선 및 지역문화지수 개발을 위한 방향성

〈그림 9〉 지역문화지수 개선 방향



자료: 저자 작성.

## Chapter 6 지역문화지수 분석 및 문화취약지역 선정

### 1. 지역문화지수 구축 결과

#### 1.1. 지역문화지수 특성 및 분포

##### □ 부문별 지역문화지수의 특성

- 문화정책 부문 지수는 다른 영역의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지자체별로 문화정책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문화정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 값을 보이는 지역은 비수도권 거점도시, 수도권 시, 비수도권 중소도시로 나타났음<표 40>.
  - 지자체 인구 규모로 보면 덩치가 큰 지자체 일수록 투입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다만, 문화정책 부문을 구성하는 지표들이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입력했던 내용이 많아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함.
- 문화자원 부문 지수는 수도권, 광역시, 충청권, 동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 분포를 보임.
  - 문화정책 부문 지수와는 달리 문화자원이 많고 다양한 수도권 구, 수도권 시, 비수도권 광역시의 구 순으로 문화자원 역량이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현행 지역문화지수에서는 수도권 구, 수도권 시, 비수도권 광역시의 구 등 규모가 크고 문화자원이 많은 지역이 낮은 지수 분포를 보이고 있어 개선된 지수가 지역을 설명하는데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문화활동 부문 지수도 문화자원 지수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특징적인 점은 수도권 시나 비수도권 광역시의 구 보다 비수도권의 거점도시가 더 큰 지수값을 보인다는 점임.
  - 이는 문화 활동이 많다고 알려진 원주, 청주, 경주 같은 비수도권 거점도시에서 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향유 부문 지수에서는 수도권 시, 비수도권 거점도시, 수도권 구 등으로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지역의 규모가 크고, 수도권에 있을수록 문화향유 기회가 많다고 이해됨. 반면, 현행 지수의 문화향유는 수도권 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한 경향임.
- 결론적으로 신규 및 기존 지수의 지역유형별-대분류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구 지역의 과도한 저평가, 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과잉 평가가 보정된 모습을 보임.
  - 기존 지수체계에서는 문화자원, 문화향유 등 지역의 인구 규모와 상관성이 높은 부문에서 소도시 및 농촌 지역이 특별·광역시 지역보다 높은 결과값을 보였으나, 신규 지수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대부분 개선됨.
  - 기존 지수에서는 문화활동 부문의 지역유형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신규 지수에서는 문화향유 부문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40〉 지역유형별 현행(기준) 지역문화지수 대비 신규 지역문화지수 대분류별 결과값 비교

유형	구분	신규 지역문화지수				현행 지역문화지수			
		문화 정책	문화 자원	문화 활동	문화 향유	문화 정책	문화 자원	문화 활동	문화 향유
자치 단체 유형	수도권 구	15.30	39.32	20.42	13.06	-0.092	-0.030	0.137	-0.034
	수도권 시	22.03	35.29	17.34	14.21	0.021	-0.007	0.021	0.002
	비수도권 광역시의 구, 군	16.49	31.48	15.59	5.44	-0.099	-0.029	0.008	-0.013
	비수도권 거점도시	22.78	30.06	21.00	13.64	0.066	0.024	0.151	0.015
	비수도권 중소도시	21.24	25.40	13.72	4.96	0.022	0.030	-0.045	0.025
	소도시 및 농촌	20.06	19.38	9.95	2.47	0.052	0.012	-0.099	0.008
인구 규모	100만 이상	28.31	40.65	28.60	33.08	0.028	0.106	0.279	-0.064
	50만 이상-100만 미만	23.51	36.08	23.29	19.34	0.050	-0.008	0.144	0.069
	30만 이상-50만 미만	15.59	36.36	18.99	9.22	-0.094	-0.017	0.079	-0.034
	20만 이상-30만 미만	19.30	32.00	16.73	8.59	-0.017	-0.029	0.036	0.003
	10만 이상-20만 미만	19.49	28.66	13.98	6.50	-0.023	0.015	-0.008	0.003
	5만 이상-10만 미만	20.92	22.00	11.31	3.39	0.053	0.011	-0.070	0.014
	5만 미만	18.85	18.80	9.32	1.95	0.037	0.006	-0.109	-0.008
농촌 시군 유형*	도시	17.23	35.20	17.83	10.13	-0.065	-0.023	0.076	-0.005
	근교 농촌	20.93	27.51	16.74	9.93	-0.006	-0.006	0.005	-0.024
	일반 농촌	21.15	24.22	13.07	5.46	0.047	0.011	-0.037	0.019
	원격·도서 농촌	19.82	18.68	9.78	2.35	0.063	0.034	-0.117	-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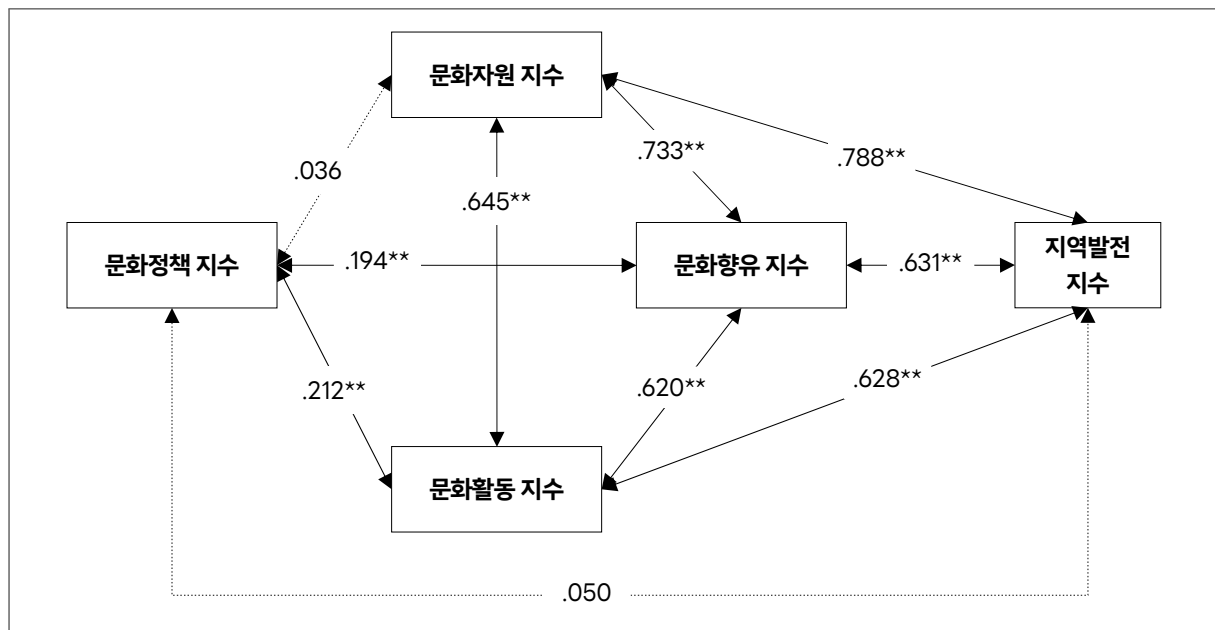
주: 농촌 시군 유형(근교, 일반, 원격·도서)은 송미령 외(2020)의 기준을 준용함. 도시 지역은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 지역과 도농복합시가 아닌 일반시로 구성되며, 농촌 지역은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으로 구성됨.

자료: 지역문화실태조사 원자료 및 신규 지표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1.3. 지역문화지수와 지역발전지수 비교

- 지역문화와 지역발전 간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지역문화지수와 지역발전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약 0.70으로 나타남.
  - 즉,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보았듯 지역문화가 융성하면 지역발전이 발전하거나, 지역이 발전하면 지역문화가 성장하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남.
- 지역문화지수의 부문별 지수, 지역발전지수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 문화정책을 통해 문화활동, 문화향유를 높일 수 있음. 다만, 문화유산과 같은 문화자원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 정책을 통해 문화자원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문화정책과 문화자원은 미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 문화자원은 문화활동과 문화향유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고, 문화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문화향유도 높은 경향으로 나타남.
  -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정도가 높을수록 지역발전 정도도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문화정책은 영향을 직접 주지는 못하지만, 문화활동과 문화향유를 증진시킬 수 있기에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림 10〉 부문별 지수와 지역발전지수와의 상관관계도





## 2. 문화취약지역 선정

### 2.1. 지역문화와 지역발전을 고려한 문화취약지역 선정

#### □ 결과 종합

- 객관적, 정량적 지표가 중심이 되는 신규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에 기초한 지역문화지수 산출 결과는 대체로 지역의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현행) 지역문화지수에 나타났던 광역시 소속 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여건 저평가, 일부 소도시 및 농촌 자치단체의 순위 왜곡 등 문제점이 대체로 개선됨.
- 정량적 지표 기반 지수의 한계로 나타나는 지역 인구규모와 결과값의 비례 현상은 신규 도입한 ‘지역발전 지수’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수준 대비 지역문화수준을 재분석함으로써 상쇄되고 있음.
- 지역문화지수와 지역발전지수의 통합 분석을 통해 종합우수지역, 문화특화지역, 문화취약지역, 종합취약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의 문화수준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소도시 및 농촌 자치단체는 불리한 접근성, 낮은 경제력, 부족한 인구규모 등으로 인해 지역문화지수 자체는 낮게 나타났으나, 지역발전수준 대비 지역문화수준을 평가한 ‘문화특화 수준’은 대도시 지역보다 높았음.
- 대도시 및 거점도시 지역은 객관적, 정량적 지표에 기초한 ‘지역문화지수’에서 우세한 경향을 보이며, 중 소도시 및 농촌 지역은 지역발전수준 대비 지역문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1〉 지역 유형별 지역문화지수, 지역발전지수 특성

유형	구분	지역문화지수 평균 순위	지역발전지수 평균 순위	종합순위 평균 순위
자치 단체 유형	수도권 구	60.9	57.2	59.1
	수도권 시	63.4	54.6	59.0
	비수도권 광역시	110.3	87.4	98.9
	비수도권 거점도시	58.0	63.3	60.6
	비수도권 중소도시	121.1	132.8	127.0
	소도시 및 농촌	171.1	182.4	176.7

자료: 저자 작성.

## 2.2. 문화취약지역 선정 방안

### □ 지역문화-지역발전-취약지역을 고려한 문화취약지역선정

- 지역문화지수를 통해 나타난 지역별 문화격차 수준, 지역발전지수를 통한 지역발전 격차 수준과 법에서 언급하는 문화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기준 지표와의 결합 방식을 제시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 근거를 제시
  - 지역발전수준이 낮은 곳이 자구적인 방법으로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데 더 힘들기에 지역발전정도를 배려하고 취약지역지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 취약지역지수는 지역일반현황 부문에서 문화취약지역 선정에 관련한 3가지 지표인 “인구 만 명당 문화소외계층 수, 도서벽지지역보유수, 폐광지역”을 선형변환 방식으로 정규화하고 동일가중치로 합산한 값을 의미
- 지역문화지수, 지역발전지수, 취약지역지수 등 3가지 지수를 K-means 클러스터 분석<sup>12)</sup>을 통해 유사한 성질을 나타내는 지역끼리 군집화함.
  - 군집수를 3개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각 클러스터의 평균값은 아래 표와 같음.

〈표 42〉 지역문화지수, 지역발전지수, 취약지역지수의 K-means 클러스터 분석 결과

구분	지역문화지수	지역발전지수	취약지역지수
문화취약지역 (113개소)	13.79	24.67	20.56
문화취약지원시급지역 (9개소)	13.47	24.02	59.84
문화 및 지역발전 우수지역 (107개소)	20.08	36.26	8.80

자료: 저자 작성.

12) K-means 클러스터 분석은 데이터를 특정 개수의 군집으로 나누는 알고리즘임. 여기서 K는 군집수이며 사용자가 결정하는데, 군집 내 제곱합(Within cluster sum of squares by cluster: 군집의 중심점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 가장 작은 것이 우수한 클러스터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 K의 개수를 3부터 10까지 늘렸을 때 중 K=3일 때, 가장 효율적인 클러스터로 나타나 그 결과를 사용함.



부 록  
1

## 문화산업의 개념과 본 연구에서의 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

- UNESCO에 의하면 문화산업은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하는 산업’을 의미.<sup>13)</sup> 그러나 문화산업은 새로운 기술, 법률제정, 생산 및 유통 조직의 수직적 통합이나 공동소유 제도 등 경제·경영적 변화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가 변화(Hirsch, 2000)
  - 이러한 이유로 국가마다 문화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정책적 구분 및 범위 설정이 상이하며, 학자에 따라서도 문화산업은 달리 정의되어 왔음(김광선 외, 2011).
  - Throsby(1994, 2004)는 전통적인 예술분야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반면, O'Connor(1999, 2002)는 문화산업을 콘텐츠, 미디어 중심의 ‘표준적 문화산업(classical cultural industries)’과 ‘전통예술(traditional arts)’로 구분하고 있음. Scott(1999)은 미디어 및 콘텐츠산업에 더해 공예, 패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관련 서비스산업들을 포함. 전체적으로 보아 문화산업은 초기에는 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그 후에는 레저와 오락적 요소를, 최근에는 전자적 또는 디지털 형태의 기술을 강조하고 있음(Pratt, 2002). 이에 따라 산업생산에 있어 경제적 측면 외에도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김재범, 2005).
  - 문화산업은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적 환경과 기술진보와 같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발전하여 왔기에, 제도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위 역시 국가마다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음. 영국에서는 문화산업이라는 말보다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이라는 용어가, 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산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저작권 산업(copyright industries)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호주도 최근 창조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주로 저작권 산업이라는 용어로 문화산업을 대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지니는 자국의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등을 중심으로 문화산업보다는 콘텐츠산업이라는 용어를 선호(임상오, 2004). EU의 경우 문화산업보다는 문화·창조산업(CCIs: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이라는 용어와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하며, 이에겐 건축, 기록물, 도서관 및 박물관, 공예, 시청각(영화, TV, 비디오, 멀티미디어 포함), 유·무형 유산, 디자인(패션디자인 포함), 축제, 음악, 문학, 공연예술(연극, 춤 포함), 도서 및 출판, 라디오, 시각예술 등이 포함되고 있음<sup>14)</sup>.

13) UNESCO(2009),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FCS).

14)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ultural-and-creative-industries\\_en](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ultural-and-creative-industries_en). (검색일: 2023.12.16)

- 문화산업은 기술 발전, 경제 변화, 제도 변화 등에 따라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EU의 문화·창조산업은 99.9%가 중소기업인 120만 개의 기업과 802만 명의 종사자로 구성되고 있으며, 4,770억 유로(약 676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하고 있음(EU의 연간 부가가치 창출액의 4.0%에 해당)<sup>15)</sup>. 참고로 EU는 'European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14개 주요 산업분야로 구분하고, 문화·창조산업(CCIs)을 이 중 한 부문으로 포함.
- 한국의 문화산업 규모는, 그 비중이 가장 큰 콘텐츠산업만 하더라도 2020년 기준 128조 2,870억 원으로 2016~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4.9%를 보일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함(홍무궁 외, 2022).
- 문화산업을 예술산업, 스포츠산업, 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까지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할 경우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규모는 연간 318.7조 원에 달하며 501,072개의 사업체에 1,696,640명이 종사하고 있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industrial strategy. (검색일: 2023.12.16.)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uropean-industrial-strategy\\_en#:~:text=On%2011%20May%202021%2C%20the%20Commission%20updated%20the,moresustainable%2C%20digital%2C%20resilient%20and%20globally%20competitive%20economy.](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uropean-industrial-strategy_en#:~:text=On%2011%20May%202021%2C%20the%20Commission%20updated%20the,moresustainable%2C%20digital%2C%20resilient%20and%20globally%20competitive%20economy.)

15) European Commission(202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nnual Single Market Report 2021.

##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 장르별 매출액 비중〉

구분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 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콘텐츠 솔루션
비중(%)	16.9	1.2	4.7	2.3	14.7	0.4	17.1	13.6	9.5	15.1	4.4
매출액순위	2	10	7	9	4	11	1	5	6	3	8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22),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홍무궁 외(2022)에서 재인용.

## 〈2020년 기준 문화산업 및 관련 산업 현황〉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문화체육관광산업		498,788	501,072	1,639,419	1,696,640	356,680,852	318,720,528
문화 산업	출판산업	25,718	25,770	109,211	114,223	21,217,891	22,346,078
	음악산업	35,948	35,574	43,891	43,733	4,612,996	4,677,734
	영화산업 및 방송산업	4,859	5,099	70,618	78,220	26,736,041	25,449,185
	광고산업	20,924	21,886	99,638	109,949	21,223,654	22,846,599
	게임산업	16,238	16,203	60,835	79,177	15,293,733	20,557,435
	시각그래픽 및 캐릭터	33,315	34,051	99,301	111,801	21,063,321	26,408,725
예술 산업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4,783	5,136	47,417	58,008	4,675,638	6,011,323
	문학 및 출판	33,823	33,299	138,298	140,122	25,175,465	26,612,538
	공연	40,413	41,648	73,969	78,037	16,679,081	15,396,747
	시각예술	48,604	50,737	158,464	177,195	21,237,612	22,393,534
	공예	97,926	97,295	239,103	240,503	57,496,100	60,990,785
스포츠 산업	스포츠시설업	49,262	50,842	194,317	213,173	30,897,270	31,565,060
	스포츠용품업	42,085	42,302	99,480	99,923	32,270,253	30,042,570
	스포츠 서비스업	43,908	45,007	126,729	131,930	38,834,490	28,858,899
관광 산업	관광숙박업 및 식당업	56,481	56,814	196,486	181,363	24,800,764	18,360,563
	여행사 및 관광운수업	11,731	11,535	109,700	104,217	32,732,663	15,828,747
	문화오락 및 레저산업	8,300	7,988	102,651	101,748	17,927,779	15,063,597
	관광쇼핑업	1,273	1,116	7,134	5,070	13,254,450	9,196,296
	국제회의 및 전시업	347	373	4,103	4,299	628,911	532,201

주: 2019년 값은 확정치, 2020년 값은 잠정치임. 매출액은 문화, 체육, 관광·농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총매출액이며, 해당 사업체가 문화, 체육, 관광 이외의 영역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사업체가 다수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산업 전체는 산업별 합이 아닌 전체 결과를 사용.

자료: 문화관광연구원(2022), 2020년 기준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 □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정의와 분류

- 우리나라 법제 상 문화산업을 가장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약칭 <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의미(법 제2조)
  - 문화상품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함)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의미
  - 문화산업 정의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문화산업이란 ‘①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②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③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④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⑥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애드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⑦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⑧ 대중문화예술 산업, ⑨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⑩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련 산업은 제외), ⑪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을 의미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 상의 산업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문화산업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산업 항목 96개 선정
  - 국내에는 현재 시행하는 문화산업 특수분류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196개 세세분류 항목 중 <문화산업법>이 규정하는 문화산업 개념에 부합하는 산업 세세분류 항목만을 도출
  - 향후 현행 특수분류 체계가 공표된 콘텐츠산업, 디자인산업, 저작권산업 등의 분류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 있음.
- 가치체인에 따른 문화산업 (잠정) 세부 부문: ① 제조 부문, ② 생산 (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부문, ③ 공급·배급·제공 유통 부문, ④ 소비 유통 부문, ⑤ 인력·행정·지원 부문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 상의 문화산업 항목: 최종 선정 이전 적합성 평가대상 목록〉

산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항목명	부문 코드	부문명칭
14130	한복 제조업	1	제조 부문
18111	경 인쇄업	1	제조 부문
18112	스크린 인쇄업	1	제조 부문
18113	오프셋 인쇄업	1	제조 부문
18119	기타 인쇄업	1	제조 부문
18121	제판 및 조판업	1	제조 부문
18122	제책업	1	제조 부문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1	제조 부문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	제조 부문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1	제조 부문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	제조 부문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	제조 부문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1	제조 부문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	제조 부문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1	제조 부문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1	제조 부문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1	제조 부문
27302	사진기, 영상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1	제조 부문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1	제조 부문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1	제조 부문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1	제조 부문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1	제조 부문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1	제조 부문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1	제조 부문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1	제조 부문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	제조 부문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	제조 부문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1	제조 부문
46452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4	소비유통 부문
4645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4	소비유통 부문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4	소비유통 부문
46462	악기 도매업	4	소비유통 부문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4	소비유통 부문
47611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4	소비유통 부문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4	소비유통 부문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	소비유통 부문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	소비유통 부문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	소비유통 부문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	소비유통 부문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	소비유통 부문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산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항목명	부문 코드	부문명칭
58112	만화 출판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8121	신문 발행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3	공급,배급,제공 유통 부문
59141	영화관 운영업	4	소비유통 부문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4	소비유통 부문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60100	라디오 방송업	3	공급,배급,제공 유통 부문
60210	지상파 방송업	3	공급,배급,제공 유통 부문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3	공급,배급,제공 유통 부문
60222	유선 방송업	3	공급,배급,제공 유통 부문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	공급,배급,제공 유통 부문
63111	자료 처리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3	공급,배급,제공 유통 부문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3	공급,배급,제공 유통 부문
63910	뉴스 제공업	3	공급,배급,제공 유통 부문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3	공급,배급,제공 유통 부문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3	공급,배급,제공 유통 부문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73303	사진 처리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73901	매니저업	5	인력 및 지원 부문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5	인력 및 지원 부문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5	인력 및 지원 부문
76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4	소비유통 부문
76291	서적 임대업	4	소비유통 부문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5	인력 및 지원 부문
85621	음악학원	5	인력 및 지원 부문
85622	미술학원	5	인력 및 지원 부문
85629	기타 예술학원	5	인력 및 지원 부문

산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항목명	부문 코드	부문명칭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4	소비유통 부문
90121	연극단체	5	인력 및 지원 부문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5	인력 및 지원 부문
90123	기타 공연단체	5	인력 및 지원 부문
90131	공연 예술가	5	인력 및 지원 부문
90132	비공연 예술가	5	인력 및 지원 부문
90191	공연 기획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90211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4	소비유통 부문
90212	독서실 운영업	4	소비유통 부문
90221	박물관 운영업	4	소비유통 부문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4	소비유통 부문

## 〈문화산업 하위 부문별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 수〉

문화산업 하위 부문 구분	산업 세세분류 항목 수
제조 부문	28
생산 부문(기획, 개발, 창작, 제작, 출판, 처리 등)	24
공급유통 부문(공급, 배급, 제공 유통 등)	11
소비유통 부문	21
인력 및 지원 부문	12
문화산업 전체	96

##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 기준의 문화산업 항목 및 전문가 적합성 평가 결과〉

단위: %

부문 구분	부문 명칭	산업 코드	산업 명칭	적합판정비율(%)			
				광역	기초	전문가	전체
문화산업 '부문 I'	제조부문	14130	한복 제조업	95.0	95.2	96.3	95.5
		18111	경 인쇄업	80.0	89.1	90.0	87.7
		18112	스크린 인쇄업	84.2	92.2	90.0	90.3
		18113	오프셋 인쇄업	75.0	89.1	90.0	86.8
		18119	기타 인쇄업	85.0	85.9	90.0	86.8
		18121	제판 및 조판업	85.0	92.2	90.0	90.4
		18122	제책업	85.0	92.2	93.3	91.2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85.0	89.1	83.3	86.8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70.0	89.1	83.3	84.2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80.0	84.4	76.7	81.6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75.0	82.8	76.7	79.8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75.0	85.9	73.3	80.7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80.0	90.6	80.0	86.0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70.0	82.8	73.3	78.1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75.0	92.2	79.3	85.8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70.0	89.1	82.8	84.1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75.0	90.6	86.2	86.7
		27302	사진기, 영상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75.0	89.1	86.2	85.8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75.0	89.1	80.0	84.2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85.0	90.6	90.0	89.5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90.0	89.1	90.0	89.5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85.0	92.2	90.0	90.4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75.0	84.4	86.7	83.3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80.0	85.9	86.7	85.1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70.0	79.7	76.7	77.2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80.0	81.3	75.9	79.6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60.0	71.9	60.7	67.0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85.0	89.1	78.6	85.7

부문 구분	부문 명칭	산업 코드	산업 명칭	적합판정비율(%)			
				광역	기초	전문가	전체
문화산업 '부문 II'	생산부문 (기획·개발· 창작·제작· 출판·처리 등)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70.0	87.5	90.3	85.2
		58112	만화 출판업	89.5	93.8	100	94.7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75.0	93.8	100	92.2
		58121	신문 발행업	70.0	90.6	93.5	87.8
		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85.0	90.6	96.8	91.3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90.0	92.2	93.5	92.2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80.0	89.1	96.7	89.5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5.0	93.8	96.8	93.0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0.0	95.3	96.8	93.0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0.0	96.9	96.8	95.7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5.0	93.8	100	95.7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5.0	95.3	100	96.5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0.0	96.9	96.8	95.7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85.0	93.8	96.8	93.0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90.0	95.3	96.8	94.8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90.0	96.9	96.8	95.7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90.0	93.8	90.3	92.2
		63111	자료 처리업	85.0	89.1	87.1	87.8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85.0	93.8	96.8	93.0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80.0	90.6	96.8	90.4
		73303	사진 처리업	80.0	93.8	96.8	92.2
		90191	공연 기획업	90.0	96.9	100	96.5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5.0	95.3	96.7	95.6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85.0	96.9	100	95.6
문화산업 '부문 III'	공급 유통부문 (공급·배급· 제공)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90.0	95.3	96.7	94.7
		60100	라디오 방송업	95.0	93.8	96.7	94.7
		60210	지상파 방송업	90.0	95.3	96.7	94.7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95.0	95.3	96.7	95.6
		60222	유선 방송업	85.0	89.1	93.3	89.5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95.0	87.5	93.3	90.4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90.0	84.4	90.0	86.8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90.0	87.5	90.3	88.7
		63910	뉴스 제공업	95.0	87.5	90.0	89.5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90.0	89.1	90.3	89.6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85.0	90.6	90.3	89.6

부문 구분	부문 명칭	산업 코드	산업 명칭	적합판정비율(%)			
				광역	기초	전문가	전체
문화산업 '부문Ⅳ'	소비 유통부문	46452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85.0	84.4	87.1	85.2
		4645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85.0	90.6	93.5	90.4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95.0	89.1	93.5	91.3
		46462	악기 도매업	100	93.8	90.3	93.9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90.0	87.5	90.3	88.7
		47611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85.0	92.2	100	93.0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90.0	89.1	96.8	91.3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100	87.5	100	93.0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85.0	90.6	96.8	91.3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95.0	93.8	100	95.7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90.0	93.8	96.8	93.9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85.0	93.8	96.8	93.0
		59141	영화관 운영업	100	92.2	100	95.7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95.0	85.9	90.3	88.7
		76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95.0	89.1	96.8	92.2
		76291	서적 임대업	95.0	90.6	96.8	93.0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0	95.3	96.8	94.8
		90211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100	90.6	100	94.8
		90212	독서실 운영업	68.4	89.1	80.6	83.3
		90221	박물관 운영업	94.7	93.8	96.8	94.7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100	85.9	93.5	90.4
문화산업 부문Ⅴ	인력 및 지원부문	73901	매니저업	75.0	80.0	87.1	81.0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90.0	95.4	93.5	94.0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90.0	92.3	87.1	90.5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90.0	90.8	93.5	91.4
		85621	음악학원	100	93.8	90.3	94.0
		85622	미술학원	100	93.8	90.3	94.0
		85629	기타 예술학원	95.0	98.5	90.3	95.7
		90121	연극단체	90.0	96.9	96.8	95.7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5.0	95.4	96.8	95.7
		90123	기타 공연단체	100	93.8	96.8	95.7
		90131	공연 예술가	100	95.4	96.8	96.6
		90132	비공연 예술가	95.0	95.4	96.8	95.7

## 〈시·도별 문화산업 증감율(2006~2020년)〉

단위: %

문화산업 사업체	부문1	부문2	부문3	부문4	부문5	사업체계
서울특별시	10.4	371.5	493.7	16.0	1661.8	144.0
부산광역시	-9.1	141.1	205.1	8.1	2858.0	65.4
대구광역시	2.8	135.3	246.5	15.9	3400.0	80.9
인천광역시	27.2	304.8	719.0	34.3	8637.9	122.3
광주광역시	-2.4	179.0	214.8	24.0	2810.5	91.5
대전광역시	20.3	187.8	360.8	27.0	6332.0	102.1
울산광역시	-0.9	124.5	208.3	15.3	6200.0	91.1
경기도	77.7	505.3	1208.2	69.9	9723.5	221.4
강원도	0.9	142.8	59.1	14.3	4950.0	86.0
충청북도	9.1	123.6	117.6	20.8	5591.3	82.1
충청남도	34.3	184.7	279.0	60.2	7570.0	152.3
전라북도	1.8	110.4	213.5	37.8	3557.1	96.6
전라남도	-3.1	111.8	45.5	27.7	3628.6	76.1
경상북도	-1.2	111.1	133.6	10.6	5875.0	70.4
경상남도	2.8	108.7	238.0	18.3	5545.8	89.1
제주도	16.5	387.4	358.3	67.5	2591.7	154.0
〈전국〉	21.6	292.9	429.0	30.1	3393.7	130.7
문화산업 종사자	부문1	부문2	부문3	부문4	부문5	종사자계
서울특별시	-19.5	104.0	125.0	15.9	652.1	70.4
부산광역시	-19.3	117.3	56.2	8.1	4024.1	44.8
대구광역시	7.7	78.5	12.8	11.1	741.3	45.1
인천광역시	19.4	270.4	265.8	47.0	44036.4	68.3
광주광역시	-15.7	55.7	290.7	40.6	4854.2	66.6
대전광역시	26.6	62.5	456.1	28.2	8302.6	86.0
울산광역시	-10.8	30.6	-54.0	39.6	10423.5	72.8
경기도	-14.6	570.2	345.0	76.7	14246.8	81.8
강원도	34.4	73.4	27.7	15.7	n.a.	71.0
충청북도	14.4	53.0	-49.4	35.0	34766.7	40.3
충청남도	-37.3	123.2	60.1	66.2	5551.7	73.2
전라북도	6.8	76.3	430.6	37.1	2898.0	86.0
전라남도	3.7	108.3	90.4	38.5	2548.6	79.9
경상북도	-66.0	112.5	30.9	14.0	n.a.	-16.0
경상남도	-46.5	56.1	70.3	24.0	3280.1	25.0
제주도	26.4	402.8	210.7	48.6	847.9	157.6
〈전국〉	-16.3	143.3	140.8	32.9	1587.4	66.4

주: 부문1=제조부문, 부문2=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부문3=공급유통 부문(공급·배급·제공·유통 등), 부문4=소비유통 부문, 부문5=인력 및 지원 부문.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

## 〈지역 구분별 문화산업 증감율(2006~2020년)〉

단위: %

구분		군지역	도농통합시	일반시	대도시(자치)구	전국
문화산업 사업체	부문1	5.4	51.0	44.6	8.1	21.6
	부문2	101.2	260.8	378.5	305.1	292.9
	부문3	19.9	490.8	791.2	439.3	429.0
	부문4	15.9	52.2	43.3	16.5	30.1
	부문5	3860.6	7718.2	6383.9	2222.3	3393.7
사업체계		<b>67.9</b>	<b>158.5</b>	<b>162.1</b>	<b>118.3</b>	<b>130.7</b>
문화산업 종사자	부문1	-45.3	-4.6	-28.1	-9.4	-16.3
	부문2	84.8	182.7	540.3	102.9	143.3
	부문3	-59.9	102.3	320.5	124.5	140.8
	부문4	42.0	60.1	43.7	17.9	32.9
	부문5	7431.4	5596.6	8347.3	923.5	1587.4
종사자계		<b>21.7</b>	<b>79.0</b>	<b>62.2</b>	<b>66.7</b>	<b>66.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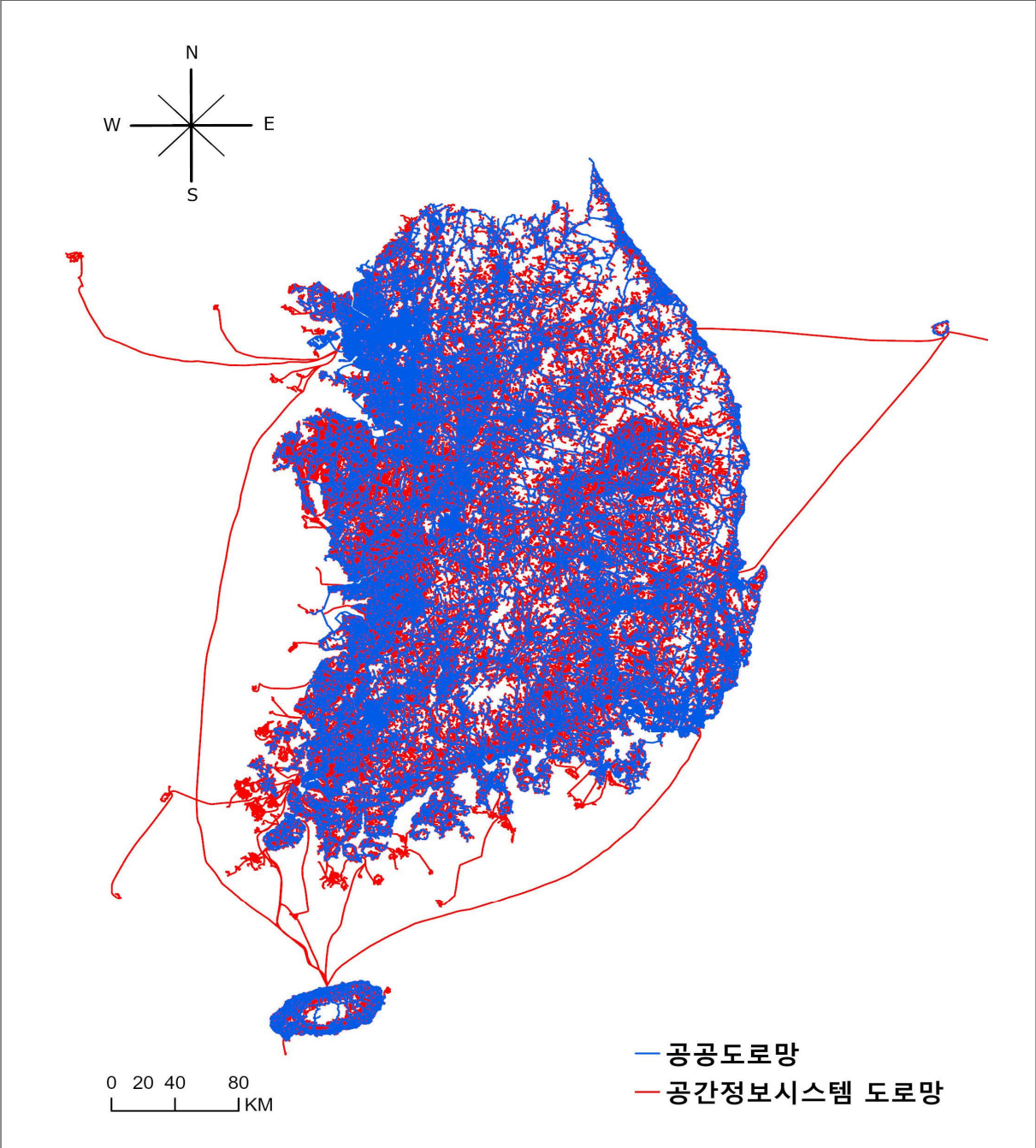
주: 부문1=제조부문, 부문2=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부문3=공급유통 부문(공급·배급·제공·유통 등), 부문4=소비유통 부문, 부문5=인력 및 지원 부문. 세종특별자치시는 도농통합시에 포함.



부  
록  
2

접근성 분석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도로망 구축체계도

〈그림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간정보분석시스템 도로망 구축체계도



### 부록 3

## 신규 지역문화지수 가중치 산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 대분류 간 중요도

- 문화정책-문화자원 대분류 간 쌍대 비교에서는 문화정책이 문화자원에 비해 평균 0.859점만큼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좌우 10~0점, 0~10점으로 쌍대 비교. 이후 동일).
  - 전체 응답 중 두 부문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19.5%인 가운데, 문화정책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36.7%, 문화자원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43.8%임.
- 문화정책-문화활동 대분류 간 쌍대 비교에서는 문화정책이 문화활동에 비해 평균 0.656점만큼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 전체 응답 중 두 부문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24.2%인 가운데, 문화정책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42.2%, 문화활동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33.6%임.
- 문화정책-문화향유 대분류 간 쌍대 비교에서는 문화정책이 문화향유에 비해 평균 1.344점만큼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 전체 응답 중 두 부문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22.7%인 가운데, 문화정책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50.8%, 문화향유가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26.6%임.
- 문화자원-문화활동 대분류 간 쌍대 비교에서는 문화자원이 문화활동에 비해 평균 1.563점만큼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 전체 응답 중 두 부문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24.2%인 가운데, 문화자원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51.6%, 문화활동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24.2%임.
- 문화자원-문화향유 대분류 간 쌍대 비교에서는 문화자원이 문화향유에 비해 평균 0.703점만큼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 전체 응답 중 두 부문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25.8%인 가운데, 문화자원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43.8%, 문화향유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30.5%임.

- 문화활동-문화향유 대분류 간 쌍대 비교에서는 문화활동이 문화향유에 비해 평균 0.859점만큼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 전체 응답 중 두 부문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34.4%인 가운데, 문화활동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35.2%, 문화향유가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30.5%임.

#### 〈대분류 지표 간 중요도 비교 결과〉

단위: %

대분류 지표 A	A가 더 중요 ←-----										동일 ⑩점	-----→ B가 더 중요										대분류 지표 B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화정책	3.9	2.3	0.0	3.1	3.9	7.0	2.3	7.8	5.5	0.8	19.5	3.9	4.7	7.0	3.9	4.7	3.9	3.9	6.3	2.3	3.1	문화자원
문화정책	4.7	2.3	2.3	3.9	3.1	7.8	4.7	7.8	3.9	1.6	24.2	3.1	4.7	6.3	3.1	6.3	1.6	2.3	1.6	2.3	2.3	문화활동
문화정책	4.7	1.6	4.7	4.7	1.6	10.2	4.7	11.7	3.1	3.9	22.7	3.1	3.9	5.5	1.6	3.1	1.6	3.9	1.6	0.8	1.6	문화향유
문화자원	4.7	1.6	5.5	2.3	3.1	8.6	9.4	8.6	5.5	2.3	24.2	6.3	2.3	3.1	1.6	3.1	2.3	1.6	0.8	1.6	1.6	문화활동
문화자원	3.9	0.8	4.7	2.3	3.1	7.0	5.5	7.8	6.3	2.3	25.8	6.3	3.9	0.8	3.1	7.0	0.8	2.3	0.8	2.3	3.1	문화향유
문화활동	4.7	0.8	2.3	0.8	5.5	0.0	5.5	7.8	3.9	3.9	34.4	3.9	2.3	5.5	2.3	7.8	0.8	1.6	1.6	2.3	2.3	문화향유

자료: 설문조사 결과.

#### □ 문화정책 하위 중분류 간 중요도

- 문화제도와 문화예산 간 중요도를 조사 응답자들이 쌍방향의 0점에서 10점 범위에서 비교·평가한 결과, 문화제도가 문화예산에 비해 평균 1.625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
  - 문화제도와 문화예산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3.4%임
  - 문화제도가 문화예산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50.8%, 반대의 경우는 25.8%로 나타남.
- 문화제도와 문화사업 간 중요도를 조사 응답자들이 쌍방향의 0점에서 10점 범위에서 비교·평가한 결과, 문화제도가 문화사업에 비해 평균 1.352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
  - 문화제도와 문화사업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4.2%임
  - 문화제도가 문화사업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8.4%, 반대의 경우는 27.3%로 나타남.

- 문화예산과 문화사업 간 중요도를 조사 응답자들이 쌍방향의 0점에서 10점 범위에서 비교·평가한 결과, 문화사업이 문화예산에 비해 평균 0.789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
  - 문화예산과 문화사업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8.9%임
  - 문화예산이 문화사업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8.9%, 반대의 경우는 42.2%로 나타남.

#### 〈문화정책 하위 중분류 간 중요도 비교 결과〉

단위: %

중분류 지표 A	A가 더 중요 <-----										동일 ⑩점	-----> B가 더 중요										중분류 지표 B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화정책관련 “문화제도”	6.3	1.6	8.6	7.0	3.9	10.9	3.9	6.3	1.6	0.8	23.4	0.8	1.6	3.1	4.7	3.1	3.9	1.6	1.6	0.8	4.7	문화정책관련 “문화예산”
문화정책관련 “문화제도”	4.7	3.1	4.7	5.5	4.7	10.9	3.9	5.5	4.7	0.8	24.2	2.3	2.3	3.9	5.5	2.3	0.8	3.9	2.3	1.6	2.3	문화정책관련 “문화사업”
문화정책관련 “문화예산”	3.9	0.8	3.1	3.9	3.1	3.9	2.3	4.7	3.1	0.0	28.9	3.9	1.6	5.5	3.1	7.8	3.1	3.1	6.3	1.6	6.3	문화정책관련 “문화사업”

자료: 설문조사 결과.

#### □ 문화자원 하위 중분류간 중요도

- 문화유산과 문화예술 간 중요도를 조사 응답자들이 쌍방향의 0점에서 10점 범위에서 비교·평가한 결과, 문화유산이 문화예술에 비해 평균 0.984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
  - 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5.0%임
  - 문화유산이 문화예술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6.1%, 반대의 경우는 28.9%로 나타남.
- 문화유산과 생활문화 간 중요도를 조사 응답자들이 쌍방향의 0점에서 10점 범위에서 비교·평가한 결과, 문화유산이 생활문화에 비해 평균 1.734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
  - 문화유산과 생활문화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4.2%임
  - 문화유산이 생활문화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53.1%, 반대의 경우는 22.7%로 나타남.

- 문화유산과 문화산업 간 중요도를 조사 응답자들이 쌍방향의 0점에서 10점 범위에서 비교·평가한 결과, 문화유산이 문화산업에 비해 평균 0.859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
  - 문화유산과 문화산업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1.9%임
  - 문화유산이 문화산업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5.3%, 반대의 경우는 32.8%로 나타남.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간 중요도를 조사 응답자들이 쌍방향의 0점에서 10점 범위에서 비교·평가한 결과, 문화예술이 문화산업에 비해 평균 0.820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1.3%임
  - 문화예술이 생활문화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0.6%, 반대의 경우는 28.1%로 나타남.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간 중요도를 조사 응답자들이 쌍방향의 0점에서 10점 범위에서 비교·평가한 결과, 문화산업이 문화예술에 비해 평균 0.352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2%임
  - 문화예술이 문화산업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7.3%, 반대의 경우는 37.5%로 나타남.
  
- 생활문화와 문화산업 간 중요도를 조사 응답자들이 쌍방향의 0점에서 10점 범위에서 비교·평가한 결과, 문화산업이 생활문화에 비해 평균 0.359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
  - 생활문화와 문화산업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8.9%임
  - 생활문화가 문화산업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1.3%, 반대의 경우는 39.8%로 나타남.

## 〈문화자원 하위 중분류 간 중요도 비교 결과〉

단위: %

중분류 지표 A	A가 더 중요 ←-----										동일 ⑩점	-----→ B가 더 중요										중분류 지표 B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화유산” 기반 문화자원	4.7	0.8	4.7	3.1	4.7	10.2	1.6	7.8	5.5	3.1	25.0	3.1	1.6	6.3	4.7	3.9	2.3	3.1		0.8	3.1	“문화예술” 기반 문화자원
“문화유산” 기반 문화자원	5.5	1.6	8.6	5.5	1.6	8.6	3.9	8.6	7.0	2.3	24.2	1.6	0.8	4.7	3.1	4.7	0.8	3.9	1.6	0.8	0.8	“생활문화” 기반 문화자원
“문화유산” 기반 문화자원	3.1	0.8	5.5	5.5	3.1	9.4	1.6	7.8	3.9	4.7	21.9	4.7	2.3	9.4	1.6	4.7	4.7	2.3		0.8	2.3	“문화산업” 기반 문화자원
“문화예술” 기반 문화자원	4.7	1.6	3.1	7.8	0.8	6.3	4.7	3.9	5.5	2.3	31.3	4.7	0.8	6.3	1.6	3.1	3.1	1.6	3.9	0.8	2.3	“생활문화” 기반 문화자원
“문화예술” 기반 문화자원	1.6	0.8	3.1	3.9	2.3	3.1	1.6	6.3	3.9	0.8	35.2	0.8	7.8	8.6	3.1	6.3	3.9	0.8	0.8	2.3	3.1	“문화산업” 기반 문화자원
“생활문화” 기반 문화자원	2.3	3.1	1.6	0.8	3.9	5.5	3.9	6.3	2.3	1.6	28.9	3.1	3.9	9.4	3.9	4.7	3.1	1.6	4.7	3.1	2.3	“문화산업” 기반 문화자원

자료: 설문조사 결과.

## □ 문화활동(대분류) 중분류 간 중요도

- 문화활동 조직과 문화활동 인력 간 중요도를 조사 응답자들이 쌍방향의 0점에서 10점 범위에서 비교·평가한 결과, 문화활동 조직이 문화활동 인력에 비해 평균 0.859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
  - 문화활동 조직과 문화활동 인력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6.6%임
  - 문화유산이 문화예술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6.9%, 반대의 경우는 26.6%로 나타남.

## 〈문화활동 하위 중분류 간 중요도 비교 결과〉

단위: %

중분류 지표 A	A가 더 중요 ←-----										동일 ⑩점	-----→ B가 더 중요										중분류 지표 B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화활동 “조직”	5.5	0.8	3.1	2.3	3.9	10.2	5.5	7.0	6.3	2.3	26.6	0.8	3.1	4.7	1.6	6.3	0.8	5.5	3.1	0.0	0.8	문화활동 “인력”

자료: 설문조사 결과.

## □ 문화향유(대분류) 중분류 간 중요도

- 문화유산 및 예술 경험과 생활문화 경험 간 중요도를 조사 응답자들이 쌍방향의 0점에서 10점 범위에서 비교·평가한 결과, 문화유산 및 예술 경험이 생활문화 경험에 비해 평균 1.016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
  - 문화유산 및 예술 경험과 생활문화 경험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1.1%임
  - 문화유산 및 예술 경험이 생활문화 경험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7.7%, 반대의 경우는 31.3%로 나타남.
- 문화유산 및 예술 경험과 문화소비 규모 간 중요도를 조사 응답자들이 쌍방향의 0점에서 10점 범위에서 비교·평가한 결과, 문화유산 및 예술 경험이 문화소비 규모에 비해 평균 0.344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
  - 문화유산 및 예술 경험과 문화소비 규모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1.1%임
  - 문화유산 및 예술 경험이 문화소비 규모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3.0%, 반대의 경우는 35.9%로 나타남.
- 생활문화 경험과 문화소비 규모 간 중요도를 조사 응답자들이 쌍방향의 0점에서 10점 범위에서 비교·평가한 결과, 문화유산 및 예술 경험이 문화소비 규모에 비해 평균 0.859점 더 중요하다고 응답
  - 생활문화 경험과 문화소비 규모의 중요도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3.4%임
  - 생활문화 경험이 문화소비 규모보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2.0%, 반대의 경우는 44.5%로 나타남.

### 〈문화향유 하위 중분류 간 중요도 비교 결과〉

단위: %

중분류 지표 A	A가 더 중요 ←-----										동일 ⑩점	-----→ B가 더 중요										중분류 지표 B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유산·예술 경험”	3.1	1.6	3.9	2.3	5.5	5.5	10.2	7.8	6.3	1.6	21.1	3.1	5.5	7.0	2.3	6.3	0.8	3.1	1.6	0.8	0.8	“생활문화 경험”
“유산·예술 경험”	3.9	1.6	3.9	1.6	3.9	3.9	5.5	7.8	6.3	4.7	21.1	0.8	6.3	7.0	3.1	9.4	1.6	3.1	2.3	0.8	1.6	“문화소비 규모”
“생활문화 경험”	4.7	1.6	1.6	2.3	3.9	3.1	5.5	4.7	4.7	23.4	0.8	6.3	6.3	4.7	11.7	3.1	2.3	6.3	0.8	2.3	6.3	“문화소비 규모”

자료: 설문조사 결과.

부록  
4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개선 및 가중치 설정, 문화산업 분류  
타당성 관련 설문조사지

##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개선 및 부문별 가중치 결정 등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전문가분들(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포함)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부문별 가중치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지역문화지수를 개선하는 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 내용은 본 연구에 활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개인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내용 문의: 심재현 연구위원(T. 061-820-2196)

김광선 연구위원(T. 061-820-2361)

정학성 연구원(T. 061-820-2034)

## I.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 사항

1.1. 귀하의 직업군을 아래에서 선택하여 해당 번호에 √표해주시시오.

\* 복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항목 하나만 선택

- ① 문화·예술인(창작, 비평, 실연, 연출, 무대기술 등)
-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사업체 운영(종사자 포함)
- ③ 문화·예술 분야 교육지도훈련(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 분야 방과후 교사 등)
- ④ 문화·예술 관련 분야 연구자(대학교수, 연구자 등)
- ⑤ 중앙행정기관(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 ⑥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 ⑦ 기타(직접 기입: )

1.2. 위 1.1에서 선택하신 직업군과 관련, 귀하의 현 직장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 (직장명: )

1.3. 위 1.1에서 선택하신 직업군에서 일하신 경력 기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1.4. 귀하의 연령대(만 나이)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표해주시시오.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세 이상

1.5. 귀하의 성별에 √표해주시시오. → ( ① 남성    ② 여성 )



## II.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부문별 중요도 조사

아래 표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문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체계>입니다.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문화정책	정책 사업	1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2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2019년, 2020년)*	지자체
	정책 환경	3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2020년)*	지자체/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4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2020년)*	지자체
		5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2020년)*	지자체
	문화 예산	6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2020년)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7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2020년)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8	지역문화기금 설치 여부(2020년)	지자체
		9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2020년)	지자체/기준년도예산계획서
문화자원	문화 유산	10	시·도 지정 문화재 수(2020년)	문화재청
		11	문화보급 전수 시설 수(2020년)	국립무형유산원
	기반 시설	12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13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2020년)	문체부 자료/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지역문화진흥원
		14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2020년)	장애인인증개발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15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2020년)*	지자체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원 활용	16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일 수(2019년,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17	공공 도서관 주당 평균 개방 시간(2019년, 2020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18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2019년, 2020년)	전국지역축제총괄표
		19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문화활동	활동 조직	20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2020년)	예술경영지원센터
		21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202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활동 인력	22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3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2020년)*	지자체
		24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202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5	문화관광해설사 수(2020년)*	지자체
		26	법정사서직원 확보율(2020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7	문예회관 500개서 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향유	지역 주민	28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29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소외 계층	30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1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32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현황통계분석).





다음은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체계 개선안>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어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실태 유형 분류

- 現지역문화실태조사의 대분류 체계인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체계를 법적 근거(지역문화 정의 및 실태조사 포함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
- 더불어, 지역문화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현황(지역발전수준)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
  - \* 지표의 대분류 체계를 기존 4대 부문인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에 더불어 “지역발전수준과 문화소외수준”의 5개 카테고리리로 구분
- 법적 근거에 따라 중분류 체계도 변경
  - \* “문화정책” 부문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2에 따라 “문화관련 제도, 문화예산, 문화사업”으로 분류
  - \* “문화자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으로 구분
  - \* 기존 “문화자원” 내 “자원활용” 부문 지표는 “문화정책-문화사업” 카테고리리로 이동
  - \* “문화활동”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2에 의거하여 “조직(문화예술인단체), 인력(문화전문인력)”으로 구분
  - \* 기존 “문화향유”에 부문의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은 문화소외계층 관련 사업의 내용의 지표임. 또한 “지역주민”에 관한 지표도 지자체 사업에 관련한 내용이기 “문화정책-문화사업” 카테고리리로 이동
- 법령에는 있지만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파악하지 않았던 문화산업에 대한 지표를 신규로 발굴하여 문화자원(대분류) 지표로 포함
- “문화향유” 카테고리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발굴·보완
- 지역문화와 지역발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보완
  - \* “지역발전과 문화취약성”은 “지역현황(지역발전 수준)”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문화취약성”으로 세분
-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의 4개 카테고리인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이 각 중분류 체계에서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지표 내용을 보강
  - \* “문화정책, “문화활동, 문화향유” 카테고리 내 “지역문화”의 4개 요소(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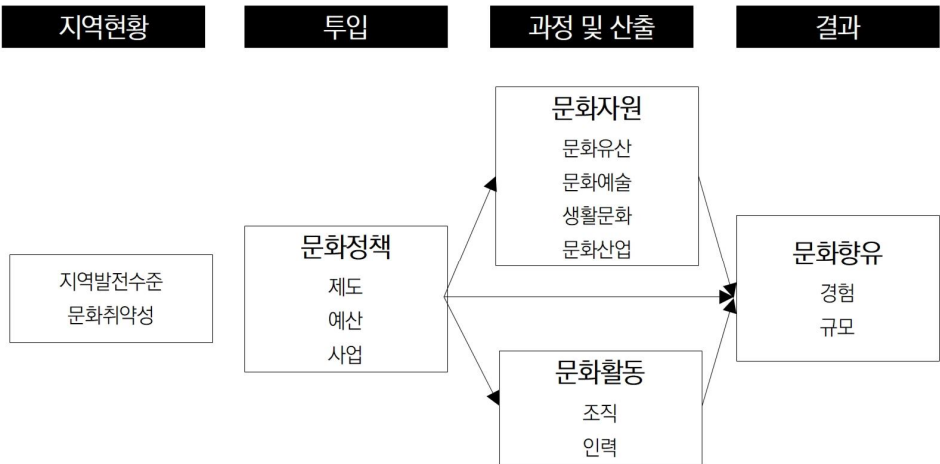
○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지표 분류체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표 1>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표 체계 변경(안)

기존 분류 체계			신규 분류 체계(안)		비고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문화정책	정책사업		문화정책	제도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관련 내용을 포함
	정책환경			예산	
	문화예산			사업	
문화자원	문화유산		문화자원	문화유산	기존 지표 보완 및 신규 지표 발굴
	기반시설			문화예술	
	자원활용			생활문화	
	문화산업				
문화활동	활동조직		문화활동	조직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관련 내용을 포함
	활동인력			인력	
문화향유	지역주민		문화향유	문화경험	신규지표 발굴
	소외계층			문화소비규모	
-	-		지역현황	지역발전수준 (지역간비교지표)	삶터
					일터
					공동체터
				문화취약성 (취약지역선정지표)	문화소외계층
					도서벽지
					폐광지역

○ 지역문화정책 효과를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입-과정·산출-결과의 성과평가 체계로 개선

- 기존 지역문화실태조사는 부문별 연관성이 낮아 지역문화정책 성과 파악이 어려운 구조임
- 이에 위에서 제시한 체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성과평가 체계로 개선하는 것을 제안
  - \* “문화정책”이 투입되면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에 영향을 주고, “문화자원 및 문화활동”은 “문화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설계하고 해당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체계 “개선안”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신규/수정
문화 정책	문화제도		1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	
			2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공무원) 비율	
			3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4	전체 문화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비율	
	문화예산		5	1인당 생활문화 진흥 예산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생활문화동호회·단체지원, 민간공간지원 예산액의 합)	◎
			6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시군구 등 지자체 전체 범위로 추진되는 축제 한정)	
			7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	
	문화 사업	일반 문화 사업	8	전체 문화·예술 사업 중 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9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수	
			10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	
			1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취약 계층 지원 사업	12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문화 프로그램 건 수	
			13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문화 자원	문화유산		14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수(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포함)	▲
			15	문화유산 보존·보급·전수 시설 수(박물관,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16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문화유산 보존·보급·전수 시설 접근성(거리 및 시간)	◎
	문화예술		17	문화예술활동건수(문학 행사 및 관련 학술행사,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
			18	문화예술시설 수(등록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미술관, 문예회관 및 복합문화예술시설, 문학관 등)	▲
			19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문화예술시설로의 접근성(거리 및 시간)	◎
	생활문화		20	생활문화시설 수(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공공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평생학습관/센터, 지역자치센터 등)	▲
			21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	◎
			22	500m 격자 단위 거주지로부터 생활문화시설로의 접근성(거리 및 시간)	◎
	문화산업		23	문화산업 사업체수	◎
24			문화산업 종사자수	◎	
문화 활동	활동 조직	문화 유산	25	문화유산 활용 단체 수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한국문화유산협회 등 정부인가단체 회원사)	◎
		문화 예술	26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문화 예술	27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수	
	활동 인력	생활 문화	28	생활문화 진흥 조직 수(지역문화진흥기관수, 문화재단·생활문화센터·지방문화원 등)	▲
		문화 유산	29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30	문화관광해설사 수	
		문화 예술	31	(인구 만 명당) 등록 예술인수	
			32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	
			33	문예회관 500객석 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생활 문화	34	생활문화 진흥 담당업무 인력 수	◎
35	법정 사서직원 확보율				
문화 향유	유산·예술경험		36	문화유산 및 문예시설 방문객/이용객 수(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학관)	◎
			37	공연시장 티켓 판매수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대중음악, 무용(서양/한국무용), 서커스/마술, 복합” 장르의 티켓판매수)	◎
	생활문화 경험		38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연간 이용자 수(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등)	◎
			39	(20세 이상 인구 대비) 생활문화 동호회 수	◎
	문화소비 규모		40	문화서비스 부문 신용카드 지출액	◎
			41	문화관광 부문 네비게이션 검색량	◎
지역 일반 현황	지역발전수준 (일반현황)		42	삶터·생활서비스수준	◎
			43	일터: 지역경제력 수준	◎
			44	공동체터: 주민활력 수준	◎
	문화소외수준 (취약지역선 정지표)		45	문화소외계층 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자 등)	◎
			46	도서벽지지역 보유수	◎
			47	폐광지역 유무	◎

주: [신규/수정] 컬럼에서 ‘빈칸’=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유지,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개선안에 신규로 추가,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의 내용 수정을 의미.

중분류 지표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중분류 지표 B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⑩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화유산” 기반 문화자원																						“문화예술” 기반 문화자원
“문화유산” 기반 문화자원																						“생활문화” 기반 문화자원
“문화유산” 기반 문화자원																						“문화산업” 기반 문화자원
“문화예술” 기반 문화자원																						“생활문화” 기반 문화자원
“문화예술” 기반 문화자원																						“문화산업” 기반 문화자원
“생활문화” 기반 문화자원																						“문화산업” 기반 문화자원

- 2.4. <문화활동> 대분류 지표 내에 포함된 ‘중분류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해당 점수에 √ 표해주시시오.

중분류 지표 A	A가 더 중요 ←-----										동일 ⑩점	-----→ B가 더 중요										중분류 지표 B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화활동 “조직”																						문화활동 “인력”

- 2.5. <문화향유> 대분류 지표 내에 포함된 ‘중분류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해당 점수에 √ 표해주시시오.

중분류 지표 A	A가 더 중요 ←-----										동일 ⑩점	-----→ B가 더 중요										중분류 지표 B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유산·예술 경험”																						“생활문화 경험”
“유산·예술 경험”																						“문화소비 규모”
“생활문화 경험”																						“문화소비 규모”

- 2.6.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체계 개선안>의 ‘대분류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해당 점수에 √ 표해주시시오.

대분류 지표 A	A가 더 중요 ←-----										동일 ⑩점	-----→ B가 더 중요										대분류 지표 B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정책																						문화활동
문화정책																						문화향유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자원																						문화향유
문화활동																						문화향유

주: 지역 일반 현황은 지역 설명 자료로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문화지수에는 제외여서 중요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 2.7.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체계 개선안>의 전반적인 내용, 세부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 칸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I.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변경안에 대한 적합성 조사

3.1. 다음은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지표입니다.

이에 대한 적합성을 '① 적합, ② 부적합'으로 평가하여 해당 번호에 √표해주시요.

'현행' 체계		지표명	사유	'제외' 적합성	
대분류	중분류			적합	부적합
문화 정책	문화 예산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2020년)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광역자치단체 예산 의존 편차 고려	① 적합	② 부적합
		지역문화기금 설치 여부(2020년)	현재는 설치 여부만 판단하여 실제 기여에 대한 정확한 측정 불가	① 적합	② 부적합
문화 자원	기반 시설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2020년)	형식적 운영으로 실제 장애인 친화도 수준 측정과의 괴리 존재	① 적합	② 부적합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2020년)*	형식적 운영으로 실제 임산부 친화도 수준 측정과의 괴리 존재	① 적합	② 부적합
	자원 활용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일 수(2019년, 2020년)	문화 공급(향유 기회) 수준을 더 정밀하게 나타내는 지표('문화예술 활동 건수')로 대체	① 적합	② 부적합
		공공 도서관 주당 평균 개방 시간(2019년, 2020년)	자치단체별 차이가 미미하여 실효성 부족	① 적합	② 부적합
문화 향유	지역주민	인구 만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2019년, 2020년)*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지자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지표와 내용 다소 중복	① 적합	② 부적합

3.2. 위 3.1.의 현행 지표의 '제외 적합성'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다음은 현행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표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정안에 신규로 ‘추가’하고자 하는 지표입니다. (지표 수정/추가 안)

이에 대한 적합성을 ‘① 적합, ② 부적합’으로 평가하여 해당 번호에 √표해주십시오.

‘개정안’ 체계		개정안 지표명 및 현행 지표와의 관계[수정/추가]	사유 (가용 자료)	수정/추가 적합성	
대분류	중분류			적합	부적합
문화 정책	문화 예산	[추가] 1인당 생활문화 진흥 예산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생활문화동호회·단체지원, 민간공간지원 예산액의 합	기존에 생활문화 관련 예산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여 추가 발굴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① 적합	② 부적합
		[수정]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수 *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포함	기존에는 시도 지정문화재만 해당했으나 국가 지정문화재로 추가하여 확대 (문화재현황기초자료)	① 적합	② 부적합
	문화 유산	[수정] 문화유산 보존보급전수 시설 수 * 박물관,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기존에는 보급전수 시설만 집계하였으나, 전국의 문화유산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파악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및 국립무형유산원 자료)	① 적합	② 부적합
		[추가]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문화유산 보존보급전수 시설 접근성 * 거리 및 시간	지역문화의 실질적 향유여건과 관련하여 문화유산 시설 접근성 측면 지표 추가 (시설 위치정보 기반 GIS분석)	① 적합	② 부적합
	문화 자원	[추가] 문화예술활동건수 * 문학(행사/학술행사),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예술 생산(공급) 관련 지표 추가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① 적합	② 부적합
		[수정] 문화예술 시설 수 * 등록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미술관, 복합문화예술시설(문예회관), 문학관 등	기존에는 인구 1천 명당 시설 수로 집계하였으나, 인구 과소지역이 오히려 유리한 집계 결과가 도출되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시설 수로 수정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및 관련 승인통계)	① 적합	② 부적합
		[추가]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 거리 및 시간	지역문화의 실질적 향유여건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측면 지표 추가 (시설 위치정보 기반 GIS분석)	① 적합	② 부적합
		[수정] 생활문화 시설 수 *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공공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평생학습관(센터), 지역자치센터 등	기존에는 인구 1만 명당 시설 수로 집계하였으나, 인구 과소지역이 오히려 유리한 집계 결과가 도출되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시설 수로 수정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및 관련 승인통계)	① 적합	② 부적합
문화 자원 (계속)	생활 문화	[추가]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	생활문화 질적 공급(향유 기회) 관련 지표 추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① 적합	② 부적합
		[추가] 거주지(500m 격자단위)로부터 생활문화시설로의 접근성(거리, 시간)	지역문화의 실질적 향유여건과 관련하여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측면 지표 추가 (시설 위치정보 기반 GIS분석)	① 적합	② 부적합
		[추가] 문화산업 사업체수	법령 근거 ‘문화산업’ 관련 지표 추가 (전국사업체조사)	① 적합	② 부적합
	문화 산업	[추가] 문화산업 종사자수	법령 근거 ‘문화산업’ 관련 지표 추가 (전국사업체조사)	① 적합	② 부적합
		[추가] 문화유산 활용단체 수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화유산협회 등 정부인가단체 회원사	문화유산 관련 전문적 활동조직 관련 지표 추가 (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	① 적합	② 부적합
	문화 활동	[수정] 생활문화 진흥 조직 수 *(지역문화진흥기관수, 문화재단·생활문화센터·지방문화원 등	기존에는 지역문화진흥기관 수로 집계하였으나, 실질적인 생활문화	① 적합	② 부적합



'개정안' 체계		개정안 지표명 및 현행 지표와의 관계[수정/추가]	사유 (가용 자료)	수정/추가 적합성	
대분류	중분류			적합	부적합
			활동조직을 선별하여 집계 (지자체/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활동인력	[추가] 생활문화 진흥 담당업무 인력 수	광역지자체의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자체의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의 생활문화 진흥업무 담당 인력 수 집계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① 적합	② 부적합
문화 향유	문화 예술 경험	[추가] 문화유산 및 문예시설 방문객 (이용객)수 *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학관	지역주민의 문화유산 및 문예시설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현황 파악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① 적합	② 부적합
		[추가] 공연시장 티켓 판매수 *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대중음악, 무용(서양/한국무용), 서커스/마술, 복합" 장르의 티켓 판매수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현황 파악 필요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조사망)	① 적합	② 부적합
	생활 문화 경험	[추가] 생활문화시설 연간 이용자 수 *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등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현황 파악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① 적합	② 부적합
		[추가] 생활문화동호회수 * 음악, 무용, 미술, 공예, 문학, 연극 등 장르별 생활문화동호회 현황	2023년 관련 조사가 실시되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장르별 생활문화동호회 현황 집계 가능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① 적합	② 부적합
	문화 소비 규모	[추가] 문화서비스 부문 신용카드지출액	지역의 문화소비 규모를 파악하기 지표 추가. 2024년(2023년 기준)부터 관련 내용의 신용카드 지출액 집계 가능 (한국관광 데이터랩)	① 적합	② 부적합
		[추가] 문화관광부문 네비게이션 검색량	지역의 다양한 문화 소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 추가. 2024년부터 관련 내용의 네비게이션 검색량 집계 가능 (한국관광 데이터랩)	① 적합	② 부적합

\* 시설 접근성은 실제 도로(T-map도로망)을 이용한 이동 거리시간을 계산함.

3.4. 위 3.3.의 지표 ‘수정/추가 적합성’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IV. 문화산업 세세분류 항목 선정 적합성 조사

아래 <문화산업>의 법적 개념 정의에 따라 잠정적으로 선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세분류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의미

- 문화상품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함)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의미
- 문화산업 정의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문화산업이란 ①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②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③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④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⑥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애드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⑦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⑧ 대중문화예술산업, ⑨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⑩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련 산업은 제외), ⑪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을 의미함.

## &lt;문화산업 하위 부문(부문 구분)&gt;

문화산업 하위 부문 구분	산업 세세분류 항목 수
제조 부문	28
생산 부문(기획,개발,창작,제작,출판,처리 등)	24
공급유통 부문(공급,배급,제공 유통 등)	11
소비유통 부문	21
인력 및 지원 부문	12
문화산업 전체	96

4.1. 아래의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 상에서 잠정적으로 선정한 문화산업 항목에 대해 문화산업으로서의 적합성을 ‘① 적합, ② 부적합’으로 평가하여 해당 번호에 √표해주시요.

4.2. 위 4.1 문항과 함께, 개별 세세분류 항목에 대한 문화산업 부문 I~V로의 구분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 제일 오른쪽 칼럼 ‘부문이동’란에 I, II, III, IV, V 중 하나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부문 I에 속해 있는 특정 세세분류 항목이 부문III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실 시 ‘III’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의 부문 구분을 유지해도 좋다고 판단할 시에는 빈칸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 〈문항 4.1 및 4.2 관련 문화산업 세세분류 목록 잠정안〉

부문 구분	부문 명칭	KSIC 5 digit	산업 명칭	적합성		부문 이동
문화산업 ‘부문Ⅰ’	제조부문	14130	한복 제조업	①	②	
		18111	경 인쇄업	①	②	
		18112	스크린 인쇄업	①	②	
		18113	오프셋 인쇄업	①	②	
		18119	기타 인쇄업	①	②	
		18121	제판 및 조판업	①	②	
		18122	제책업	①	②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①	②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①	②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①	②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①	②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①	②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①	②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①	②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①	②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①	②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①	②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①	②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①	②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①	②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①	②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①	②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①	②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①	②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①	②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①	②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①	②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①	②	
문화산업 ‘부문Ⅱ’	생산부문 (기획·개발· 창작·제작·출 판·처리 등)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①	②	
		58112	만화 출판업	①	②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①	②	
		58121	신문 발행업	①	②	
		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①	②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①	②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①	②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①	②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①	②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①	②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①	②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①	②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①	②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①	②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①	②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①	②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①	②	
		63111	자료 처리업	①	②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①	②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①	②	
		73303	사진 처리업	①	②	
		90191	공연 기획업	①	②	
문화산업 ‘부문Ⅲ’	공급 유통부문 (공급·배급· 제공)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①	②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①	②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①	②	
		60100	라디오 방송업	①	②	
		60210	지상파 방송업	①	②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①	②	

		60222	유선 방송업	①	②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①	②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①	②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①	②	
		63910	뉴스 제공업	①	②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①	②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①	②	
문화산업 '부문Ⅳ'	소비 유통부문	46452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①	②	
		4645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①	②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①	②	
		46462	약기 도매업	①	②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①	②	
		47611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①	②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①	②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①	②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①	②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①	②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①	②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①	②	
		59141	영화관 운영업	①	②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①	②	
		76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①	②	
		76291	서적 임대업	①	②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①	②	
		90211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①	②	
		90212	독서실 운영업	①	②	
		90221	박물관 운영업	①	②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①	②	
문화산업 부문Ⅴ	인력 및 지원부문	73901	매니저업	①	②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①	②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①	②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①	②	
		85621	음악학원	①	②	
		85622	미술학원	①	②	
		85629	기타 예술학원	①	②	
		90121	연극단체	①	②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①	②	
		90123	기타 공연단체	①	②	
		90131	공연 예술가	①	②	
		90132	비공연 예술가	①	②	

4.3. 이 외에 문화산업 분류와 관련해 제시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록  
5

## 지역문화실태조사 신규 지표의 각 지표별 세부사항

번호	지표명			
1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정책	문화제도	기존지표	조사수행기관	높음
구성	지역문화 관련조례 건수			
	= 지역문화(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관련 조례 건수			
의의	자치단체별 문화 관련 조례 제정 건 수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a href="https://www.elis.go.kr/">https://www.elis.go.kr/</a> )			
구축 방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부문별 해당 키워드를 검색 후 유관 조례를 추출하여 집계함. 문화유산관련 제도: “문화유산” 키워드를 통해 검색 문화예술관련 제도: “문화예술” 키워드를 통해 검색 생활문화관련 제도: “생활문화” 키워드를 통해 검색 문화산업관련 제도: “문화산업” 키워드를 통해 검색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향후 개선 방향				

번호	지표명			
2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정책	문화제도	기존지표	지방자치단체	높음
구성	<div>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div> <div><math display="block">= \frac{\text{본청 및 소속기관 내 문화, 예술, 관광, 유산, 콘텐츠 담당 인력 수}}{\text{공무원 총원 수}} \times 100</math></div>			
의의	자치단체별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공무원) 비율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구축 방법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문화, 예술, 관광, 유산, 문화콘텐츠 등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원 대비 문화관련 행정인력의 비율로 산출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향후 개선 방향				

번호	지표명			
3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정책	문화예산	기존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div>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비율</div> <div><math display="block">= \frac{(\text{문화예술 예산} + \text{문화재 예산})}{\text{연간 예산총액}} \times 100</math></div>			
의의	자치단체별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출처	지방재정365( <a href="http://www.lofin365.go.kr">www.lofin365.go.kr</a> )			
구축 방법	예산은 지방재정365( <a href="http://www.lofin365.go.kr">www.lofin365.go.kr</a> )에서 조사년도 기준, 통합재정개요(예산) - 부문별 세출(총계, 당초) 내역을 기준으로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을 파악 - 문화관련예산은 문화 및 관광(060)의 세목 가운데 문화예술(061), 문화재(064)의 합으로 함(관광, 체육 제외)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향후 개선 방향				



번호	지표명			
4	전체 문화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비율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정책	문화예산	기존지표	지방자치단체	높음
구성	<div>전체 문화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 관리 예산 비율</div> <div><math display="block">= \frac{(\text{문화재 예산} + \text{지역문화 예산 일부})}{\text{문화관련 예산 총액}} \times 100</math></div>			
의의	자치단체별 전체 문화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비율			
출처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			
구축 방법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문화재예산 및 지역문화 유산 예산 일부 정보를 집계하여 입력함. - 문화재 예산(064)+지역문화유산 예산(061 일부) × 100 / 지자체 문화관련 예산 총액(061+064)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향후 개선 방향				

번호	지표명			
5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정책	문화예산	기존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div>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div> <div>= <math>\frac{\text{지역축제 예산 합계}}{\text{지역축제 수}}</math></div>			
의의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1건당 평균 예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연도별 지역축제 정보			
구축 방법	'문체부 홈페이지의 '연도별 지역축제 정보'에 기재된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예산의 총합계를 지역축제수로 나누어 축제 1개당 평균예산을 산출함. 마을축제와의 구분을 위해 시군구 등 지자체 전체 범위로 추진되는 축제로 한정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향후 개선 방향				

번호	지표명			
6	주민 1인당 생활문화 진흥 예산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정책	문화예산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낮음
구성	<div>주민 1인당 생활문화 진흥 예산</div> <div>= <math>\frac{\text{생활문화 진흥 관련 예산 합계}}{\text{총 인구 수}}</math></div>			
의의	자치단체별 생활문화정책 관련 예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구축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집하는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결과의 생활문화 진흥 관련 예산 총액을 기준년도 인구 수로 나누어 산출함.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생활문화동호회·단체지원, 민간공간지원 등 전체 예산 합)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향후 개선 방향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데이터의 보완 및 정확성 제고, 조사 정례화가 필요함.			

번호	지표명			
7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정책	문화사업	기존지표	지방자치단체	보통
구성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수 합계			
의의	자치단체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구축 방법	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과/부서에서 직접 계획 또는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을 지칭하며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시군구비와 국비, 도비가 매칭되고, 조사년도(1월1일~12월31일)에 착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함.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향후 개선 방향	내역사업 분리입력 등 사업 건수 과대계상 방지를 위한 입력기준 명확화가 필요함.			



번호	지표명			
8	전체 문화·예술 사업 중 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정책	문화사업	기존지표	지방자치단체	보통
구성	<div>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div> <div><math display="block">= \frac{\text{자체 문화사업 건 수}}{\text{전체 문화사업 건 수}} \times 100</math></div>			
의의	자치단체별 전체 문화·예술 사업 중 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구축 방법	문화관련 사업 중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없이 100% 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을 의미함. 조사년도(1월 1일~12월 31일)에 착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연속 사업은 제외함.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향후 개선 방향	내역사업 분리입력 등 사업 건수 과대계상 방지를 위한 입력기준 명확화가 필요함.			

번호	지표명			
9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정책	문화사업	기존지표	지방자치단체	높음
구성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수 = 권역 내 사업 건 수의 총계			
의의	자치단체별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건수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구축 방법	본 지표에 입력하는 내용은 반드시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된 사업만을 입력하며 반복 개최된 경우 개최일을 모두 입력함. 이때 사업 건수의 계산 기준은 ‘사업명’ 단위임.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10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정책	문화사업	기존지표	지방자치단체	높음
구성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 = 각 지자체 지원 대상 마을축제 합계			
의의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구축 방법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마을축제의 수를 입력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1축제 1기입' 등 입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번호	지표명			
11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정책	문화사업	기존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 \frac{\text{통합문화이용권 집행액}}{\text{통합문화이용권 예산 배정액}}$			
의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 배정액 대비 집행액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구축 방법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및 발급률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 하는 유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기준년도 기초자치단체 단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및 카드 발급률 통계 자료를 구축하여 입력함.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12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정책	문화사업	기존지표	지방자치단체	보통
구성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 자치단체 사업 건수의 총계			
의의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구축 방법	지역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관련 문화사업을 바탕으로 입력함. ‘사업명-사업내용 및 세부프로그램-소관부서’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13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정책	문화사업	기존지표	지방자치단체	보통
구성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 자치단체 사업 건수의 총계			
의의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구축 방법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함. ‘사업명-사업내용 및 세부프로그램-소관부서’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14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자원	문화유산	기존지표 수정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p>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수</p> <p>= 국가지정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p>			
의의	자치단체 내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수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포함)			
출처	문화재청 '문화재 관리현황' (승인통계)			
구축 방법	<p>승인통계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현황”를 바탕으로 입력하고 일부 무형문화재의 경우 자치단체를 넘는 경우(자치단체 특정 불가)가 있어 해당 지자체가 특정불가 항목에 해당하면 중복해서 입력하도록 함.</p> <p>* 예) 국가무형문화재인 '경기민요'의 경우 자치단체를 특정할 수 없기에 경기도에 해당하는 모든 시군에 중복 집계</p> <p>자료 입력 시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등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누어 기입하여 향후 개별 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분류함.</p>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향후 국가유산법 개정안 시행 등 고려하여 변경·수정 필요함.			

번호	지표명			
15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자원	문화유산	기존지표 수정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p>문화보급·전수 시설 수</p> <p>= 국악원 + 전수교육관</p>			
의의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 국악원, 전수교육관			
출처	<p>국악원 ‘국악연감’</p> <p>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통합플랫폼’ (<a href="https://support.nihc.go.kr/">https://support.nihc.go.kr/</a>)</p>			
구축 방법	<p>‘국악원’은 국립국악원 본원 및 산하기관을 바탕으로 입력함.</p> <p>‘전수교육관’은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통합플랫폼에 기재된 전수교육관 시설 목록을 바탕으로 입력함.</p>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16	문화보급·전수 시설 접근성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자원	문화유산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p>문화보급·전수시설 접근성</p> <p>= 문화유산 보존·보급·전수시설 공간정보 기반 GIS분석</p> <p>→ 평균 접근거리 및 소요시간 산출</p>			
의의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문화보급·전수 시설 접근성(이동시간)			
출처	GIS분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접근성 분석 시스템 등)			
구축 방법	<p>‘문화보급·전수시설 수’ 지표에서 취합된 문화보급, 전수 관련 시설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국토지리정보원 500M 격자지도를 활용, GIS 접근성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균 시설 접근거리 및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입력함.</p>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16	문화보급·전수 시설 접근성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자원	문화유산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문화보급·전수시설 접근성 = 문화보급·전수시설 공간정보 기반 GIS분석 → 평균 접근거리 및 소요시간 산출			
의의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문화보급·전수 시설 접근성(이동시간)			
출처	GIS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접근성 분석 시스템 등)			
구축 방법	'문화유산 보존·보급·전수시설 수' 지표에서 취합된 문화유산 보존, 보급, 전수 관련 시설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국토지리정보원 500M 격자지도를 활용, GIS 접근성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균 시설 접근거리 및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입력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17	문화예술활동 건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자원	문화예술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div>문화예술활동건수</div> <div>= 시각예술(편람) + 공연예술(편람)</div>			
의의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지역기반 활동 건수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구축 방법	문화예술활동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공표되는 문예연감 중 전체 편람 부문에 기재된 ‘시각예술’, ‘공연예술’ 부문 행사활동을 바탕으로 입력함.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18	문화예술시설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자원	문화예술	기존지표 수정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p>문화예술시설 수</p> <p>= 등록공연장 + 영화관 + 박물관 + 미술관 + 문화예술회관 + 문학관</p>			
의의	자치단체별 문화예술시설 수: 등록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학관			
출처	<p>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p> <p>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등록공연장 현황'</p> <p>영화진흥위원회 '전국극장조사'</p>			
구축 방법	<p>등록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학관 등 6종 시설 수를 취합하여 집계함.</p> <p>- '등록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등록공연장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함.</p> <p>- '영화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극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함.</p> <p>-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학관'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바탕으로 입력함.</p>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19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자원	문화예술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p>문화예술 시설 접근성</p> <p>= 문화예술 시설 공간정보 기반 GIS분석</p> <p>→ 평균 접근거리 및 소요시간 산출</p>			
의의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문화예술시설 접근성(이동시간)			
출처	GIS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접근성 분석 시스템 등)			
구축 방법	'문화예술시설 수' 지표에서 취합된 문화예술시설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국토지리정보원 500M 격자지도를 활용, GIS 접근성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균 시설 접근거리 및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입력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20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자원	생활문화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보통
구성	<p>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p> <p>=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p>			
의의	자치단체별 생활문화센터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구축 방법	기준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 중 생활문화센터 항목의 각 자치단체별 '연간 운영프로그램 수(개)' 자료를 집계하여 입력함.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의 이용객(방문객) 등 지자체 자체입력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함.			



번호	지표명			
21	생활문화시설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자원	생활문화	기존지표 수정	조사수행기관 (일부 자치단체)	높음
구성	<p>생활문화시설 수</p> <p>= 생활문화센터 + 도서관 + 문화의집 + 지방문화원 + 생활체육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 + 지역자치센터(마을회관)</p>			
의의	자치단체별 생활문화시설 수: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생활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평생학습관(센터), 주민자치센터			
출처	<p>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p> <p>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통계' / 교육청 '평생교육통계'</p> <p>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주민자치센터)</p>			
구축 방법	<p>‘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문화의집’, ‘지방문화원’은 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함.</p> <p>‘생활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의 자치단체별 ‘생활체육관’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p> <p>‘청소년활동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청소년수련시설통계 현황 자료 중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청소년 문화의집)’, ‘특화시설’의 지역별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p> <p>‘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는 교육청에서 매년 공표하는 평생교육통계의 행정구역별 평생학습관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함.</p> <p>‘주민자치센터’는 일원화된 통계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 각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마을회관) 현황을 집계하여 입력함.</p>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22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자원	생활문화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높음
구성	<p>생활문화 시설 접근성</p> <p>= 생활문화 시설 공간정보 기반 GIS분석</p> <p>→ 평균 접근거리 및 소요시간 산출</p>			
의의	500m 격자단위 거주지로부터 생활문화시설 접근성(이동시간)			
출처	GIS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접근성 분석 시스템 등)			
구축 방법	'생활문화시설 수' 지표에서 취합된 생활문화시설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국토지리정보원 500M 격자지도를 활용, GIS 접근성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균 시설 접근거리 및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입력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23	문화산업 사업체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자원	문화산업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높음
구성	<p>문화산업 사업체 수</p> <p>= 문화산업 세세분류 해당 사업체 수(개)</p>			
의의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문화산업 분야 사업체 수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구축 방법	기준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 중 문화산업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본 연구의 문화산업 세세분류 및 기타 관련 산업분류를 바탕으로 문화산업 분류 확립이 필요함.			

번호	지표명			
24	문화산업 종사자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자원	문화산업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높음
구성	문화산업 종사자 수 = 문화산업 세세분류 해당 사업체 종사자 수(명)			
의의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 수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구축 방법	기준년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 중 문화산업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본 연구의 문화산업 세세분류 및 기타 관련 산업분류를 바탕으로 문화산업 분류 확립이 필요함.			

번호	지표명			
25	문화유산 활용단체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활동	활동조직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높음
구성	문화유산 활용 단체 수 =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회원단체 수			
의의	자치단체 내 문화유산 활용 단체 수			
출처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구축 방법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의 회원단체를 자치단체별로 집계함.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문화유산 활용 단체 기준 정립 필요함. (1개 단체로는 대표성 확보 미흡)			

번호	지표명			
26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활동	활동조직	기존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p>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p> <p>= 등록 문화예술법인, 단체(사단, 재단법인) + 문화예술임의단체</p>			
의의	등록 문화예술법인, 단체 및 문화예술임의단체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임의단체 시스템( <a href="http://www.artsdb.or.kr">http://www.artsdb.or.kr</a> )			
구축 방법	<p>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임의단체 시스템(<a href="http://www.artsdb.or.kr">http://www.artsdb.or.kr</a>)에서 제공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리포트' 자료에 공개된 법인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임의단체로 등록된 문화예술법인·단체 수를 합산하여 집계함.</p> <p>*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p>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27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활동	활동조직	기존지표 수정	조사수행기관	높음
구성	<p>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수</p> <p>=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동조합</p>			
의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및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업종 협동조합			
출처	<p>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a href="https://www.socialenterprise.or.kr/">https://www.socialenterprise.or.kr/</a>)</p> <p>협동조합포털 (<a href="https://www.coop.go.kr/">https://www.coop.go.kr/</a>)</p>			
구축 방법	기준년도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과 및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수를 집계함.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28	생활문화 진흥 조직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활동	활동조직	기존지표 수정	조사수행기관	보통
구성	<p>생활문화 진흥 조직 수</p> <p>= 생활문화센터 + 지역문화재단 + 지방문화원</p>			
의의	생활문화 진흥 조직 수: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구축 방법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기재된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생활문화 진흥 조직으로의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 발굴 방안이 필요함.			

번호	지표명			
29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활동	활동인력	기존지표	지방자치단체	높음
구성	<p>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p> <p>= 학예전문인력(정학예사, 준학예사, 지방학예사) + 문화재관리인력</p>			
의의	학예전문인력(정학예사, 준학예사, 지방학예사) 및 문화재관리인력(관련 전담 또는 겸임)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구축 방법	<p>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의 정보 자료(해당 인력의 성명, 대분류, 소속, 직급, 최초임용일, 자격증번호 등)를 통해 집계함.</p> <p>* 학예전문인력: 1·2·3급 정학예사 + 준학예사 + 기타 지방학예사</p> <p>* 문화재 관리인력: 계약직, 별정직, 행정·술직, 학예직, 기능직에 전담 또는 겸임으로 고용된 인력</p>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문화재관리인력의 기준 명확화 필요함.			

번호	지표명			
30	문화관광해설사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활동	활동인력	기존지표	지방자치단체	높음
구성	문화관광해설사 수 = 자격 취득 문화관광해설사 수			
의의	자격 보유 문화관광해설사 수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직접 입력			
구축 방법	자치단체의 문화관광해설사 정보 자료(해당 인력의 성명, 거주지, 소속, 자격부여일 등)를 통해 집계함.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31	등록예술인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활동	활동인력	기존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등록예술인 수 = 지역별 등록예술인 수			
의의	자치단체별 등록예술인 수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ist.kr)			
구축 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ist.kr)에 등록된 예술활동증명 DB를 활용, 기준연도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명단을 수집하여 집계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32	문화예술교육사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활동	활동인력	기존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문화예술교육사 수 = 지역별 자격 취득 문화예술교육사 수			
의의	자치단체별 자격 취득 문화예술교육사 수: 2급, 1급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구축 방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기준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등록된 문화예술교육사(누적) 수를 집계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33	문예회관 500객석 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활동	활동인력	기존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문예회관 500객석 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 \frac{\text{지역별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times 500}{\text{지역별 문예회관 공연장 객석 수 합계}}$			
의의	자치단체별 자격 취득 문화예술교육사 수: 2급, 1급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구축 방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기준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등록된 문화예술교육사(누적) 수를 집계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34	생활문화 진흥 업무 담당인력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활동	활동인력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낮음
구성	생활문화 진흥 업무 담당인력 수 = 본청 담당인력 + 유관기관 담당인력			
의의	자치단체별 본청 및 유관기관의 생활문화 진흥 업무 담당인력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구축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하는 기준년도의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결과 중 '조직 및 인력' 항목에 기재된 '담당 인력'의 수를 지역별로 집계하여 입력함.  광역자치단체 집계 시 본청 및 유관기관 데이터와 기초자치단체 데이터를 합하여 산출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데이터의 보완 및 정확성 제고, 조사 정례화가 필요함.			

번호	지표명			
35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활동	활동인력	기존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div>법정 사서 직원 확보율</div> <div><math display="block">= \frac{\text{정규 사서 직원 수}}{\text{법정 사서 직원 수}} \times 100</math></div>			
의의	법정 사서 직원 수 대비 정규 사서 직원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a href="https://libsta.go.kr/">https://libsta.go.kr/</a> )			
구축 방법	정규사서직원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법정사서직원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도서관 면적, 총 장서 수 자료를 통해 1관당 법정사서직원수를 계산함. 계산된 1관당 법정사서직원 확보율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평균하여 법정사서직원 확보율을 산출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36	문화유산 및 문예시설 이용객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향유	유산·예술경험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보통
구성	문화유산 및 문예시설 방문객(이용객) 수 = 박물관 + 미술관 + 지방문화원 + 문예회관 + 문학관			
의의	문화유산 및 문예시설 이용객(방문객, 참여자) 수: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학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구축 방법	박물관, 미술관: 연평균 이용객 수 / 문예회관: 총 이용자 수 지방문화원: 연간 참여자 수 / 문학관: 연간 방문인원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의 이용객(방문객) 등 지자체 자체입력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함.			

번호	지표명			
37	공연시장 티켓 판매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향유	유산·예술경험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높음
구성	공연시장 티켓 판매 수 = 지역 소재 공연장 총 티켓판매수(건)			
의의	자치단체 내 공연장 티켓 판매 수: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대중음악, 무용(서양/한국무용), 서커스/마술, 복합 장르의 티켓판매수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https://www.kopis.or.kr/)			
구축 방법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통계-공연시설별 통계에서 제공하는 ‘공연장별 티켓 판매수’ 자료를 활용, 기준년도의 공연장별 티켓 판매수를 각 시설의 소재지별로 재분류하여 입력함.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38	생활문화시설 이용자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향유	생활문화경험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보통
구성	생활문화시설 이용자 수 = 생활문화센터 + 도서관 + 문화의집			
의의	자치단체별 생활문화시설(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이용자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구축 방법	기준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의 생활문화 관련 시설 방문객, 이용객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공공도서관: 이용자수 생활문화센터: 연간 이용자수 문화의집: 연간 이용자수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의 이용객(방문객) 등 지자체 자체입력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함.			

번호	지표명			
39	생활문화 동호회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향유	생활문화경험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낮음
구성	생활문화 동호회 수 = 지역별 생활문화동호회 수			
의의	자치단체별 생활문화 관련 활동 동호회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구축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하는 기준년도의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결과 중 '동호회' 항목에 기재된 지역별 생활문화동호회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지자체 생활문화정책 현황 실태조사 데이터의 보완 및 정확성 제고, 조사 정례화가 필요함.			

번호	지표명			
40	문화서비스 부문 신용카드 지출액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향유	문화소비규모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높음
구성	문화서비스 부문 신용카드 지출액 = 지역별 문화서비스 부문 관광지출액			
의의	자치단체별 문화서비스 부문 신용카드 지출액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 <a href="https://datalab.visitkorea.or.kr/">https://datalab.visitkorea.or.kr/</a> )			
구축 방법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홈페이지의 ‘빅데이터’ 항목 중 ‘지역별 관광지출액’을 바탕으로 입력함. 이때, 관광총소비가 아닌 ‘문화서비스’ 부문의 데이터만을 집계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해당 데이터는 2024년 6월 이후 개방 예정임. (한국관광공사)			
번호	지표명			
41	문화관광부문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문화향유	문화소비규모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높음
구성	문화관광 부문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 지역별 문화관광 부문 검색건수			
의의	자치단체별 문화관광 부문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 <a href="https://datalab.visitkorea.or.kr/">https://datalab.visitkorea.or.kr/</a> )			
구축 방법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홈페이지의 ‘빅데이터’ 항목 중 ‘지역별 검색 건수’를 바탕으로 입력함. 이때, 전체 값이 아닌 ‘문화관광’ 부문의 데이터만을 집계함.			
광역 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 데이터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42	지역발전지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지역일반현황	지역발전수준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지역발전수준 = 생활서비스 + 지역경제력 + 여가휴양공간 + 주민활력			
의의	자치단체별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주민활력 부문 지역발전 수준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발전지수(RDI)'			
구축 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지역발전지수(RDI)의 지역별 원자료를 협조받아 입력함.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43	문화소외계층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지역일반현황	문화소외수준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인구 만명 당 문화소외계층 수 $= \frac{\text{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수급권자} + \text{장애인연금 수급권자}}{\text{시군구별인구수}} \times 10,000$			
의의	문화소외계층 수: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사업 시군구별 수급권자 현황'			
구축 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간하는 '복지사업 시군구별 수급권자 현황'의 기준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별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와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이 수에 시군구별 인구수로 나누고 10,000을 곱해 산출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44	도서·벽지지역 보유 수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지역일반현황	문화소외수준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도서·벽지 지역 보유 수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인정 도서지역 + 벽지지역			
의의	도서·벽지 지역 해당여부 및 인정지역 수			
출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구축 방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도서지역, 벽지지역 인정 개수를 집계하여 입력함.			
광역 조사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합			
개선 필요 사항				

번호	지표명			
45	폐광지역 해당 여부			
대분류	중분류	기존지표 여부	자료 구축 주체	지표 신뢰도
지역일반현황	문화소외수준	신규지표	조사수행기관	매우 높음
구성	폐광지역 해당 여부 = 관내 폐광지역진흥지구 유무 여부			
의의	폐광지역진흥지구 해당 여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 <a href="https://www.motie.go.kr/">https://www.motie.go.kr/</a> )			
구축 방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중, 가장 최근의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고시에 기재된 폐광지역진흥지구 보유 시군구를 1로, 나머지 시군구를 0으로 입력함.			
광역 조사	폐광지역진흥지구 보유 시도를 1, 나머지 시도를 0으로 입력			
개선 필요 사항				



참고  
문헌

- 강수택·박재흥, 2013, 한국사회 문화격차의 변화추이와 문화취향, <현상과 인식> 37(3): 87-115,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김재범, 2005, 문화산업의 이해,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 김광선, 2010,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 문화산업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동심포지움 “농촌의 문화를 논하다: 농촌자원의 가치와 활용”.
- 김광선·유은영·허주녕, 2017,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민·김현호, 2019,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사회적 관계망 및 공동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노영순, 김가윤. 2015. 지역문화실태조사 추진과 향후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2022. 2022 국민생활문화활동조사 결과보고서.
- 박선태·이미영·한우석, 201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서우석·김정은, 2010,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 송미령, 김용렬, 성주인, 박주영, 허윤진, 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심재현·민경찬·김민석·손경민·유서영·이진, 2022 지역발전지수(RDI), <KREI 농정포커스> 제21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수현·조현성·오유라·김효선·유지은. 2019. 국제 비교를 통한 문화지표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유네스코, 2019, 문화 | 2030 지표, 유네스코.
- 임상오, 2004, 문화콘텐츠산업 산업분류 연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이재희, 2010, 지방자치 이후 지역간 문화격차 변동: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18권 제4호, 53-72쪽.
- 정우식·이아름·김영걸·김창수·심지아·김태엽·서지애. 2020. 문화취약지역 기준 개발 및 지원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최미세, 2016,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현황: 미국, 유럽, 독일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24(1): 315-335, 한국독일어문학회.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3, 국민 삶의 질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2020년 기준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22,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 허은진·김영주. 2021. 문화영향평가 핵심가치지표 타당성 논의. 문화정책논총 제35집 1호.
- 홍무궁·박찬욱·이윤경, 2022, 문화산업 투자 소외장르 선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Adorno, T.W.(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J.M. Bernstein), 1991, *The culture industry: selected essays on mass cultur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ede Welvaart & d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itgave 2023.(광범위한 번영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023년 판).
- Cheng, S W. 2005. Cultural Goods Production, Cultural Capital Formation and the Provision of Cultural Services. *Volkswirtschaftliche Diskussionsbeitraege*. 119-05, Universitaet Siegen, Fachbereich Wirtschaftswissenschaften.
- European Commission, 202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nnual Single Market Report 2021.
- Hirsch, P.M., 2000, Cultural Industries revisited, *Organization Science*, 11(3): 356-361.
- Joint Research Center, 2023 Update. Cultural and Creative Cities Monitor, JRC technical report.
- Maraña, M., 2010, Culture and Development: Evolution and Prospects, UNESCO Etxea working Papers No.1.
- O'Connor, J. 1999, The Definition of 'Cultural Industries', MIPC. (<http://www.mipc.mmu.ac.uk/iciss/reports/defin.pdf>)
- OECD, 2020, How's Life? 2020 :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 Pratt, A.C. 2002, Understanding the Cultural Industries: Is More or Less?, In C. Mercer(eds.). *Culturelink Special Issue: Convergence, Creative Industries and Civil Society*, The New Cultural Policy, 51-68.
- Schnass, M.P. and A. Widuto, 2022, Cul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
- Scott A.J., 1999, The cultural economy: geography and the creative field, *Media, Culture & Society*, 21(6): 807-817.
- Throsby, D. 1999, Cultural Capital,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3(1/2): 3-12.
- Throsby, D. 2000, Cultural Capital in a Globalising World, 한국문화경제학회 서울국제학술회의 「Cultural Industries in the Information Age」(2000년 10월 27일).
- Throsby, D.(성제환 역), 2004, 문화 경제학 (Economics and Culture), 한울출판사.
- UNESCO, 2009,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FCS).
- UK Measures of National Well-being user guide. 2023. 7. 5.(Release date).

#### 〈참고 웹사이트〉

- 문화재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 SMU DataArts 웹사이트(<https://culturaldata.org>).
- [www.gut-leben-in-deutschland.de/indicators/](http://www.gut-leben-in-deutschland.de/indicators/).